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정 승 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최 시 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공동연구	이 시 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송 민 이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연구지원	김 소 현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강 수 진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원

제 출 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광역시에서 의뢰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재)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 미 애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전국적으로 1인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에 해당함. 인천의 경우 2022년 1인가구는 37만 6천 4백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0%를 차지하고 있음.
- 1인가구는 성별과 생애주기, 1인가구 형성의 요인, 혼인상태 및 혼인의사, 거주지역과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연령과 성별은 가장 주요하게 1인가구의 정책 욕구를 차별화하는 요인이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1인가구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이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추세임.
- 인천광역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성 형식의 변화됨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5년간의 인천광역시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중앙정부의 1인가구 정책 및 타 시도 1인가구 정책을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천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며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 2022년 실시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대해 성별과 연령을 교차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함.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생애주기와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요구도를 조사함.
- 인천광역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생활, 주거, 돌봄, 안전, 사회적관계망 등 분야별 추진과제 도출하여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 계획 수립(안)을 제시함.

○ 연구 방법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와 인천 사회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인구현황 및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요구도를 분석함.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정책요구를 분석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43명의 남성과 여성의 1인가구를 세대별로 할당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함. 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1대1 대면조사로 진행함.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군구 1인가구 사업 담당자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 정책 추진 방향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비전은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으로 설정함.
-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로 살아갈 삶에 대해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인가구여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단위 정책에서 1인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에 대해서 1인가구를 고려한 정책 추진의 노력도 필요함.

- 1인가구 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세대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수요와 함께 성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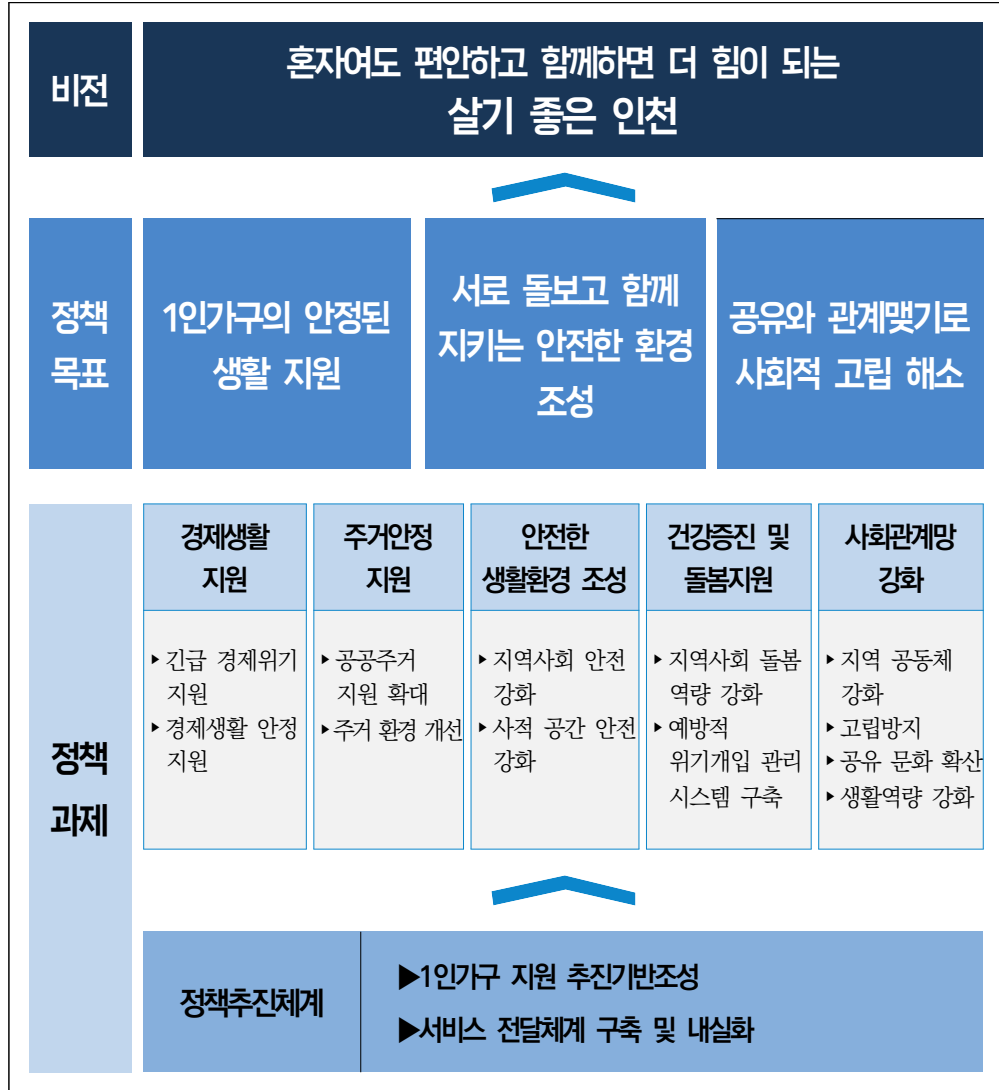
○ 비전 및 정책 목표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은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으로 도출함. 1인가구로 생활하여도 편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인가구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다는 지향을 담은 것임.
-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는 첫째, 1인가구의 안정된 생활 지원, 둘째, 서로 돌보고 함께 지키는 안전한 환경 조성, 셋째, 공유와 관계맺기로 사회적 고립 해소로 정함.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1인가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생활과 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립함. 또한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 참여형의 상호돌봄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1인가구가 돌봄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돌봄의 주체로서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담았음.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이 서로 관계맺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함.

○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14개의 정책과제와 3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함.

[그림 1]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표 1〉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주관부서 (협조부서)
① 정책추진 기반 구축	1-1. 1인가구 지원 추진기반 조성	1-1-1.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	신규	인구가족과
	1-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1-2-1.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	인구가족과
		1-2-2.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확대	인구가족과
	1-3.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1-3-1.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정책홍보 강화	신규	인구가족과
② 경제생활 지원	2-1.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	2-1-1. 1인가구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인천사회서비스원)
		2-1-2. 자립준비 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신규 및 확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2.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2-2-1. 중장년 1인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공정사회경제과 (경제정책과)
		2-2-2.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정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2-3. 1인가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2-3-1. 1인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신규	공정사회경제과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③ 주거안정 지원	3-1. 주거지원	3-1-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확대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1-2. 중장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1-3.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신규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2. 주거 환경 개선	3-2-1.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확대	주택정책과 (광역주거복지센터)
		3-2-2.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신규	인구가족과 (광역주거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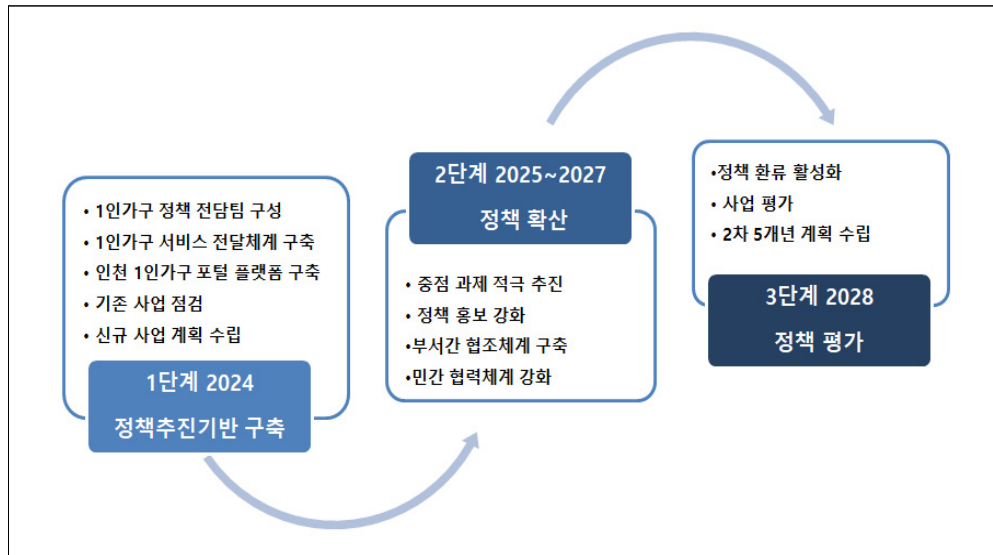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주관부서 (협조부서)
④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 지역사회 안전 강화	4-1-1.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확대	안전상황실 토지정보과
		4-1-2. 안심귀가 지원 사업	확대	인구가족과 (자치경찰위원회)
	4-2. 사적 공간 안전 강화	4-2-1. 여성안심드림사업	확대	여성정책과
⑤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5-1.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1-1. 1인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건강증진과
		5-1-2. 1인가구 고령환자 간병비 지원	신규	건강증진과
		5-1-3.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인구가족과
		5-1-4. 1인가구 정신건강 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상담 지원	확대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5-1-5. 고립·은둔 자활 프로그램 운영	신규	복지서비스과
		5-1-6. 반려동물 돌봄 지원	신규	농축산과
	5-2. 예방적 위기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	5-2-1.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 시스템 구축	확대	복지서비스과
		5-2-2. AI케어콜 서비스 확대	확대	복지서비스과
		5-2-3.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과
		5-2-4.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확대	건강증진과 (인천자살예방센터)
		5-2-5. 웰다잉 지원 사업	신규	건강증진과 (노인정책과)
⑥ 사회관계 망 강화	6-1. 지역 공동체 강화	6-1-1.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신규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6-1-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지원사업	신규	인구가족과 (청년정책담당관)
	6-2. 공유 문화 확산	6-2-1.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신규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6-2-2. 공유부엌 조성 및 요리 코칭 사업 운영	신규	

□ 1인가구 정책 추진 로드맵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단계(2023년), 2단계(2025~2027), 3단계(2028)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과업을 제시함.

[그림 2]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24년에는 정책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1인가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업임.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에 1인가구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1인가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주요 1인가구 정책 추진부서에 1인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짐. 군구 가족센터에 1인가구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 정책들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둬.
- 2단계 2025년~2027년에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확산하는 단계임. 1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책체감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함.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

- 3단계 2028년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조사를 새롭게 수행함. 이를 바탕으로 2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계획수립을 진행함.

차례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II.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11
1. 중앙정부 및 타 시도 1인가구 지원 정책 현황	13
2. 인천광역시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검토	26
III. 인천광역시 1인가구 특성 및 실태 분석	41
1. 인천광역시 1인가구 분포 및 특성	43
2.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분석	61
3.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 조사 분석	134
IV.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153
1. 정책 추진 방향	155
2. 비전 및 정책 목표	156
3.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159
4.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161
5. 1인가구 정책 추진 로드맵	208
■ 참고문헌	213

표 차례

〈표 Ⅰ-1〉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7
〈표 Ⅰ-2〉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9
〈표 Ⅱ-1〉 중앙정부 차원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요약	13
〈표 Ⅱ-2〉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중 1인가구 자원 사업	15
〈표 Ⅱ-3〉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Ⅰ) 요약	16
〈표 Ⅱ-4〉 광역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17
〈표 Ⅱ-5〉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주요 정책영역	20
〈표 Ⅱ-6〉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중점추진과제	22
〈표 Ⅱ-7〉 부산광역시 1인가구 핵심 정책과제	23
〈표 Ⅱ-8〉 타 시도 1인가구 정책 연구	24
〈표 Ⅱ-9〉 인천광역시 1인가구 관련 조례	27
〈표 Ⅱ-10〉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2017) 정책 제언 요약	28
〈표 Ⅱ-11〉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2017) 정책 제언 요약	29
〈표 Ⅱ-12〉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자원방안 연구」(2018) 정책 제언 요약	30
〈표 Ⅱ-13〉 「인천시 중장년 1인가구 자원방안 연구」(2022) 제안 사업 요약	30
〈표 Ⅱ-14〉 인천광역시 1인가구 정책 선행연구	33
〈표 Ⅱ-15〉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자원 관련 정책 현황	34
〈표 Ⅱ-16〉 2023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가구 자원 관련 정책 현황	37
〈표 Ⅲ-1〉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18~2022)	44
〈표 Ⅲ-2〉 인천광역시 생애주기별 1인 가구(2018~2022)	46
〈표 Ⅲ-3〉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가구 밀집지역(2022)	50
〈표 Ⅲ-4〉 인천광역시 군·구내 읍·면·동 1인 가구 비율(2020)	52
〈표 Ⅲ-5〉 인천광역시 1인가구 밀집지역(읍·면·동 기준, 2020)	53
〈표 Ⅲ-6〉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증감률(2022)	56
〈표 Ⅲ-7〉 1인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61
〈표 Ⅲ-8〉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64
〈표 Ⅲ-9〉 혼자 생활하기 전 같이 산 사람	66
〈표 Ⅲ-10〉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점(1순위)	68

표 차례

〈표 III-11〉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69
〈표 III-12〉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받은 경험(중복응답)	73
〈표 III-13〉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불이익	74
〈표 III-14〉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76
〈표 III-15〉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77
〈표 III-16〉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78
〈표 III-17〉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	80
〈표 III-18〉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필요한 노력	81
〈표 III-19〉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	83
〈표 III-20〉 생활비 지출액	88
〈표 III-21〉 생애주기별 생활비 지출액	89
〈표 III-22〉 빛을 지게 된 이유	91
〈표 III-23〉 노후 준비 여부	92
〈표 III-24〉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94
〈표 III-25〉 현재 거주 주택 점유 형태	96
〈표 III-26〉 매달 지출하는 주거 비용의 부담 정도	97
〈표 III-27〉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99
〈표 III-28〉 생애주기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1순위)	99
〈표 III-29〉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1순위)	100
〈표 III-30〉 거주지 불만사항(1순위)	103
〈표 III-31〉 생애주기별 거주지 불만 사항(1순위)	104
〈표 III-32〉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택 관련 지원(1순위)	105
〈표 III-33〉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	106
〈표 III-34〉 공유주택 거주 의향	107
〈표 III-35〉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중복응답)	111
〈표 III-36〉 안전을 위해 하는 노력(중복응답)	113
〈표 III-37〉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안전 정책 인식 정도	115
〈표 III-38〉 음주 정도	118

표 차례

〈표 III-39〉 흡연 여부	119
〈표 III-40〉 하루 15분 이상의 운동 여부 및 빈도	120
〈표 III-41〉 아플 때 알려거나 의논하는 사람	121
〈표 III-42〉 건강검진 여부 (최근 2년 내)	122
〈표 III-43〉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 내)	123
〈표 III-44〉 식생활 형태	124
〈표 III-4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	126
〈표 III-46〉 자살을 생각한 이유 (1순위+2순위)	128
〈표 III-47〉 평소 태도와 감정에 대한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129
〈표 III-48〉 1인가구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클수록 필요성이 큼)	132
〈표 III-49〉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134
〈표 III-50〉 세대별 정책 요구도에 기반한 정책 과제	152
〈표 IV-1〉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159
〈표 IV-2〉 인천광역시 1인가구 자원 기본계획 소요예산 추정치	212

그림 차례

[그림 Ⅲ-1] 1인 가구 비율(2015-2022)	43
[그림 Ⅲ-2] 인천광역시 가구원수별 비율(2018-2022)	44
[그림 Ⅲ-3] 전국 1인 가구 피라미드(2022)	47
[그림 Ⅲ-4] 인천광역시 1인 가구 피라미드(2022)	48
[그림 Ⅲ-5]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피라미드(2022)	48
[그림 Ⅲ-6] 경기도 1인 가구 피라미드(2022)	49
[그림 Ⅲ-7]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2022)	49
[그림 Ⅲ-8]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분포(2022)	51
[그림 Ⅲ-9]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변화(2018-2022)	54
[그림 Ⅲ-10]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수 (2022)	55
[그림 Ⅲ-11]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연평균 증감률(2018-2022)	57
[그림 Ⅲ-12]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성비(2022)	58
[그림 Ⅲ-13]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비율(2022)	59
[그림 Ⅲ-14] 인천광역시 군·구별 생애주기 및 성별 구성비(2022)	60
[그림 Ⅲ-15]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군·구별 생애주기 및 성별 구성비(2022)	63
[그림 Ⅲ-16] 혼자 산 기간	63
[그림 Ⅲ-17]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65
[그림 Ⅲ-18] 혼인 상태	66
[그림 Ⅲ-19] 혼자 생활하기 전 같이 산 사람	67
[그림 Ⅲ-20]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67
[그림 Ⅲ-21]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점(1순위)	69
[그림 Ⅲ-22]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70
[그림 Ⅲ-23]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2+3 순위)	72
[그림 Ⅲ-24]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받은 경험(중복응답)	74
[그림 Ⅲ-25]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불이익	75
[그림 Ⅲ-26]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76
[그림 Ⅲ-27]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78
[그림 Ⅲ-28]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기를 희망하는 사람	79

그림 차례

[그림 Ⅲ-29]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	80
[그림 Ⅲ-30]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필요한 노력	82
[그림 Ⅲ-31]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	83
[그림 Ⅲ-32] 경제활동 여부(2021)	84
[그림 Ⅲ-33] 경제생활 만족도(2021)	85
[그림 Ⅲ-34] 근로 형태	86
[그림 Ⅲ-35] 일을 하지 않는 이유	87
[그림 Ⅲ-36] 일자리 충분도(2021)	88
[그림 Ⅲ-37] 생활비 평균 금액	89
[그림 Ⅲ-38]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2021)	90
[그림 Ⅲ-39] 빚을 지게 된 이유	92
[그림 Ⅲ-40] 노후 준비 여부	93
[그림 Ⅲ-41]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95
[그림 Ⅲ-42] 현재 거주 주택 점유 형태	96
[그림 Ⅲ-43] 매달 지출하는 주거 비용의 부담 정도	98
[그림 Ⅲ-44]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1순위)	101
[그림 Ⅲ-45]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101
[그림 Ⅲ-46]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 여성(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102
[그림 Ⅲ-47]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 남성(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102
[그림 Ⅲ-48]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택 관련 자원(1순위)	105
[그림 Ⅲ-49]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	107
[그림 Ⅲ-50] 공유주택 거주 의향	108
[그림 Ⅲ-5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2021)	109
[그림 Ⅲ-52] 안전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110
[그림 Ⅲ-53]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중복응답)	112
[그림 Ⅲ-54] 안전을 위해 하는 노력(중복응답)	114
[그림 Ⅲ-55]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안전 정책 인식 정도	116
[그림 Ⅲ-56] 신체적 건강 상태 정도	117

그림 차례

[그림 Ⅲ-57] 음주 정도	118
[그림 Ⅲ-58] 흡연 여부	119
[그림 Ⅲ-59] 하루 15분 이상의 운동 여부 및 빈도	120
[그림 Ⅲ-60] 아플 때 알리거나 의논하는 사람	121
[그림 Ⅲ-61] 건강검진 여부 (최근 2년 내)	122
[그림 Ⅲ-62]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 내)	123
[그림 Ⅲ-63] 식생활 형태	124
[그림 Ⅲ-64]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여성 (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125
[그림 Ⅲ-65]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남성 (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126
[그림 Ⅲ-66]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	127
[그림 Ⅲ-67] 자살을 생각한 이유 (1순위+2순위)	128
[그림 Ⅲ-68] 현재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소속감 (2021)	130
[그림 Ⅲ-69] 자원봉사 활동 여부 (2021)	131
[그림 Ⅳ-1]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158
[그림 Ⅳ-2]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208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전국적으로 1인가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에 해당한다. 인천의 경우 2022년 1인가구는 37만 6천 4백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1.0%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1인가구는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 평균 수준의 1인가구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인가구가 70.2%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내 주요 도시 중 1인가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정혜은, 2022).

1인가구는 일반적으로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되고 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2호의2). 일반적으로 혼자서 거주하며 생계를 1인이 책임지는 가구 형태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분리하고 있는 주말부와 기숙사 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인가구로 보지 않는다. 행정적 분류에서는 단독 세대주 가구가 1인가구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1인가구도 있고 단독 가구주로 등록되어 있지만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분류 상 1인가구와 현실의 1인가구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1인가구는 생활형태상 분류이기에 행정분류와 일치하지 않는 1인가구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구 구성의 유동성 증가로 1인가구는 모든 세대에서 증가하고 있다. 1인가구는 개인들의 생애과정 속에서 항시적으로 선택가능한 가구형태이기에 1인가구로 생활하다가 다인가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다인가구에서 다시 1인가구로 분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1인가구는 모든

시민들의 생애주기에서 한 번쯤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자 탄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생활형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증가는 개인화의 진전에 따른 친밀성의 양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 또한 산업사회 경제발전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금융 및 재테크를 활용한 경제적 독립성의 증대, 건강보험 및 연금제도를 활용한 개인들의 노후보장 제도 정착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평균수명의 증가, 비혼 및 만혼의 경향, 이혼율 증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표준적인 가족생활의 모델이 퇴조하고 개인화가 진전되는 사회변화와 맞물려 1인가구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

1인가구는 거주와 생활의 형태에 따른 분류이기에 하나의 동일한 특성을 갖는 정체성 집단이 아닌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특성과 정책 요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장진희 외, 2017 : 4; 노경혜 외, 2022). 1인가구는 성별과 생애주기, 1인가구 형성의 요인, 혼인상태 및 혼인의사, 거주지역과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연령과 성별은 가장 주요하게 1인가구의 정책 욕구를 차별화하는 요인이므로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대응하여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1인가구와 관련된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특히 고독사 방지를 위한 대응, 경제적 불안정성 및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자살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향이 강했다. 최근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동체 주택을 비롯한 주거정책의 다양화 사업을 포함한 가족다양성 지원 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1인가구 정책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이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성찰과 함께 주거 및 지역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를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는 추세이다.

1인가구는 누구나 생애주기 속에서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지속되는 가구 형태이자 다양한 가족형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비혼과 만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전

현상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1인가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정책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가구를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이를 포괄하는 가족다양성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비혼 경향의 증가와 저출산 추세로 인해 1인가구의 증가를 사회문제화하는 시각도 일각에 존재한다. 하지만 1인가구 증가는 시대적 추세이기에 1인가구를 줄이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인가구인 정상가족, 핵가족 중심으로 경제생활과 주거단위를 파악해왔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정책패러다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가구를 정책의 주된 단위로 다시 사고함으로써 개인 기반의 민주적인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2022년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로 인한 전통적 가족구성 형식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사회적 가족도시”란 나눔 활동과 공유 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기능이 강화된 사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1인가구를 사회적 약자이자 복지 정책 수혜자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이자 지역 공동체 강화의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1인가구를 호명하면서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다. 조례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여 5년간의 인천광역시 1인가구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1인가구 정책 및 타 시도 1인가구 정책을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통계자료와 선행연구 검토

를 통해 인천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며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가 주요 가구형태로 자리잡은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를 검토하고 가족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22년도에 실시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1인가구의 정책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1인가구 43명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고 인천시민의 정책요구에 부합하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타시도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광역시 1인가구의 특성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와 인천 사회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인구현황 및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셋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요구를 분석하였다.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심층면접조사를 43사례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1대1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넷째,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구성을 위한 안을 제안하였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특성에 맞는 1인가구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고 정책추진체계, 경제생활, 주거, 돌봄, 안전, 사회적관계망 등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나.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규모

인천광역시는 2022년 2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영역은 엠브레인리퍼블릭에서 담당하였고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였다. 2022년 5월 31일자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1인가구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3,5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1인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세대로 등록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고 설문조사 문항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주말부부인 경우, 그리고 거주형태가 기숙사로 응답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360가구에 대해 대면조사를 수행하였고 1,140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패널조사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 1-1〉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3500	100.0
거주지역	강화군	109	3.1
	옹진군	52	1.5
	중구	251	7.2
	동구	79	2.3
	미추홀구	596	17.0
	연수구	348	9.9
	남동구	610	17.4
	부평	554	15.8
	계양구	320	9.1
	서구	581	16.6
성별	남성	1869	53.4
	여성	1631	46.6

		사례수	%
전체		3500	100.0
연령층	청년	1118	31.9
	중장년	1527	43.6
	노년	855	24.4
연령	19-20대	422	12.1
	30대	696	19.9
	40대	549	15.7
	50대	643	18.4
	60대	755	21.6
	70대 이상	435	12.4
혼인 상태	미혼	1605	45.9
	이혼	861	24.6
	사별	902	25.8
	별거	103	2.9
	기혼	29	0.8
학력	고졸 이하	1791	51.2
	대졸/대재	1611	46.0
	대학원 이상	98	2.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81	30.9
	200-300만원 미만	1316	37.6
	300-500만원 미만	998	28.5
	500만원 이상	105	3.0
장애인 여부	장애인	95	2.7
	비장애인	3405	97.3

다.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조사 개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43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43명 중 38명은 직접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고 5명은 zoom을 이용한 화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성 24명, 남성 19명이었다. 20대는 8명(여5, 남3), 30대는 7명(여2, 남5), 40대는 10명(여6, 남 4), 50대는 5명(여3, 남2), 60대는 7명(여5, 남2), 70대는 5명(여2, 남3), 80대는 1명(여1)이었다.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선정은 스노우볼 기법을 활용하여 인천 거주자이면서 1인가구로 생활 하시는 분을 먼저 소개 받고 인터뷰 참여자에게 다시 알고 있는 1인가구 지인을 소개받는 형태로 조사참여자를 늘려갔다.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령과 성별을 지정하여 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시 관계자 추천을 통해 조사참여자를 소개받아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2〉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사례수	%
전체		43	100.0
성별	남성	19	44.2
	여성	24	55.8
연령층	청년	15	34.9
	중장년	17	39.5
	노년	11	25.6
연령	20대	8	18.6
	30대	7	16.3
	40대	10	23.3
	50대	5	11.6
	60대	7	16.3
	70대 이상	8	18.6

심층면접 조사에서는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정보로 성별과 거주지, 최종학력과 혼인상태, 자녀유무와 혼자 생활한 기간, 인천 거주기간, 직업, 경제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질문으로는 1인가구 형성과정, 혼인의향,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단점,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 식사, 생활비 사용실태, 여가시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경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 건강상태, 우울경험, 돌봄관계, 노후대비상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책요구도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주거지원 정책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1. 중앙정부 및 타시도 1인가구 지원 정책 현황
2. 인천광역시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검토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분석

1. 중앙정부 및 타시도 1인가구 지원 정책 현황

가. 중앙정부 1인가구 지원 사업

중앙정부는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20년 ‘1인가구 정책 T/F’를 구성·운영하여 가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중앙의 1인가구 대응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표 II-1>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소득 및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인가구 실태 파악 강화를 위해 관련 통계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 계획은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취약 1인가구를 보호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며 1인가구를 장려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러한 목적은 연령, 성별, 소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1인가구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표 II-1〉 중앙정부 차원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소득·돌봄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
		취약가구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구조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 (모델 개발)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확대

구분	주요 내용
주거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법) 주택법에 공유주택 정의 신설 (제도)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 민간 확산 (사업지원) 공유주택 모태펀드신설
주거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및 가구수요맞춤 공급 · 세부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기타 과제 · 청년·부모 별도 거주시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토 · 업무시설 1인용주거 개량 및 공공매각시 추가주차장 설치면제 · 다중주택 허용규모 확대
안전	여성 등 취약가구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확충 ·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시스템 구축·고도화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밀착 관리 · 여성범죄 관련 통계개선 · 취약 1인가구 안전시책 마련 지자체 인센티브 검토
	위기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시스템 강화 · 신속 민감대응시스템(서울경찰청) 전국 확대 시행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망 구축 · 여성안전제 실태점검 강화 및 취약지역 발굴
사회적 관계망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방안 지원 · 1인가구 대상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로 다양화 · 가족센터 건립 지원 단계적 확대('19년 5 → '20년 64개소)
	고독사 예방 노력 강화 · 고독사 예방법 하위법령 완비
소비	(간편식품산업) 시장활성화 기반마련 및 고품질화 · 밀키트 식품유형 신설 등 관련 기본제도 정비 · 간편·가공식품 개발 확대 · 생산자단체와 기업간 계약제배 활성화 등
	(외식업) 1인가구 외식인프라 구축지원 및 홍보 · 1인가구 메뉴개발, 좌석배치 등 컨설팅 지원 · 푸드페스타를 통한 홍보이벤트 추진
	(생활소비재·스마트홈) 1인가구 관련 상품개발 지원 · 디자인 우수제품에 1인가구 분야신설 및 1인가구 특화 디자인 커리큘럼 개발 추진 · 스마트홈서비스, 무인배송 등 서비스 지속개발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진출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온라인채널 입점 등 판로지원 · 소상공인 판매지원 인프라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신설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체계 확충 · 동행세일 기간중 온라인 할인쿠폰 발급 등 추진
1인가구 실태파악 강화	(로봇) 청년·고령층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공급 확대 · 독거 고령자 등을 위한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추진 · 수술 재활로봇 특화센터 지정 및 실증 지원 · 스마트홈·반려 로봇의 임대·공유서비스 지원 1인가구 현황 심층분석 및 결과 공표 1인가구 사회보장 서비스 수급현황 분석 통계조사 1인가구 관련 조사강화 · 인구주택총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 가족실태조사 1인가구 관련 항목 추가조사·발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또 다른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의「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과제 중 돌봄 관련 과제에 포함되어있다. 이 계획에서는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일상돌봄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1인가구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을 지원하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기반으로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 1인가구 등의 안전을 위해 대상범죄 예방체계 확충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II-2〉「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중 1인가구 지원 사업

구분	추진과제	세부과제
3-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3-1-2. 지역 공동체 기반 일상돌봄 지원	1인가구의 일상적 돌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활성화
		여성1인가구 등의 안전한 생활여건 마련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홍승아 외(2017)의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증가현상을 가족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가족 관련 가치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경제적인 안정과 독립을 위한 소득보장, 안정적인

주거 및 주거환경, 가족돌봄, 가족제도에 대한 부담 및 회피 문제, 자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추구하고 독립적 관계맺기 등이 주요 이슈로 발굴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민권 보장,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1인가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장미혜 외(2022)의 연구에서는 안전취약계층으로서 여성 1인가구의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 증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에 따라 여성 1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경찰청의 112 신고 통계자료와 서울과 부산의 공개데이터포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공간분석 및 범죄취약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II-3〉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Ⅰ) 요약

대응 방안	세부내용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의 법적 기반 강화	기존 법률 정비 및 1인가구 안전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화
부처별 안전업무의 조정과 통합	여성 1인가구 안전정책 총괄 및 전담 조직 구성
	유관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범부처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별·대상별 맞춤 안전정책의 실시	새로 짓는 단계에서 안전한 건축물 설계
	원룸 밀집 지역 범죄 취약 요인 발굴 및 개선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쉼테드 접근 방법 적용
협력을 통한 안전정책 효과성 제고	세대별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불안 감소 예방정책 추진
	지자체의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예산 지원 명문화
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 중 범죄예방 분야 경찰 참여
	여성,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통계 세분화

나. 1인가구 관련 조례 현황

2023년 기준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인가구 관련 조례명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회적 가족도시’, ‘사회적 고립’ 등과 같은 키워드로 제정되었으며 조례명에 따라 정책 추진의 목적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1인가구’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1인가구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주거지원 사업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 등 1인가구의 복지향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밖에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과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명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를 명시하여 1인가구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에 방점을 두고 있는 조례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나 의료지원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지원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4〉 광역자치단체 1인가구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또는 최근 개정일	소관부서
인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2.24.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2.30.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2021.12.30	1인가구담당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2021.9.30	지역돌봄복지과

구분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또는 최근 개정일	소관부서
부산	부산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5.17	복지교육국 복지사업과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023.7.5.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	대구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2.12	보건국 희망복지과
광주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2019.10.15.	통합복지국 양성평등과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3.2.23.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대전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8.9.	복지국 여성가족청소년 과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10.1.	복지국 복지정책과
울산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3.7.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4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경기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2023.8.7.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0.10.08.	복지국 복지사업과
충북	충청북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22.10.14.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충남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7.20.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전북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11.11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전남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0.5.21.	여성가족정책관
경북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1.2.	여성아동정책관
	경상북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1.4.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경남	경상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19.12.26	여성가족국 가족지원과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2.5.6.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구분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또는 최근 개정일	소관부서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6.9.	복지국 복지정책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2023.6.9.	복지국 복지정책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0.4.13.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8.9.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다. 타시도 1인가구 지원 정책 검토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1인가구는 모두 취약한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별, 혼인상태, 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요구한다.

서울시는 2016년 여성의 생애주기에 집중하여 2030세대, 4050세대, 6080세대로 계층을 구분하여「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년 여성의 경우 고용불안정 및 주거, 안전문제가 시급하다. 주거 및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1인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확대,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고용불안정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근로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 사업대상자 확대를 지원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중장년 여성 1인가구는 이혼비율이 높은 것이 세대적 특징이며 경제적 취약성이 높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약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장년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제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임시 간병인 서비스, 1인가구 주택 수요조사, 후견인제도 마련 등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수요에 맞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고령 1인가구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남성의 2배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내 성차가 크다. 그러나 기존 여성 1인가구 정책은 중증질환 및 저소득 빈곤계층 돌봄 위주 서비스라는 한계와

의존적 여성노인상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 결과, 고령여성들은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혼자 사는 고령여성에 대한 편견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자리·교육·지역참여 프로그램 강화 정책,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고령여성 서로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제안하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수용과 문화적 관행, 위험에 처한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정책 목표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사회적 인정과 존중’으로 설정하여 1인가구에 대한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1-5〉 서울시 1인가구 기본계획 주요 정책영역

정책영역	구분	세부 사업명
일자리	확대·강화	일자리 종합계획 확대를 통한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신규	우리 동네 이웃지킴이 신설
	신규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확대·강화	1인가구 노후대비 재무금융 컨설팅
주거	확대·강화	거주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신규	1인가구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 제공
	신규	1인가구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물품 보관 서비스
	확대·강화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한 적정주거기준 마련
안전	확대·강화	서울시 여성안전정책 통합서비스 앱개발
	신규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순찰대 운영
	신규	장애인 1인가구 위기상황 시 대피 지원
사회적 관계망	신규	고립 1인가구 발굴 및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 지원
	신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확대·강화	마을 공동부역 활성화 지원
	신규	다양한 1인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신규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확대·강화	이주 1인가구와 선주민 문화교류 지원

정책영역	구분	세부 사업명
건강	확대·강화	의료·보건기관 동행지원서비스
	확대·강화	야간·휴일 클리닉 지정 운영 확대
	신규	1인가구 건강 동아리 지원
	신규	1인가구 생활상식 ABC 마련 및 배포
법·제도 및 인식개선	신규	1인가구 공동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신규	가족 다양성 이해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신규	가족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신규	가족통합지원센터 내 1인가구 지원부서 설치
	신규	서울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개정

자료 : 장진화·김영정·김혜영·장명선(2017). 「서울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 재구성.

경기도는 2020년부터 1인가구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를 수행하여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경기도는 다양한 1인가구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편적 관점에서 다양한 가족대상의 여러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성별로 인한 경험 차이로 인한 1인가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정책 추진 확대’, ‘특성별 개인화된 욕구에 대한 고려’, ‘성평등 관점의 통합’,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 반영’을 1인가구 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는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의 영역을 크게 (1) 정책추진체계, (2) 사회관계망, (3) 건강과 돌봄, (4) 생활안정, (5) 주거, (6) 안전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웰다잉 준비교육,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등의 웰다잉 지원 프로그램과 1인가구 재무경제 교육 및 청년 1인가구 재무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더불어 생활자립 프로그램인 ‘혼라이프’ 일상 지원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취약계층 1인가구 중심이 아닌 보편적인 가구형태로서 1인가구 지원정책의 다양한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II-6〉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중점추진과제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정책추진체계	추진기반 조성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운영
	소통행정 추진	정보제공 포털 구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시·군 1인가구 사업 지원 강화
사회관계망	공동체 만들기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고립 방지	웰다잉 지원
건강과 돌봄	신체건강 지원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일상돌봄 지원 확대
	생활역량 강화	혼라이프 일상 지원
생활안정	안정적 경제생활지원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지원
주거	주거서비스	수리서비스 플랫폼 운영
안전	지역사회 안전	1인가구 밀집지역 안심 이음 사업
	사적공간 안전	1인가구 안심 홈 지킴이 세트 사업

자료 : 노경혜 외(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p.263

부산시는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를 통해 1인가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제, 주거, 생활 등의 분야별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생활실태조사 결과, 모든 세대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정책, 생활지원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1인가구 지원정책을 경제, 주거, 생활 3개의 분야로 나눠서 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위한 핵심정책 구상안을 도출하였다. 청년층은 일자리와 식사 분야,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사회적 고립과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각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법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1인가구 지원기금 조성, ‘청장년 1인가구지원과’ 신설 등 추진조직 정비 및 확대,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7〉 부산광역시 1인가구 핵심 정책과제

대상	분야	세부과제
청년	경제	동사무소 청년 1인가구 등록 인센티브제 운영
		청년 1인가구 긴급생활안정자금 우선 지원
		맞춤형 일자리 정보 지속연계 사업
	주거	청년 1인가구 주거선택 바우처제 도입
		청년 1인가구 주거지원 강화
		청년 1인가구 주택임차 지원강화
		창업에 따른 임대사업 관련제도, 규정정비 및 완화
	생활	은둔형 청년 1인가구(히키코모리) 조사발굴 및 자발적 상담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은둔형 청년 1인가구(히키코모리) 지원센터 설립
		청년 1인가구 맞춤형 우울증 자가진단
중장년	경제	중장년 고위험군 파악을 위한 “중장년 1인가구 현황조사”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재생 지원사업
		1인가구 근로자 직장프로그램 운영지원
	주거	중장년 취약 1인가구 주거-고용 연계 지원사업
		중장년 취약 1인가구 사례관리 프로그램 마련
		중장년 1인가구 전문 상담 창구 개설 “중년심리상담센터 운영”
		중장년 1인가구 관계재생 프로젝트 “팍 브릿지” 운영
		50+ 돌봄 매니저 배치 “50이 50에게”
		중장년 1인가구 자기돌봄 프로그램
	생활	민간복지시설 4050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노년	경제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주거	노인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
		공공실버주택 설치 운영(국토부)
	생활	1인가구 노인자살예방 프로그램 강화
		세대융합 1인가구 거점공간 만들기
		1인가구 노인복지카드 도입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프로그램
		노인 1인가구 치매조기발견 및 지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우선 입원 지원

자료 : 문정희·이재정·김형균 외(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에서 재구성.

세종시는 2022년「세종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젊은 1인가구 비중이 가장 큰 도시로, 2022년에는 30~34세 인구가 2014년 대비 512.7%가 증가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청년대상 주택·주거지원 사업과 청년 적금, 청년 공동체 활성화 등 청년 대상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본계획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더불어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역 경로당,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충청남도는 2021년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1인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충남은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젠더 정책으로써 1인가구 지원 정책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정책 수요조사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일상적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지표 발굴 및 활용, 치안거버넌스 구성 등 안전환경 인프라 확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남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조모임 확대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남성 1인가구 거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업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 상담, 친목모임 등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가구 대표자 협의회 및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현안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II-8〉 타 시도 1인가구 정책 연구

구분	연구명	주요 내용
서울	장진희·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2030 여성1인가구 불안정 주거와 안전문제 중심 - 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사업 개선 및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공급, 1인가구 임대주택 대상자 확대 등 - 서울시 강소기업 발굴 및 맞춤형 민간일자리 연계 사업, 소규모 사업장 근로실태조사 등
	박건·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4050 여성 1인가구 노후준비와 사회관계 중심 -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네트워크 약화 - 직업 교육 및 구직활동 지원 임시 간병인 서비스, 후견인 제도 마련 등

구분	연구명	주요 내용
	김영정·김연재(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6080 여성 1인가구 시간활용 중심 - 일자리·교육·지역참여 프로그램 강화 - 거주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고령여성 서로돌봄공동체 활성화 등
	장진희·김영정·김혜영·장명선(2017). 서울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가족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1인가구를 위한 지지체계 구축 -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보장 - 개방적인 유대와 다양한 지지체계 구축 - 사회적 인정과 존중
부산	문정화·이재정·김형균 외(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은 계층을 위한 핵심정책 구상안 도출 - 청년층 : 일자리와 식사 분야, 중장년·노년층 : 사회적 고립과 건강문제 - 1인가구 지원기금 조성, '청장년 1인가구지원과' 신설 등 법제도 정비
경기	노경혜·노혜진·정혜원. (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2-2027) 수립연구	다양한 1인가구 특성과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편적 관점에서 가족 대상 사업과 연계 - 웰다잉 준비교육,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등 웰다잉 지원 프로그램 - 1인가구 재무경제 교육 및 청년 1인가구 재무상담 등 - 생활자립 프로그램 '혼라이프 일상 지원 사업'
세종	최성은·김기화·주혜진·안용준·이재 민·권준이·정은호(2022). 세종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인가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청년 1인가구 중심 - 청년대상 주택주거 지원 사업, 청년 저금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 '지원이 필요한' 1인가구 발굴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지역 경로당·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협업
충남	임우연(2021).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성별 차이를 반영한 젠더 정책으로서 1인가구 지원정책 - 여성 :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 일상적 불안감 해소 위한 안전지표 발굴 및 활용, 치안거버넌스 구성 - 남성 : 고립감 해소 위한 중장년 남성 1인가구 대상 상담, 친목모임 지원 등 정책사업 - 1인가구 대표자 협의회 및 정책네트워크 구성

2. 인천광역시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현황 검토

가. 인천시 1인가구 관련 조례 현황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의 근거로 두고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에서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거복지, 공유주택과 공유부엌 등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해야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이 명시되어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고독사위험 대상자를 적극 보호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고독사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이나 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고독사위험 대상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및 돌봄지원에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 단위에서는 부평구와 서구에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의 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II-9〉 인천광역시 1인가구 관련 조례

구분	조례명 (주요내용)	제정일 (최근 개정일)	소관부서
인천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자원 조례	2022.2.24.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2.30.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12.31.	복지정책과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0.5.22.	복지정책과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14.	미추홀구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4.10.	복지정책과
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2.11.14.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19.4.22.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7.7.	노인장애인 복지과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2023.3.17.	복지국 가정보육과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2023.8.28.	노인장애인과

나.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 선행연구 검토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는 2017년을 시작으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김윤영(2017)은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서 면접조사를 통해 1인가구 정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1인가구 정책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조사 결과, 1인가구의 주거 지원 및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 확대, 치안 및 방범강화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다. 인천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한 초기 단계임을 인정하고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정책을 활용·보완하여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1인가구 정책이 청년과 노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I-10〉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2017) 정책 제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거지원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1인가구를 위한 공동체주택 공급
	1인가구의 주거 임대비용 지원
경제적 지원	양질의 일자리 공급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 정책 마련
돌봄 및 안전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의 대상층 확대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환경 구축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활성화
법제추진	4인가구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법제도의 개선
	1인가구 지원 조례의 제정 추진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 김윤영·김아진(2017)의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1인가구의 주택수요 욕구를 반영한 주택공급 확대와 정책 대상층 확대, 근로지원정책과 건강 및 안전지원정책 마련, 1인가구를 위한 지원 관련 조례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와 기반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표 II-11〉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2017) 정책 제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주거지원	1인가구의 주택수요 욕구를 반영한 주택공급 확대
	- 소형규모의 주택 공급 외에도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다양한 지역에 확대공급
	- 공동체주택 도입 방안
경제적 지원	1인가구를 위한 근로환경개선 및 근로지원정책 마련
	-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근로지원정책 마련
건강 및 안전 지원	1인가구를 위한 건강 및 안전지원정책 마련
	-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취약한 건강상태의 1인가구를 위한 건강관련 서비스 확대
	- 치안 및 안전 불안감 해소를 위한 1인가구 밀집지역 중심 안전망 강화
법제추진	1인가구를 위한 지원관련 조례안 마련
	- 증가하는 인천시 1인가구를 위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비를 위한 조례 마련

양수진 외(2018)의 연구는 면접조사를 통한 정량적 분석으로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1인가구 대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의 재·개정이 논의되었으며 관련 행정부서 지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정책이 1인가구를 배제하고 있거나 다인가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가구별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1인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1인가구의 성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2030세대 1인가구는 주거에, 4050세대는 네트워크 강화, 6080세대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표 II-12〉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2018) 정책 제언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제도적 기반 조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개정
		1인가구 지원 업무 추진 행정부서 지정
		‘가구별 영향평가’ 제도 마련
생애주기 및 성인지적 지원방안	경제활동	생활유지 보조금 지급 제도 마련
		청년 1인가구 대상 노후준비 교육 제공
		기존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
	주거	청년 1인가구 주거 실태조사
		청년 1인가구 주거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대안적 주거 모델 : 시민출자 청년주택 기금 사업을 통한 셰어하우스 공급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역 공동체 주거 활성화 방향 모색
		임대주택 입주제도 정비
	건강 증진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상호부조 모임 구축
		포괄적 간호 서비스 구축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교육, 상담 등 제공)
	사회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생활	중·노년층 문화여가활동 활성화

〈표 II-13〉 「인천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2022) 제안 사업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일상생활 지원	반찬 배달을 통한 1인가구 안부 확인
	중장년 대상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
	정리수납전문가 연계 주거환경 청소 지원
	공간정리 지원 조례 참고, 공간정리 지원 방안 마련
경제적 지원	근로빈곤 중장년 대상 생활비 보장 방안 마련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구분	주요 내용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바우처 형식의 식사 카드 지원
	선택가능한 중장년 적합 일자리 개발
	중장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 조건 완화
	미래에 노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 인정
신체 건강 지원	만성질환 관리 방안 교육 및 상담 지원
	간병지원 서비스에 중장년 1인가구 포함
	방문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입원동행 및 병원 연계 서비스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의료비 및 건강 관리비 지원
	장애인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건강관리 체계 마련
	장애 관련 의료기관의 이용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
정신건강 지원	고위험 우울 상태인 중장년 1인가구 대상 개입방안 마련
	인천시 1인가구 자살예방 시범사업에 중장년 확대 지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중장년 확대 지원
	이혼 및 사별을 경험한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심리 정서 지원 서비스 개발
노후준비 지원	중장년 대상 노후 준비 및 설계 지원
	중장년 근로형태에 따른 노후 준비 지원
	노후생활비 마련 방안 컨설팅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연계
여가활동 지원	적극적 성격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중장년 욕구에 기반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중장년 대상 여가활동 비용 및 바우처 지원
	여가활동 프로그램 홍보 방안 개발 및 확대
사회활동 지원	중장년 대상 시민옹호인 사업
	중장년 대상 자조모임 개발 및 진행
주거관련 지원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개발
	1인가구 주거 지원에 중장년 포함
	주거환경 개선 지원
	1인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주거환경 관리 교육
	중장년 대상 월세 및 보증금 이자 지원

전지혜 외(2022)의 연구는 청년/노인 1인가구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 장년층 1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중 장년층 1인가구를 예비독거노인 집단으로 보고 기존의 독거노인과 고독사 중심으로 이행되어 온 1인가구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으로 개념 및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부처 간 통합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동행인’이 중요함을 언급하며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인천시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한 가장 최근 연구인 정혜은(2022)의 연구에서는 인천시 1인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지원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지속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또한, 1인가구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여 1인가구 정책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각 군구의 가족센터가 사업 수행 주체가 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서비스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미혼 청년층을 화이트 싱글, 이혼한 중장년층은 블루 싱글, 사별한 노년층을 실버 싱글로 구분하여 각 대상에 맞는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화이트 싱글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블루 싱글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재취업 및 노후 준비 사업, 실버 싱글 비율이 높은 지역에는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I-14〉 인천광역시 1인가구 정책 선행연구

연구명	주요 내용
김윤영.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시 1인가구 현황 파악 및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 설정 - 1인가구 주거 지원 및 건강 복지 서비스 등 확대 -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 1인가구를 위한 지원 조례 마련
김윤영·김아진. (2017).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인천시 1인가구를 위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제언 - 주택수요 조사 제안 및 주택공급 확대 - 1인가구 정책대상층 확대 - 근로환경개선 및 근로정책지원 확대 - 건강 및 안전지원정책 마련 - 1인가구를 위한 지원관련 조례안 마련
양수진·이명성·장명선·김민정. (2018).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시 1인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재·개정 논의 - 1인가구 정책 관련 행정부서 지정 - ‘가구별 영향평가’ 도입 제안 - 1인가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제안
전지혜·김민·남지현·원영미. (2022). 인천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인천시 중·장년층 1인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제도적 지원 방안 - 중장년층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대상으로 확대 - 적극적인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즉각적인 서비스 연계 체계 마련 - ‘동행인’을 위한 자조집단 활성화 지원
정혜은. (2022).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인천시 1인가구 특성 파악 및 정책방향 제시 - 1인가구 전담 조직 마련 - 생애주기별 1인가구 유형 구분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 추진 제안

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사업 현황

인천광역시가 현재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다. 사업의 추진영역을 기준으로 ‘정책추진기반구축’, ‘경제생활지원’, ‘주거 안정 지원’, ‘안전한 환경 조성’,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 ‘사회관계망 강화’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주로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돌봄플러그’, ‘안심폰’, ‘케어콜’ 등의 사업처럼 IoT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1인가구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을 인천시 전역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 1인가구와 중증장애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응급안전안전안심서비스’와 취약계층 노년층 1인가구에게 생활지원사를 배정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노년층의 돌봄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청년층 1인가구를 위한 지원사업은 주로 주거안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부평구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주거약자인 청년층 1인가구에게 직접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표 II-15〉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관련 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 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예산	비고 (전년도 비교증감)
경제	청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지원사업 - 미래성장기업, 지역전략산업, 창업기업, 지역성장 도약기업 일자리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14,127	4,484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지원금	아동정책과	710	162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091	1,435
		·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	청소년정책과	43	23
	노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노인정책과	128,666	462

정책 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예산	비고 (전년도 비교증감)
	장애인	·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복지과	10,902	1,304
		·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	0
		·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40	0
		·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24,480	0
주거	청년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청년월세 지원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정책담당관	6,320	△7,015
		·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	주택정책과	18,113	9057
	장애인	·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설치 및 운영	장애인복지과	286	△49
		·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및 운영		68	△39
	1인가구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택정책과	300	80
안전	여성	·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여성정책과	181	16
		· 여성안심드림(Dream)시범사업 - (1인가구) 가정용 CCTV, 스마트초인종 (1인점포) 안심비상벨 설치		60	60
	노인	· 안심폰 지원사업	노인정책과	1,286	△58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1,069	376
건강 및 돌봄	1인가구	·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복지정책과	310	10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복지서비스과	33	△77
		· 고독사 예방 사업 교육		비예산	비예산
		· 고독사 예방 사업 시민 홍보			
		·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건강증진과	275	255
	청년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복지서비스과	631	-
	중장년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과	77	52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정책과	17,860	2,443

정책 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예산	비고 (전년도 비교증감)
		· 2023년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	자치행정과	400	360
		·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노인정책과	100	20
	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 만6세~65세 미만 최중증장애인 해당자 중 독거세대 및 취약가구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애인복지과	3,050	962
사회 관계	청년	·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620	△70
	1인가구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인구가족과	541	436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및 2023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인천광역시의 1인가구 관련 지원 정책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고독사방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청년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정혜은, 2022 : 18). 주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업이 편성된 정도이다. 인천지역은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중장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특화된 주거 정책 및 일자리 정책, 건강 및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추진되거나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많은 편이다. 위험군과 사례관리 중심의 특화사업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과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1인가구는 불규칙한 생활습관이나 식생활 불균형으로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중장년층의 정신건강 증진 및 중독예방, 자기돌봄역량강화 사업 등을 특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인천형 지원사업으로 30대 후반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지만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체 주거 지원에 관한 정책은 부재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유주택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은 1인가구를 위한 상담과 건강 프로그램, 주거공간 개선 및 소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생애단계별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인천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 공동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소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생애주기와 성별에 따른 다양한 정책 수요와 일자리와 주거, 안전 및 돌봄, 사회관계 영영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포괄하여야 한다. 현재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복지정책과와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청년정책담당관, 주거정책과, 자치행정과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총괄하고 통합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서비스전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인가구가 주요한 가구형태를 자리잡은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 민과 관의 협력 모델을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II-16〉 2023년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가구 지원 관련 정책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2023년 예산
강화군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과	2,017
		· 노인맞춤돌봄서비스(IoT안심폰사업)		89
		· 강화군 단군콜센터 케어콜 서비스		14
		· AI인형 정신건강 돌봄미 '마음미' 사업	강화군보건소	0.3
		· 독거노인 관리사업	건강증진과	17
	1인가구	· 지역사회 고위험군 심리치유지원사업	강화군보건소	0.5
옹진군	청년	· 청년어촌정착지원	수산과	21
	전연령	· 귀농인 지원사업	농정과	22
중구	노인	·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사업	어르신장애인과	112

정책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2023년 예산
	1인가구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307
		· 자살 고위험군 발굴사업	건강증진과	1
		·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1
동구	노인 1인가구/장애인	·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14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210
		· IoT(사물인터넷) 안심폰 사업		88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329
	1인가구	·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치매정신과	92
미추홀구	중장년	·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28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	3,194
		·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사업		197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467
	1인가구	· 1인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복지정책과	5
		·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돌봄플러그)		6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미추-홀 [Whole] 살피미 앱		비예산
연수구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과	1,830
		· IoT 안심폰 지원 사업		107
		·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2
	1인가구	· 1인가구 지원사업 '일가견 : 1인가구의 발견'	교육지원과	-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돌봄플러그)	복지정책과	3
		· AI케어콜 돌봄서비스		17
		· 건강음료 지원사업		66
남동구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과	2,502
		·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 사업		161
		· 돌봄플러그 지원		6
		· 치매스마트케어콜	치매정신건강과	16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554

정책영역	대상	정책 내용	담당부서	2023년 예산
	장애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노인장애인과	150
	중장년	· 인공지능(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33
	1인가구	· 1인가구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정신건강과	14
		· 위기탈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10
부평구	청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일자리창출과	1,135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복지정책과	576
	중장년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운영	복지정책과	31
	노인	· 홀몸어르신 스마트토이봇 지원	복지정책과	20
	1인가구	· 스마트 돌봄플러그 운영	복지정책과	8
		· 따뜻한 동행-이동지원사업		5
계양구	중장년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19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	2,037
		· IoT 지능형 안심폰		114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34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142
	1인가구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돌봄플러그)	복지정책과	2.8
		· 톡톡(talk-talk)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비예산
		· 방역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방역	감염병관리과	비예산
		·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계양구보건소	92(23~26년)
서구	중장년	· AI 케어콜 돌봄서비스	복지정책과	4.1
		· 돌봄플러그 지원사업		3.9
	노인	·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증진과	615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복지과	203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435
		·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164
	1인가구	· 주거사다리	주택관리과	비예산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군구 단위에서는 지역사회 인구구성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는 노인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어서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유인하고 정주를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는 청년층 1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근무자, 미추홀구는 인하대학교 학생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점도 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케어콜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층 지원사업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내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지원 서비스나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추홀구는 동사무소에서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군구 차원에서 체계화된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인천광역시 1인가구 특성 및 실태 분석

1. 인천광역시 1인가구 분포 및 특성
2.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분석
3.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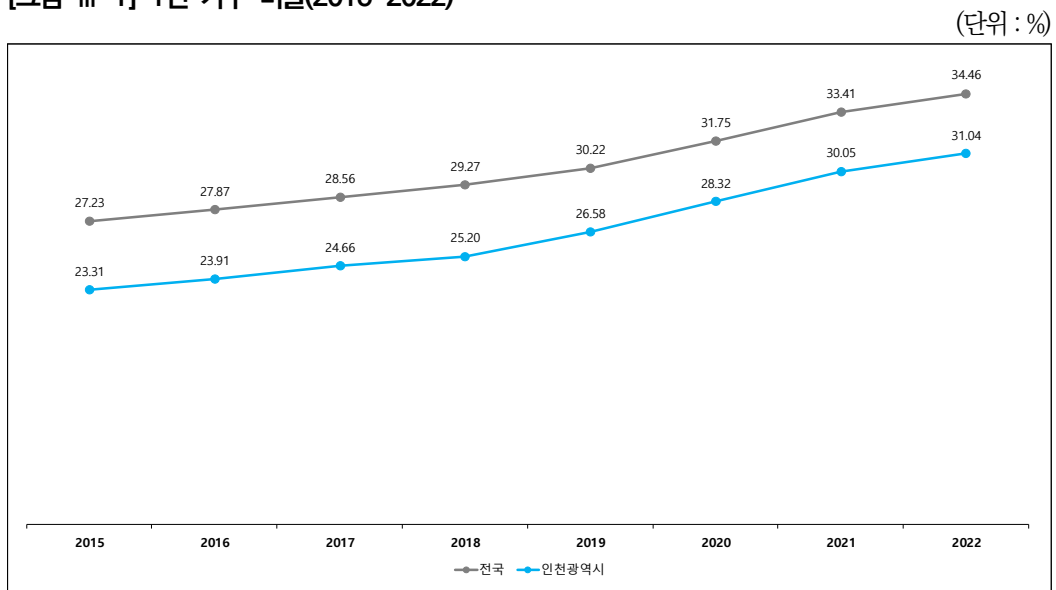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1인가구 특성 및 실태 분석

1. 인천광역시 1인가구 분포 및 특성

가. 인천광역시 1인가구 현황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천광역시 또한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그림 III-1]을 살펴보면, 2015년 전국의 1인 가구 비율은 27.23%였으나 2022년 34.46%까지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3.31%에서 2022년 31.04%로 증가했다.

[그림 III-1] 1인 가구 비율(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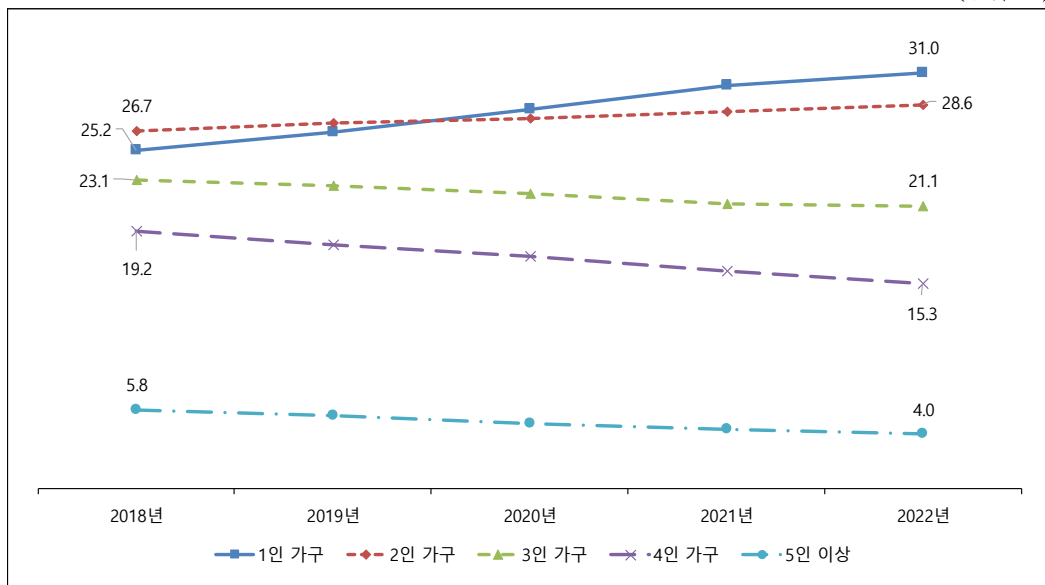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2]에서 인천광역시의 가구원수별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8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2020년부터는 1인 가구의 비중이 2인 가구를 앞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2] 인천광역시 가구원수별 비율(2018~2022)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 III-1>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18~2022)

(단위 : 가구, %)

구분		일반가구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2018년	전국	19,979,188	5,848,594	5,445,691	4,203,792	3,396,320	1,084,791
			(29.3)	(27.3)	(21.0)	(17.0)	(5.4)
	인천	1,094,749	275,898	292,339	252,372	210,146	63,994
			(25.2)	(26.7)	(23.1)	(19.2)	(5.8)
	서울	3,839,766	1,229,421	977,469	807,545	637,385	187,946
			(32.0)	(25.5)	(21.0)	(16.6)	(4.9)
	경기	4,751,497	1,197,586	1,213,259	1,084,338	958,729	297,585
			(25.2)	(25.5)	(22.8)	(20.2)	(6.3)
2019년	전국	20,343,188	6,147,516	5,663,330	4,217,736	3,300,114	1,014,492
			(30.2)	(27.8)	(20.7)	(16.2)	(5.0)

구분		일반가구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이상 가구
	인천	1,120,576	297,865	305,688	253,332	203,577	60,114
			(26.6)	(27.3)	(22.6)	(18.2)	(5.4)
	서울	3,896,389	1,299,787	1,005,065	801,819	614,026	175,692
			(33.4)	(25.8)	(20.6)	(15.8)	(4.5)
	경기	4,907,660	1,290,893	1,284,977	1,106,151	943,962	281,677
			(26.3)	(26.2)	(22.5)	(19.2)	(5.7)
2020년	전국	20,926,710	6,643,354	5,864,525	4,200,629	3,271,315	946,887
			(31.7)	(28.0)	(20.1)	(15.6)	(4.5)
	인천	1,147,200	324,841	316,387	251,928	198,528	55,516
			(28.3)	(27.6)	(22.0)	(17.3)	(4.8)
	서울	3,982,290	1,390,701	1,033,901	792,690	602,791	162,207
			(34.9)	(26.0)	(19.9)	(15.1)	(4.1)
2021년	전국	21,448,463	7,165,788	6,076,549	4,169,956	3,154,286	881,884
			(33.4)	(28.3)	(19.4)	(14.7)	(4.1)
	인천	1,183,610	355,657	332,978	251,670	191,576	51,729
			(30.0)	(28.1)	(21.3)	(16.2)	(4.4)
	서울	4,046,799	1,489,893	1,056,278	779,155	573,191	148,282
			(36.8)	(26.1)	(19.3)	(14.2)	(3.7)
2022년	전국	21,773,507	7,502,350	6,260,692	4,184,540	3,010,697	815,228
			(34.5)	(28.8)	(19.2)	(13.8)	(3.7)
	인천	1,212,731	376,392	347,241	255,433	185,024	48,641
			(31.0)	(28.6)	(21.1)	(15.3)	(4.0)
	서울	4,098,818	1,564,187	1,076,409	776,479	544,807	136,936
			(38.2)	(26.3)	(18.9)	(13.3)	(3.3)
	경기	5,406,963	1,634,147	1,480,862	1,152,760	898,218	240,976
			(30.2)	(27.4)	(21.3)	(16.6)	(4.5)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를 나눠서 살펴보면, 전국의 대략적인 추이와 인천광역시 및 서울특별시, 경기도의 추이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보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 가구와 2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인천과 서울, 경기도는 세부적인 비율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세 지자체 중 서울이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인천의 경우 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최근들어 점차 1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경기는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비율이 인천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III-2〉 인천광역시 생애주기별 1인 가구(2018-2022)

(단위: 가구, %)

		전체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2018	1인 가구	275,898	84,134	127,455	63,031
	생애주기별 비율	100	30.5	46.2	22.8
	여성 1인 가구	132,053	32,402	53,634	45,245
	여성비율	47.9	38.5	42.1	71.8
2019	1인 가구	297,865	94,495	132,919	68,648
	생애주기별 비율	100	31.7	44.6	23.0
	여성 1인 가구	142,728	37,179	55,879	48,718
	여성비율	47.9	39.3	42.0	71.0
2020	1인 가구	324,841	105,803	140,230	76,298
	생애주기별 비율	100	32.6	43.2	23.5
	여성 1인 가구	156,166	42,710	58,618	53,460
	여성비율	48.1	40.4	41.8	70.1
2021	1인 가구	355,657	118,468	150,299	84,850
	생애주기별 비율	100	33.3	42.3	23.9
	여성 1인 가구	169,963	47,739	62,507	58,623
	여성비율	47.8	40.3	41.6	69.1
2022	1인 가구	376,392	124,860	156,182	93,707
	생애주기별 비율	100	33.2	41.5	24.9
	여성 1인 가구	180,615	50,937	64,567	64,237
	여성비율	48.0	40.8	41.3	68.6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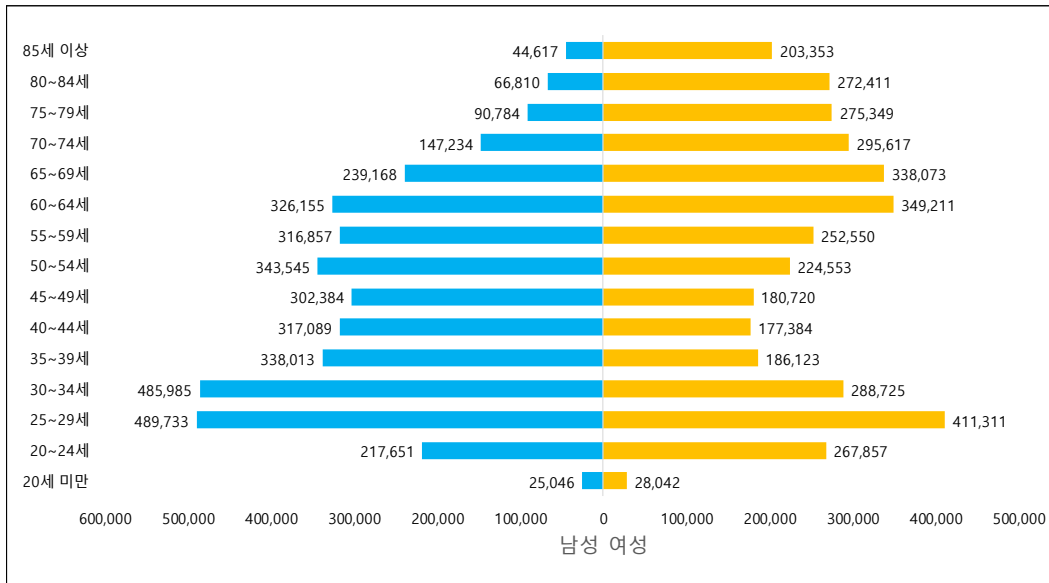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의 생애주기별 1인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장년기의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고, 청년기, 노년기 순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유지된다. 하지만 청년기 1인 가구와 노년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중장년기 1인 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1인 가구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기와 중장년기는 40% 내외로 나타나지만, 노년기에서 여성의 비율이 70% 내외로 나타나 생애주기에 따라 1인 가구의 성별 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 1인 가구 중 여성이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에 반해 중장년 및 노년기 1인 가구 중 여성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III-3]와 [그림 III-4]의 전국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와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 연령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청년 남성 1인 가구와 중장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의 연령별 1인 가구의 분포 비율이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그림 III-3] 전국 1인 가구 피라미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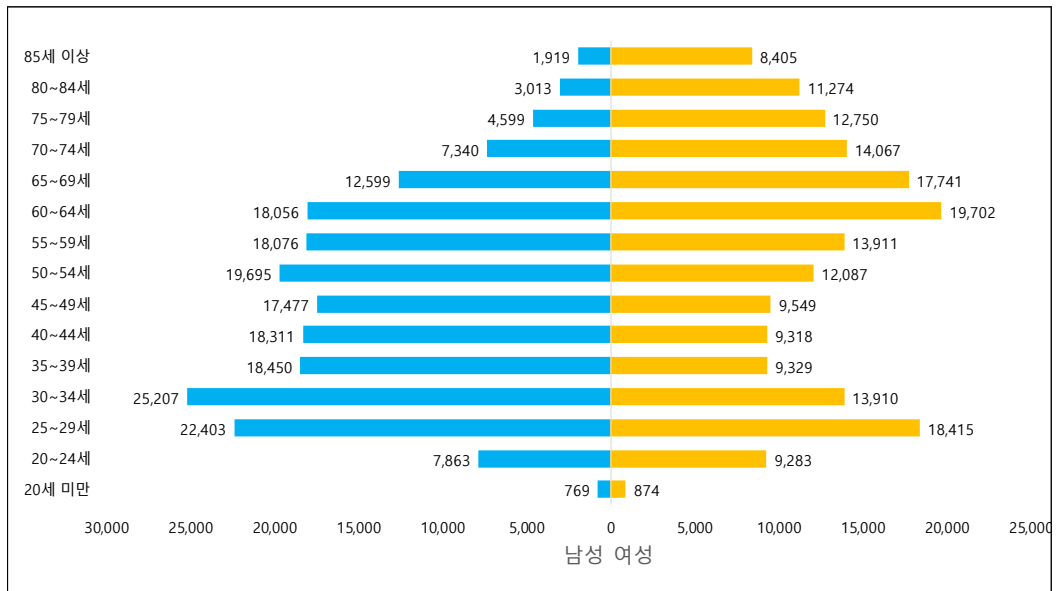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4] 인천광역시 1인 가구 파라미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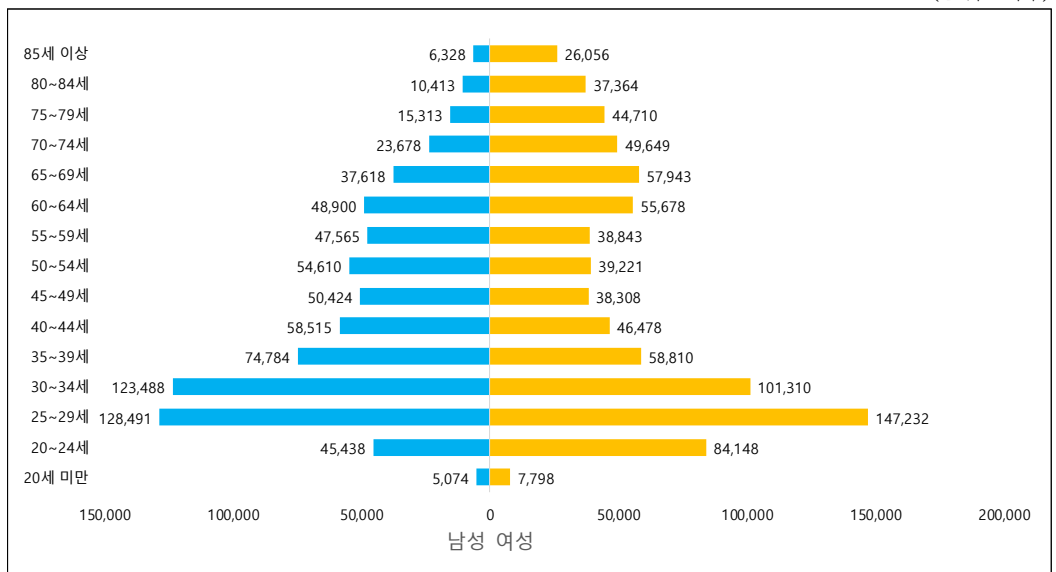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5] 서울특별시 1인 가구 파라미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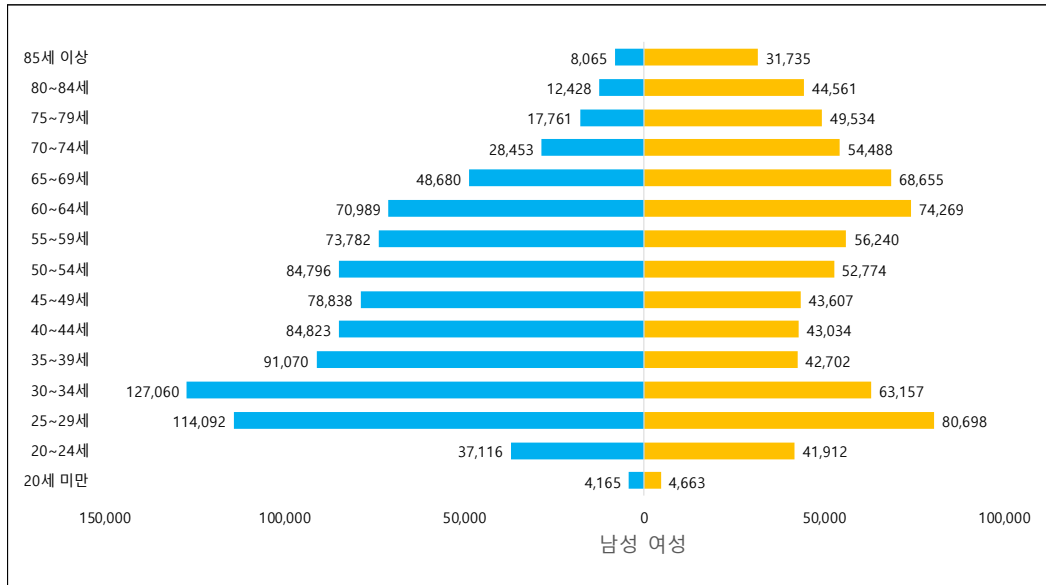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6] 경기도 1인 가구 파라미드(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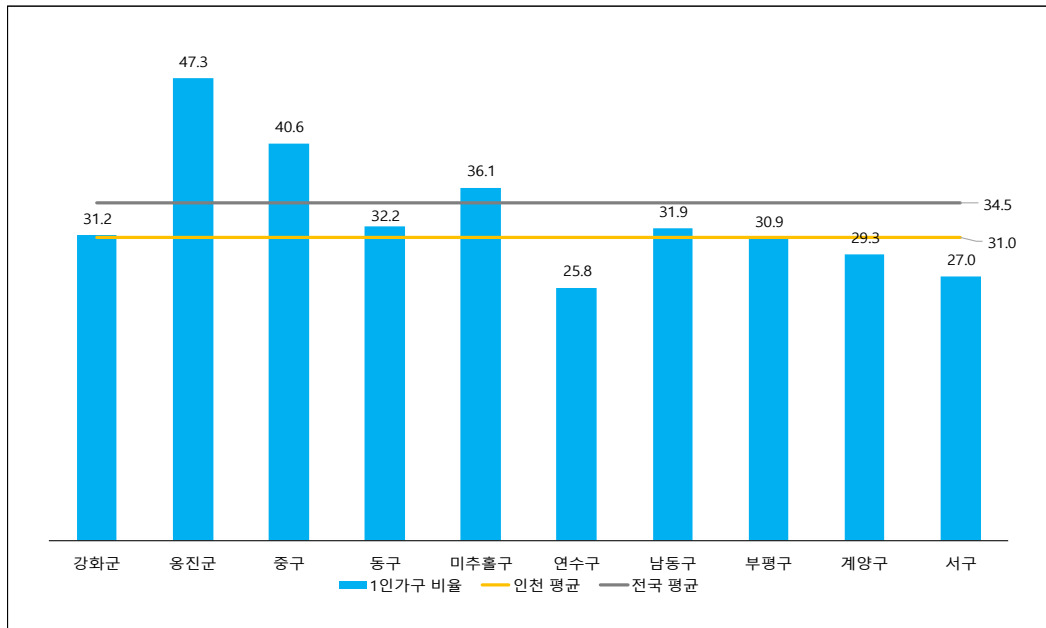
(단위: 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7]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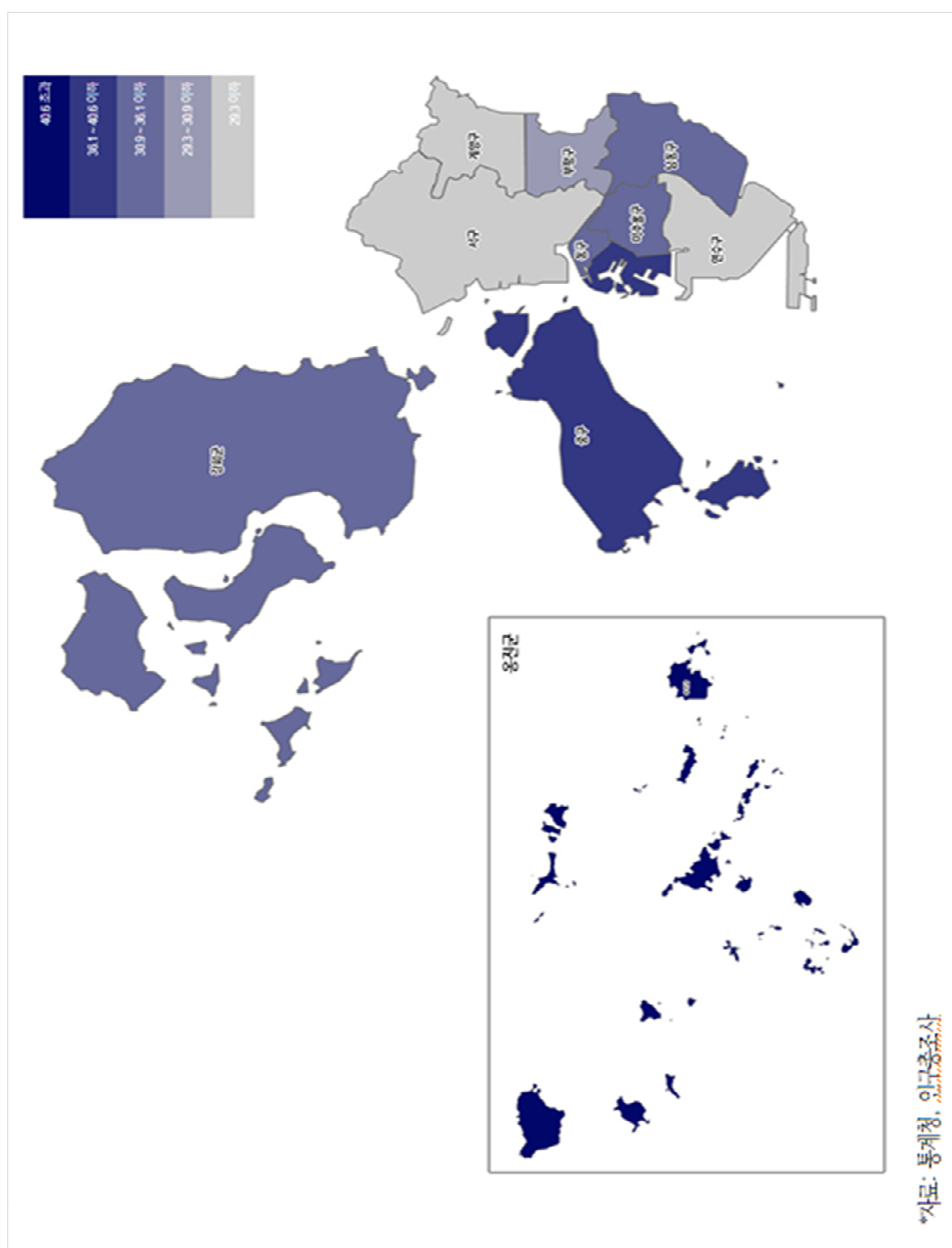
202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 비율은 31.0%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를 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옹진군은 47.3%로, 약 50%에 가까운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장 낮은 연수구의 경우 25.8%로 나타나 옹진군과 연수가 사이에 약 20%p 차이가 나타난다.

〈표 III-3〉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가구 밀집지역(2022)

밀집도	1인 가구 비율
40% 이상	옹진군(47.3), 중구(40.6)
30% 이상	미추홀구(36.1), 동구(32.2), 남동구(31.9), 강화군(31.2), 부평구(30.9)
30% 미만	연수구(25.8), 계양구(29.3), 서구(27.0)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8]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분포(2022)



〈표 III-4〉 인천광역시 군·구내 읍·면·동 1인 가구 비율(2020)

(단위 : %)

지역	1인가구 비율	지역	1인가구 비율
강화군	29.1	연수구	24.6
서도면	44.1	연수1동	41.3
선원면	23.1	동춘3동	5.8
옹진군	41.6	남동구	28.6
덕적면	45.8	구월3동	50.5
백령면	37.4	구월2동	13.1
중구	38.8	부평구	27.7
운서동	56.7	십정2동	37.5
영종1동	21.5	산곡2동	11.6
동구	29.1	계양구	26.1
송림2동	40.0	계산1동	41.0
송림4동	21.6	효성2동	19.0
미추홀구	33.4	서구	24.3
용현1·4동	54.6	석남1동	33.2
학익1동	22.1	청라3동	13.7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군구 내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인천광역시 군·구내 읍·면·동 1인가구 비율은 2020년 인구총조사 자료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읍·면·동 중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구의 운서동으로 1인가구의 비율이 56.7%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미추홀구의 용현1·4동으로 54.6%였으며, 세 번째는 남동구의 구월3동으로 1인가구 비율이 50.5%로 나타났다.

남동구의 경우 남동구 내에서 읍·면·동 사이에 1인가구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월3동의 1인가구 비율은 50.5%였으나 가장 낮은 구월2동은 13.1%로 나타나 37.4%p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연수구 또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연수구 내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수1동은 41.3%였으나, 동춘3동은 5.8%로 나타나 35.3%p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옹진군의 경우 백령면(37.4%)을 제외한 모든 읍·면·동이 40%가 넘는 1인 가구 비율을 보였으며, 부평구와 서구에서는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는 읍·면·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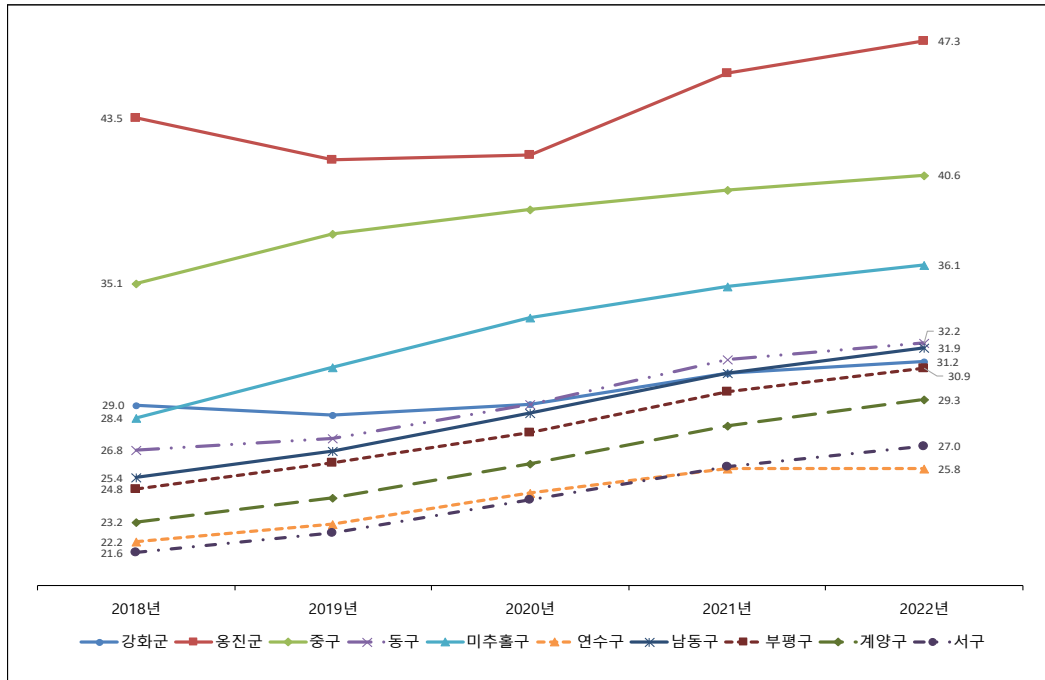
〈표 III-5〉 인천광역시 1인가구 밀집지역(읍·면·동 기준, 2020)

구분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강화군		서도면(44.1)	삼산면(39.5), 내가면(33.8), 교동면(32.0), 화도면(31.9), 양사면(30.7)
옹진군		덕적면(45.7), 영흥면(43.4), 북도면(42.4), 대청면(41.6), 자월면(40.2), 연평면(40.2)	백령면(37.4)
중구	운서동(56.7)	율목동(45.8), 영종동(45.4), 동인천동(44.1)	용유동(39.7), 신포동(38.4), 도원동(36.3), 북성동(36.1), 연안동(36.0), 송월동(31.9), 신흥동(30.5)
동구		송림2동(40.0)	송현3동(39.3), 금창동(34.3), 화수2동(32.3)
미추홀구	용현1·4동(54.6)	문학동(47.6), 주안1동(47.3), 용현3동(42.5)	주안3동(37.9), 주안5동(37.4), 용현2동(35.3), 주안4동(34.9), 주안2동(33.3), 송의1·3동(32.0), 동화1동(31.5), 송의4동(31.2), 송의2동(31.2), 도화2·3동(30.5), 주안7동(30.4)
연수구		연수1동(41.2)	청학동(39.9), 선학동(36.4), 연수2동(36.1), 연수3동(32.6)
남동구	구월3동(50.5)	만수1동(40.5)	구월4동(39.6), 간석1동(34.5), 만수5동(33.6), 논현2동(32.2), 간석3동(31.1)
부평구			십정2동(37.5), 부평4동(36.5), 부평6동(36.4), 부평3동(35.9), 청천1동(35.6), 부평2동(34.7), 부평5동(33.4), 부개1동(32.5), 부평1동(31.8), 십정1동(31.0)
계양구		계산1동(41.0)	계산2동(37.7), 계양2동(31.0), 작전2동(30.0)
서구			석남1동(33.2), 가좌1동(33.1), 가좌3동(30.7), 가좌4동(30.7), 석남3동(30.2)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9]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변화(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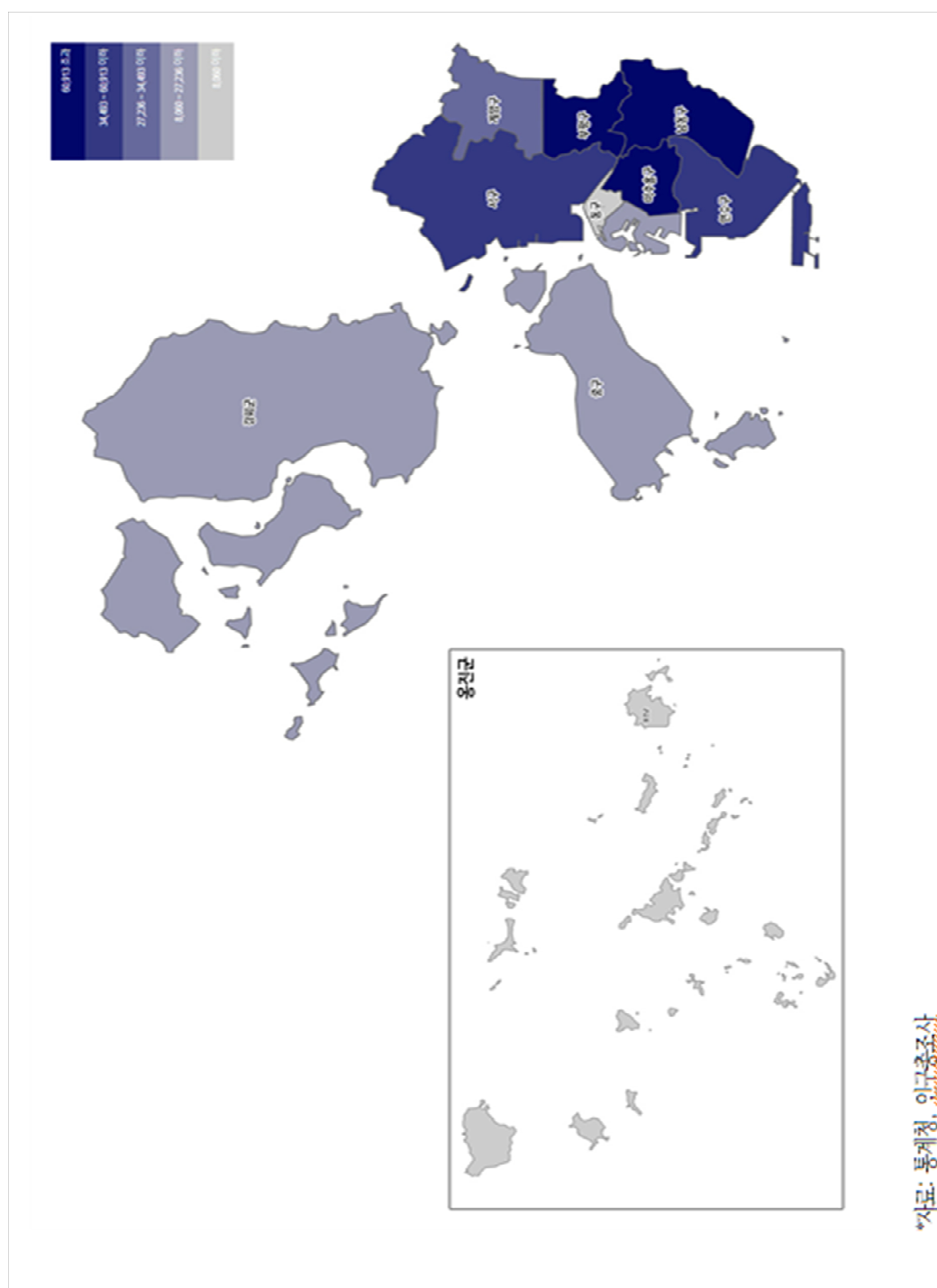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군·구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지역에 따라 증가의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2018년에 이미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인 옹진군과 중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20%대를 유지하며 30%를 넘지 않았지만, 2022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의 분포가 20% 중반부터 30% 초중반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옹진군의 경우 2019년에 1인 가구 비율이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강화군 또한 옹진군과 같이 2019년에 전년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감소했다가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한편, 연수구의 경우 2022년에 2021년에 비해 1인 가구 비율이 아주 적은 폭이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0]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수 (2022)



〈표 III-6〉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증감률(2022)

(단위 : 가구, %)

구분	1인 가구 (전년대비 증감률)					5년 연평균 증감률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5848594 (4.1)	6147516 (5.1)	6643354 (8.1)	7165788 (7.9)	7502350 (4.7)	6.4
인천광역시	275898 (3.6)	297862 (8.0)	324837 (9.1)	355657 (9.5)	376392 (5.8)	8.1
강화군	7759 (5.0)	7712 (-0.6)	8095 (5.0)	8764 (8.3)	9127 (4.1)	4.1
옹진군	3976 (-6.9)	3662 (-7.9)	3640 (-0.6)	4250 (16.8)	4606 (8.4)	3.7
중구	17162 (12.7)	20952 (22.1)	23101 (10.3)	24802 (7.4)	27236 (9.8)	12.2
동구	6887 (1.3)	6889 (0.0)	7334 (6.5)	8131 (10.9)	8060 (-0.9)	4.0
미추홀구	46210 (-6.6)	51395 (11.2)	56472 (9.9)	61331 (8.6)	64618 (5.4)	8.7
연수구	26658 (4.8)	30099 (12.9)	34745 (15.4)	37926 (9.2)	37514 (-1.1)	8.9
남동구	51191 (7.8)	54426 (6.3)	59396 (9.1)	64562 (8.7)	67190 (4.1)	7.0
부평구	48607 (2.2)	50952 (4.8)	53634 (5.3)	58618 (9.3)	62633 (6.9)	6.5
계양구	26424 (2.9)	27494 (4.1)	29622 (7.7)	32693 (10.4)	34493 (5.5)	6.9
서구	41024 (10.5)	44281 (7.9)	48798 (10.2)	54574 (11.8)	60913 (11.6)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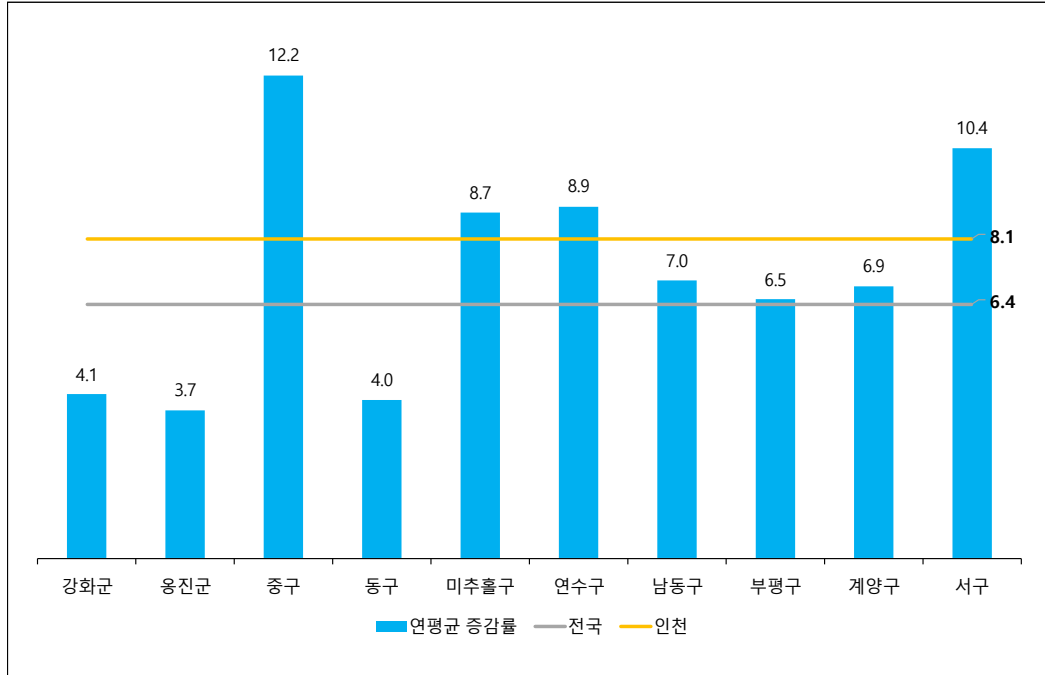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미추홀구의 2018년 전년대비 증감률은 2017년 남구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

〈표 III-6〉에서 1인 가구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에 1인 가구가 4.7% 증가했으며, 인천은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광역시 군·구의 전년 대비 1인 가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수구(-1.1%), 동구(-0.9%)는 전년 대비 1인 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년 대비 증가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로, 11.6%였으며, 그 뒤로 중구(9.8%), 옹진군(8.4%), 부평구(6.9%)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1]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연평균 증감률(2018-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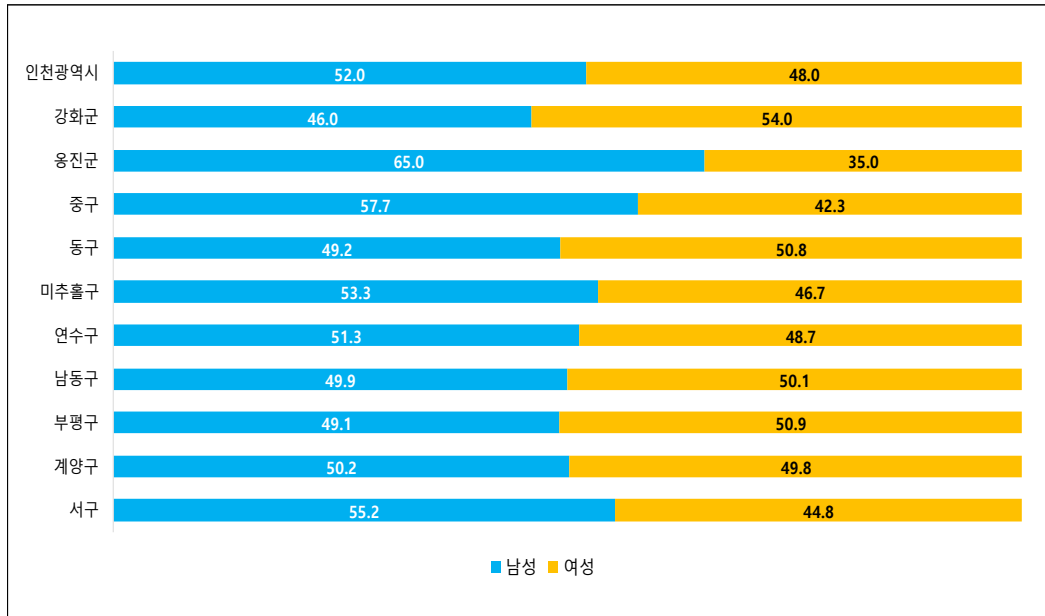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11]에서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감률이 6.4%로 나타나며 인천은 8.1%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감률은 인천이 전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군·구의 1인 가구의 연평균 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든 군·구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12.2% 증가하였고,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으로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 성비(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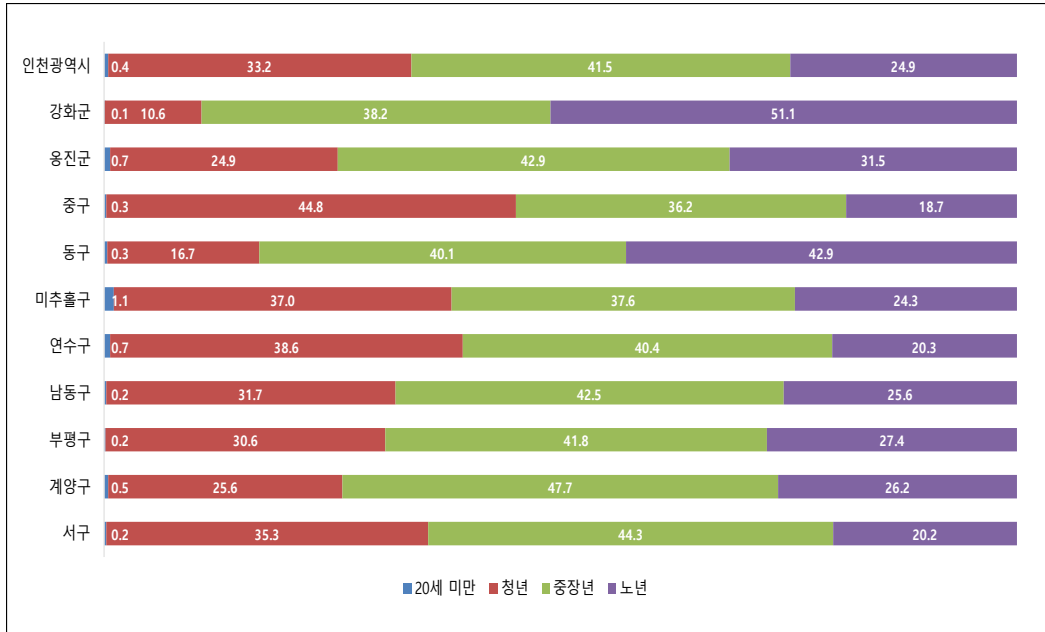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12]에서 인천광역시 1인 가구의 성비는 남성이 52.0%, 여성이 48.0%로, 남성의 1인 가구 비중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내 군·구의 1인 가구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강화군으로 54.0%로 나타났다. 그 뒤로 부평구 50.9%, 동구 50.8%, 계양구 49.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용진군으로 35.0%로 나타났고, 중구 42.3%, 서구 44.8%, 중구 42.3%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13] 인천광역시 군·구별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비율(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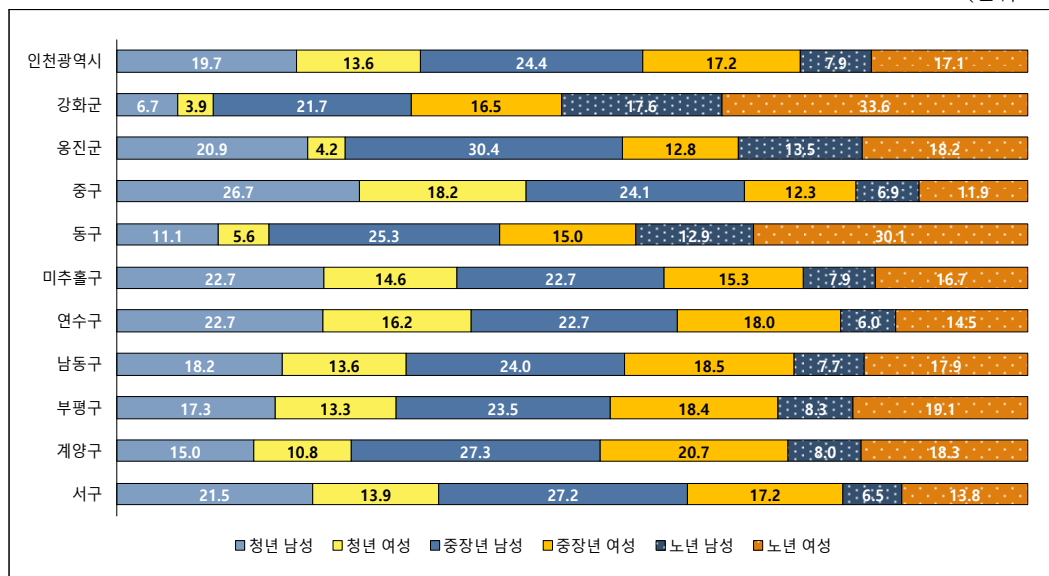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그림 III-13]에서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1인 가구를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지역별로 인구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구, 연수구의 경우 청년기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강화군은 청년기 1인 가구 비중은 낮은 대신 노년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옹진군,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 경우 중장년의 1인 가구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비중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I-14] 인천광역시 군·구별 생애주기 및 성별 구성비(2022)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천광역시의 1인 가구를 생애주기와 성별을 교차하여 살펴보면, 중장년 남성이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년 남성이 19.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년 남성이 7.9%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 청년 여성 13.6%, 노년 여성 17.1%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생애주기 및 성별 1인 가구 비중을 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강화군의 경우 노년 여성이 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구는 청년 남성이 2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대부분 지역에서 노년 남성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강화군(3.9%)과 용진군(4.2%), 동구(5.6%)는 청년 여성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군구 중 청년 남성(26.7%)과 청년 여성(18.2%)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군구 중 중장년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용진군(30.4%)이었으며, 중장년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계양구로 20.7%로 나타났다. 강화군의 경우 인천광역시 군구 중 노년 남성(17.6%), 노년 여성(33.6%)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분석

가. 1인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표 III-7〉 1인 가구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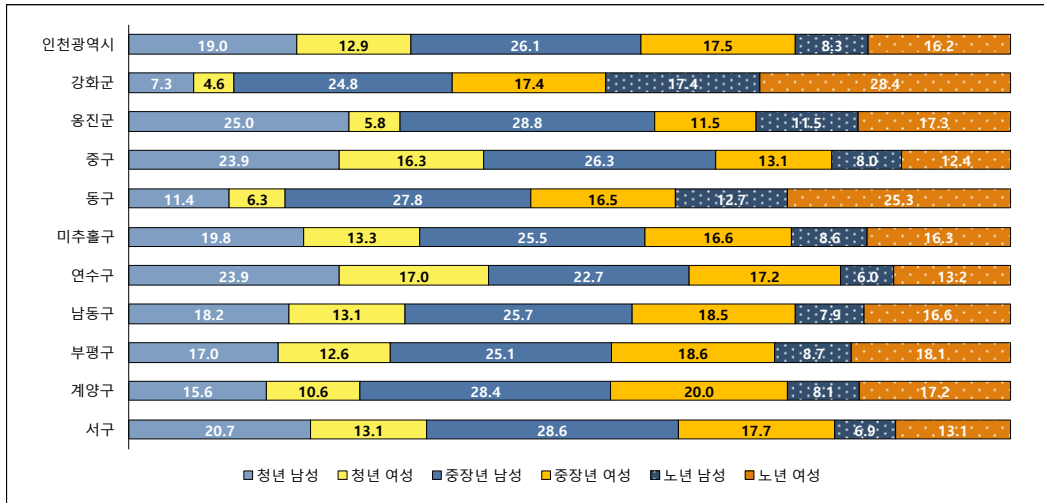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3500	100.0
거주지역	강화군	109	3.1
	옹진군	52	1.5
	중구	251	7.2
	동구	79	2.3
	미추홀구	596	17.0
	연수구	348	9.9
	남동구	610	17.4
	부평	554	15.8
	계양구	320	9.1
	서구	581	16.6
연령층1	청년	1118	31.9
	중장년	1527	43.6
	노년	855	24.4
연령층2	청년(19-39세)	1118	31.9
	중장년(40-50세)	580	16.6
	중장년(51-64세)	947	27.1
	노년(65세 이상)	855	24.4
성	남성	1869	53.4
	여성	1631	46.6
연령	19-20대	422	12.1
	30대	696	19.9
	40대	549	15.7
	50대	643	18.4
	60대	755	21.6
	70대 이상	435	12.4

구분		사례수 (명)	비율 (%)
혼인 상태	미혼	1605	45.9
	이혼	861	24.6
	사별	902	25.8
	별거	103	2.9
	기혼	29	0.8
학력	고졸 이하	1791	51.2
	대졸/대재	1611	46.0
	대학원 이상	98	2.8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081	30.9
	200-300만원 미만	1316	37.6
	300-500만원 미만	998	28.5
	500만원 이상	105	3.0
직업	관리자	90	2.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7	5.3
	사무종사자	799	22.8
	서비스 종사자	595	17.0
	판매 종사자	398	11.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7	7.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3	3.8
	단순노무 종사자	294	8.4
	기타	40	1.1
	무직	714	20.4
거주 형태	단독주택	531	15.2
	아파트	998	28.5
	연립/다세대	1376	39.3
	오피스텔/고시원	573	16.4
	비거주용 주택	16	0.5
	주택 외	6	0.2
인천시 거주기간	10년 미만	988	28.2
	10-30년 미만	1231	35.2
	30년 이상	1281	36.6
장애인 여부	장애인	95	2.7
	비장애인	3405	97.3

[그림 III-15]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 군·구별 생애주기 및 성별 구성비(202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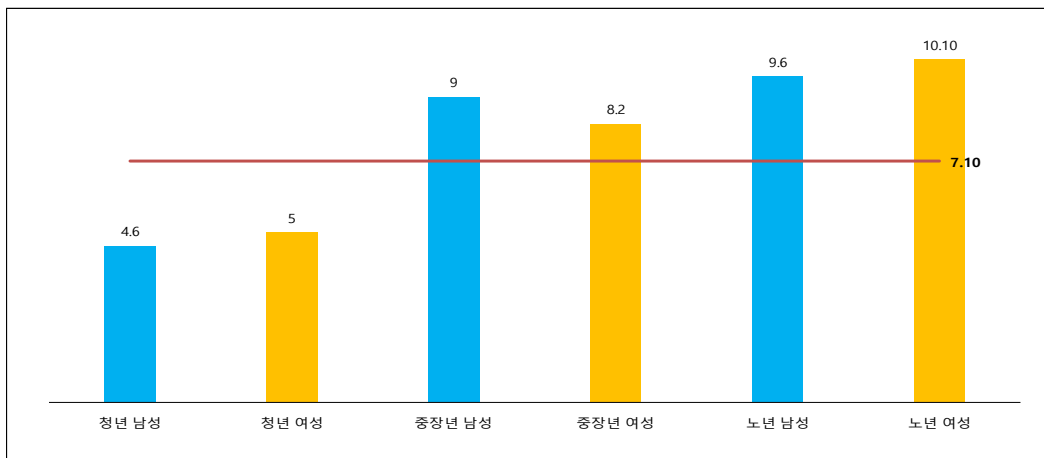
*자료 :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실태조사 (2022)

나.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생활 및 가치관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1인 가구가 혼자 산 기간은 평균 7년 10개월로 나타났다. 노년기 여성이 10년 10개월로 가장 길었고, 청년 남성이 4년 6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그림 III-16] 혼자 산 기간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8〉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단위 : %)

	전체	연령			성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 때문에	41.4	2.1	47.7	81.6	34.9	48.8
본인의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때문에	32.5	61.8	25.4	6.9	40.2	23.7
개인적인 편의(가족 및 주변으로부터의 사생활 보장 등)와 자유를 위해서	11.9	19.6	11.7	2.1	10.6	13.2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3.5	3.5	3.9	2.9	4.1	2.9
함께 살던 가족구성원의 이혼(기러기가족 포함), 이사 또는 분가 때문에	3.4	3.8	4.0	2.0	2.8	4.1
함께 살던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3.2	4.8	2.8	1.8	2.7	3.7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때문에	2.4	1.3	3.3	2.1	2.4	2.4
시험, 자격증, 취업준비를 위해	1.3	2.7	0.7	0.4	1.9	0.6
미혼 등 독립을 위해서	0.1	0.1	0.1	0.2	0.1	0.2
집을 구입해서	0.1	0.2	0.2	0.0	0.2	0.1
귀농해서	0.0	0.1	0.0	0.0	0.0	0.1
없다	0.0	0.1	0.0	0.0	0.0	0.1
무응답	0.1	0.1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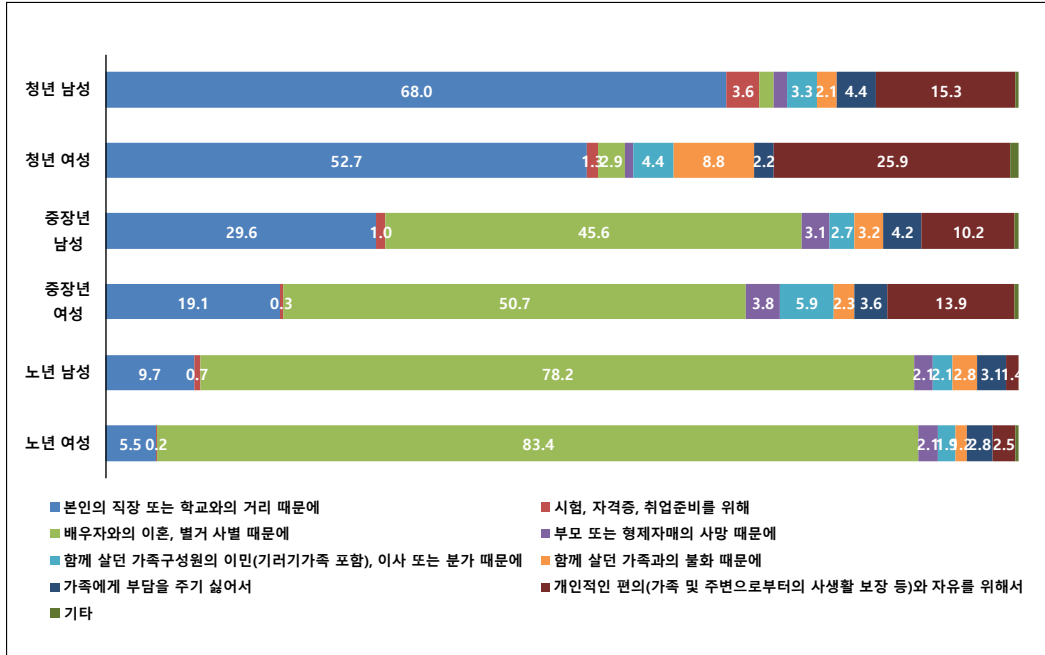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17]를 살펴보면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생애주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청년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으며, 노년기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다. 중장년기도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직장 혹은 학교의 거리도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 안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장과의 거리의 비중이 낮고 대신 개인적인 편의와 자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중장년기와 노년기 모두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17]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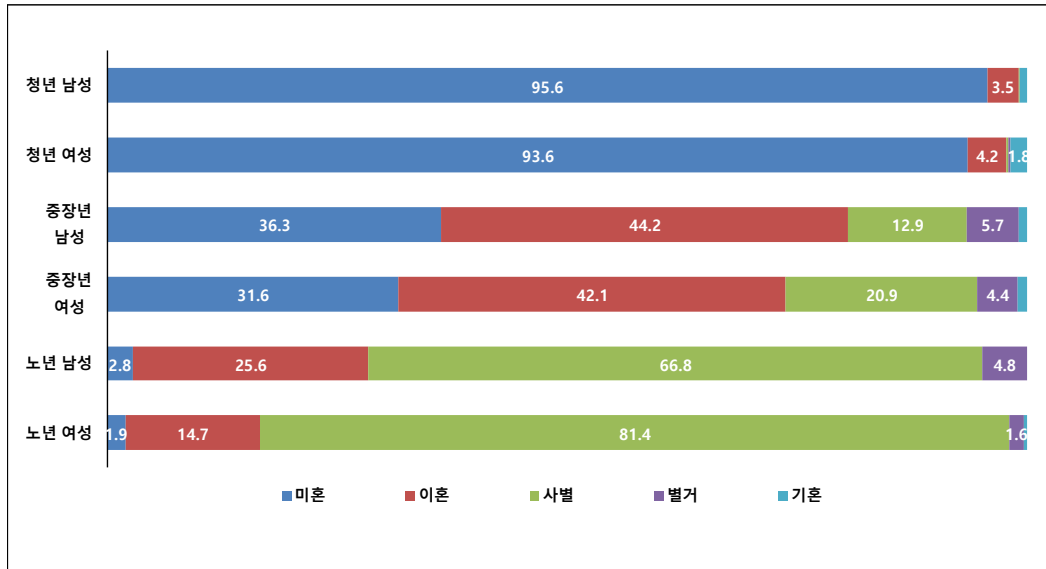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18]에서 생애주기별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중장년의 경우 이혼의 비중이 남성 44.2%, 여성 42.1%로 가장 높으나 노년의 경우 사별의 비중이 남성 66.8%, 여성 81.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혼인상태의 변화가 1인 가구 형성에 주요한 요인 이지만 중장년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 형성이 많은 반면, 노년의 경우 사별로 인한 1인 가구 형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III-19]의 혼자 생활하기 전 같이 산 사람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년의 경우 가족의 비중이 90%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노년으로 갈수록 배우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8] 혼인 상태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9〉 혼자 생활하기 전 같이 산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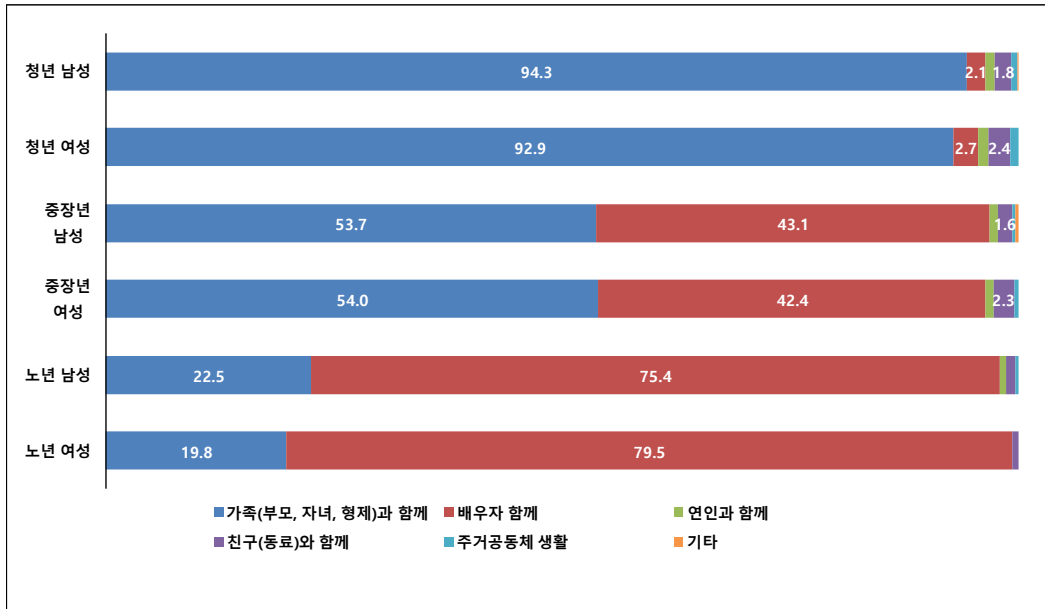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가족(부모, 자녀, 형제)과 함께	58.5	93.7	53.8	20.7	63.3	52.9
배우자 함께	38.5	2.3	42.8	78.1	33.5	44.3
친구(동료)와 함께	1.7	2.1	1.9	0.8	1.6	1.8
연인과 함께	0.8	1.1	0.9	0.2	0.9	0.6
주거공동체 생활	0.4	0.7	0.4	0.1	0.4	0.4
혼자 생활	0.1	0.1	0.1	0.0	0.2	0.0
기숙사	0.0	0.0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19] 혼자 생활하기 전 같이 산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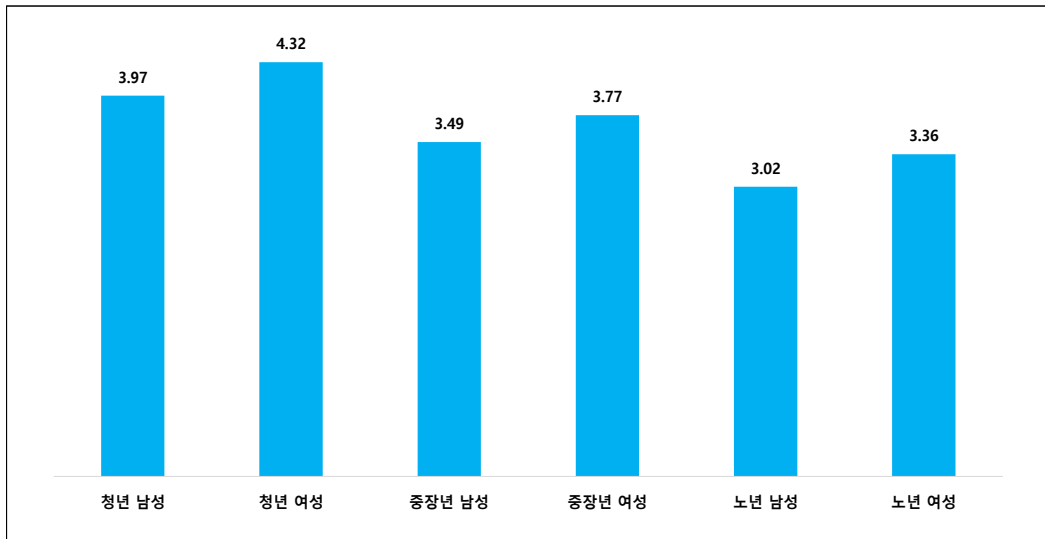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0]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년 여성이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중장년 여성이 3.77점, 노년 여성이 3.36점 순으로 나타난다. 남성 안에서는 청년 남성이 3.97점으로 가장 높고 노년 남성이 3.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모든 생애주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자 사는 것의 장점으로 청년은 여성 58.4%, 남성 55.6%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를 1순위로 선택했고, 중장년에서도 비중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노년에서는 여성의 경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가 2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남성의 경우 38.8%가 '좋은 점 없음'을 1순위로 선택했다. 혼자 사는 것의 장점을 선택하는 데 있어 모든 생애주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나만의 쉼과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같은 생애주기 안에서도 성별로 인한 차이를 보인다.

〈표 III-10〉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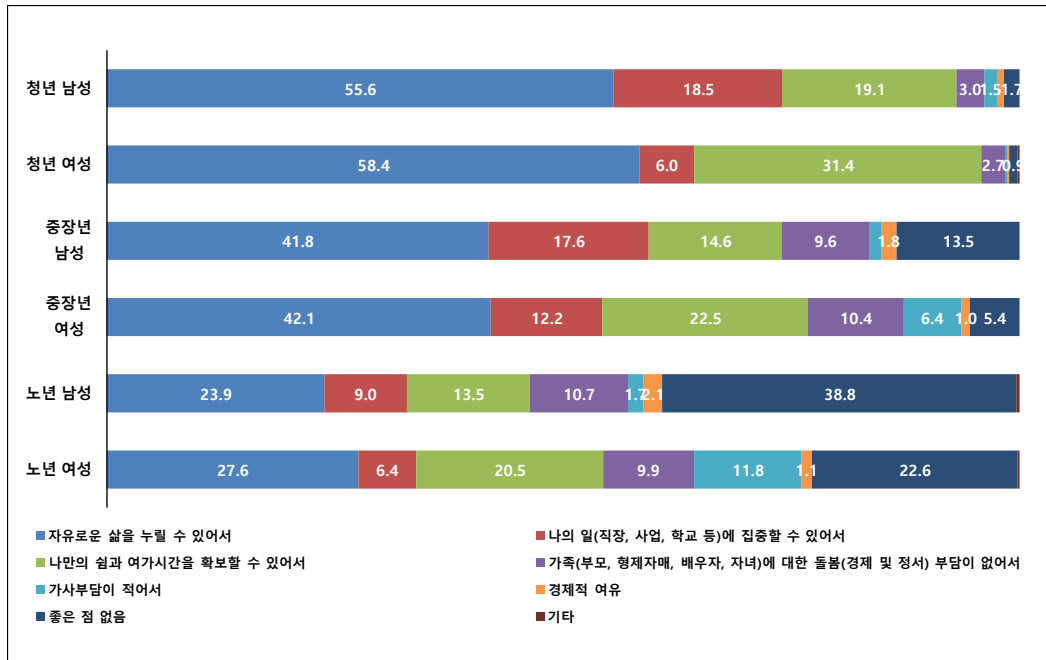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	42.8	56.7	41.9	26.3	43.9	41.6
나만의 쉼과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19.9	24.1	17.7	18.1	16.0	24.3
나의 일(직장, 사업, 학교 등)에 집중할 수 있어서	12.8	13.4	15.5	7.3	16.6	8.5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에 대한 돌봄(경제 및 정서) 부담이 없어서	7.7	2.9	10.0	10.2	7.4	8.1
가사부담이 적어서	3.8	1.0	3.3	8.4	1.4	6.6
경제적 여유	1.1	0.5	1.4	1.4	1.4	0.8
좋은 점 없음	11.7	1.3	10.2	28.1	13.2	10.1
무응답	0.1	0.1	0.0	0.2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1]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점(1순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11>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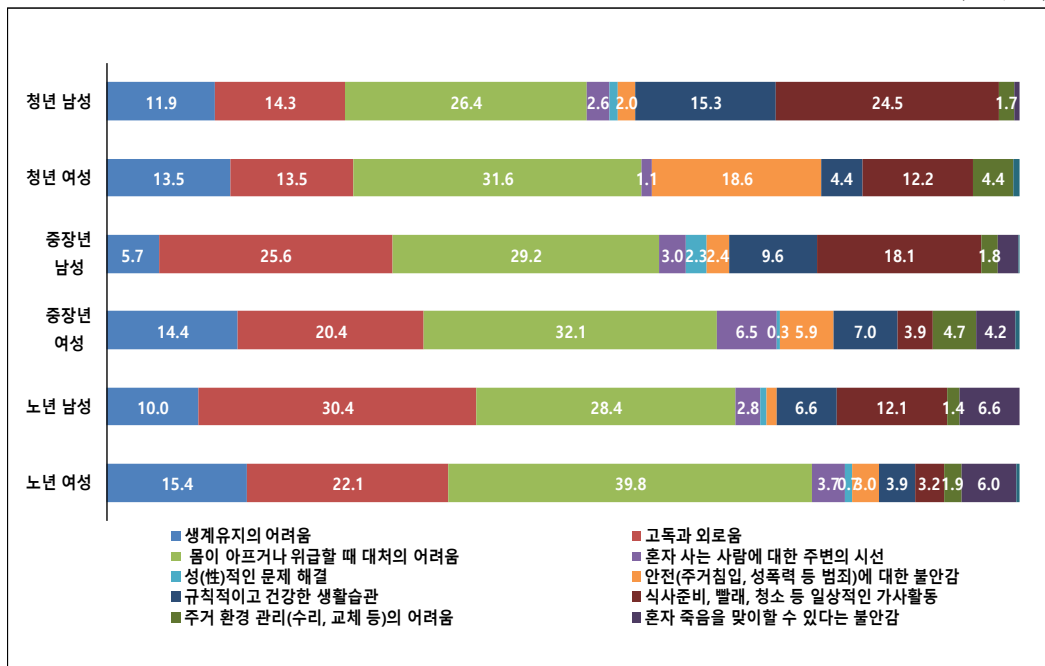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31.1	28.5	30.4	35.9	28.1	34.6
고독과 외로움	20.8	14.0	23.5	24.9	22.3	19.1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활동	13.1	19.5	12.4	6.2	19.4	5.9
생계유지의 어려움	11.3	12.5	9.2	13.6	8.6	14.5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8.4	10.9	8.6	4.8	11.2	5.2
안전(주거침입,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5.0	8.7	3.8	2.3	2.0	8.4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선	3.4	2.0	4.4	3.4	2.8	4.0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감	3.0	0.4	3.1	6.2	2.4	3.7
주거 환경 관리(수리, 교체 등)의 어려움	2.6	2.8	2.9	1.8	1.7	3.7
성(性)적인 문제 해결	1.0	0.5	1.5	0.7	1.6	0.4
반려동물 케어	0.0	0.1	0.0	0.0	0.0	0.1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0.0	0.1	0.0	0.0	0.0	0.1
없다	0.2	0.1	0.3	0.2	0.1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2]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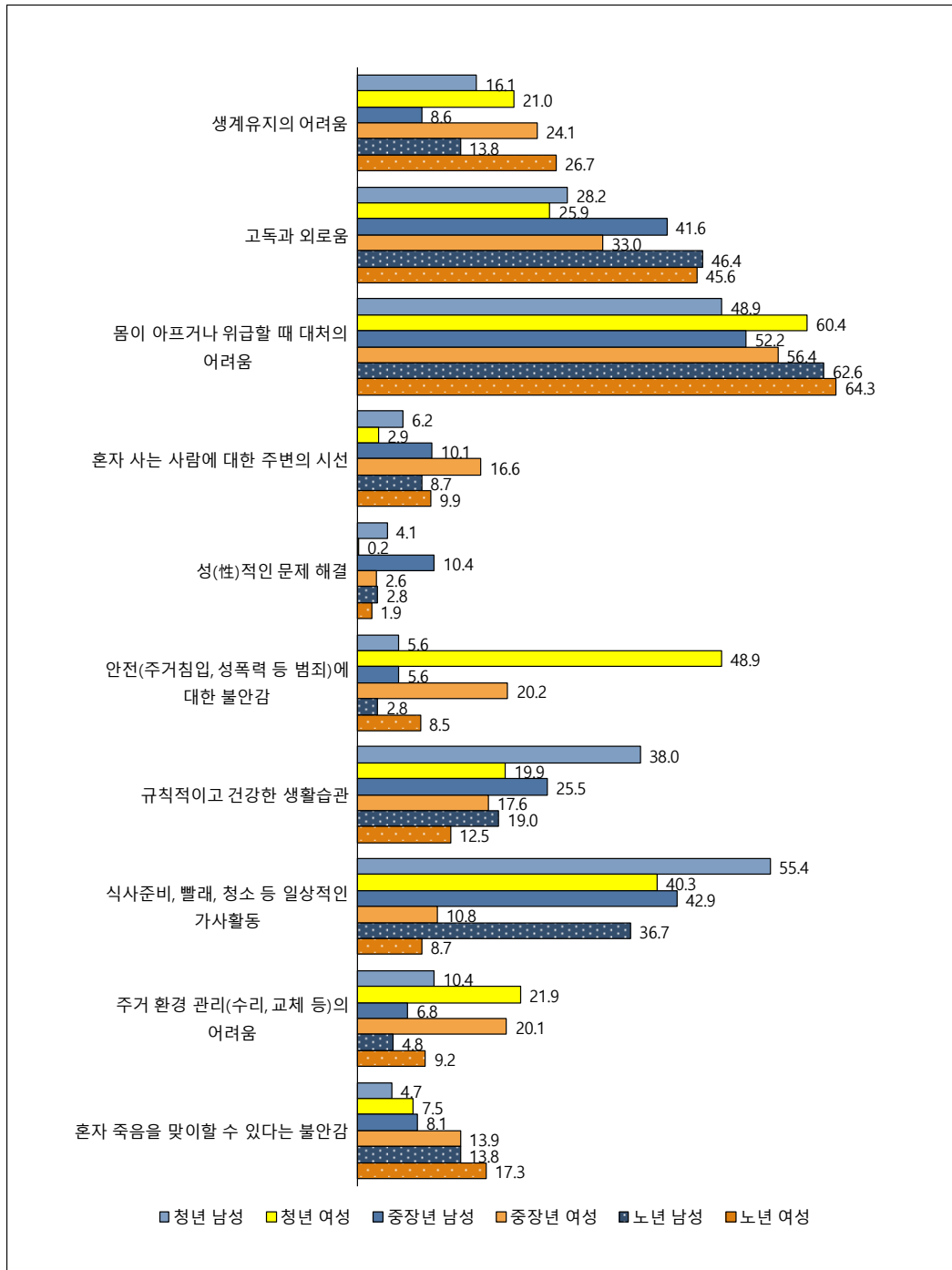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중 노년 남성을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의 1순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각 생애주기별 안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청년 여성에서 그 비중이 18.4%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차이는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을 종합해서 확인하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 III-23]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선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 여성의 48.9%, 중장년 여성의 20.2%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혼자 생활하며 곤란하거나 힘든 점 중 하나로 선택했지만, 남성의 경우 이에 대한 불안감은 5% 내외로 나타난다. 또한 청년 남성의 55.4%, 중년 남성의 42.9%, 노년 남성의 36.7%가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혼자 생활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든 점 중 하나로 선택했으며, 중장년 남성의 41.6%, 노년 남성의 46.4%가 고독과 외로움을 혼자 생활하며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선택했다.

[그림 III-23]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1+2+3 순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12〉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받은 경험(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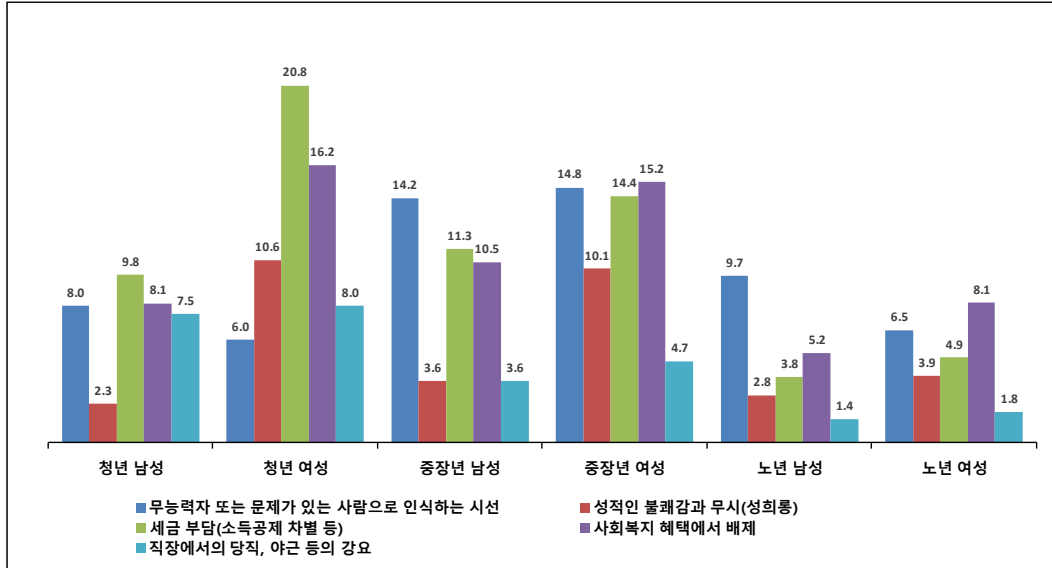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세금 부담(소득공제 차별 등)	11.1	14.2	12.5	4.6	9.6	12.9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	10.8	11.4	12.4	7.1	8.8	13.0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10.5	7.2	14.5	7.6	11.3	9.5
성적인 불쾌감과 무시(성희롱)	5.4	5.6	6.2	3.5	3.0	8.1
직장에서의 당직, 야근 등의 강요	4.6	7.7	4.1	1.6	4.7	4.6
이웃사람들의 행위	0.1	0.0	0.1	0.1	0.1	0.1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	0.1	0.2	0.0	0.0	0.0	0.1
쉽게 오고갈수 있는 집으로 여김	0.0	0.0	0.1	0.0	0.0	0.1
무섭거나 외롭지 않다는 참견	0.0	0.0	0.1	0.0	0.0	0.1
특별히 없다	72.8	71.5	68.1	83.0	74.8	70.6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받은 경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에서는 여성의 20.8%, 남성의 9.8%가 ‘세금부담’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장년에서는 남성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가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노년 남성의 9.7%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을 선택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년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 혜택에서 배제’가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가 진행될수록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주위의 시선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응답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의 경우 ‘성적인 불쾌감과 무시’에 대한 비중이 청년 여성 10.6%, 중장년 여성 10.1%, 노년 여성 3.9%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림 Ⅲ-24] 혼자 사는 것으로 인한 편견, 차별, 무시를 받은 경험(중복응답)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특별히 없다, 기타 제외

〈표 Ⅲ-13〉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불이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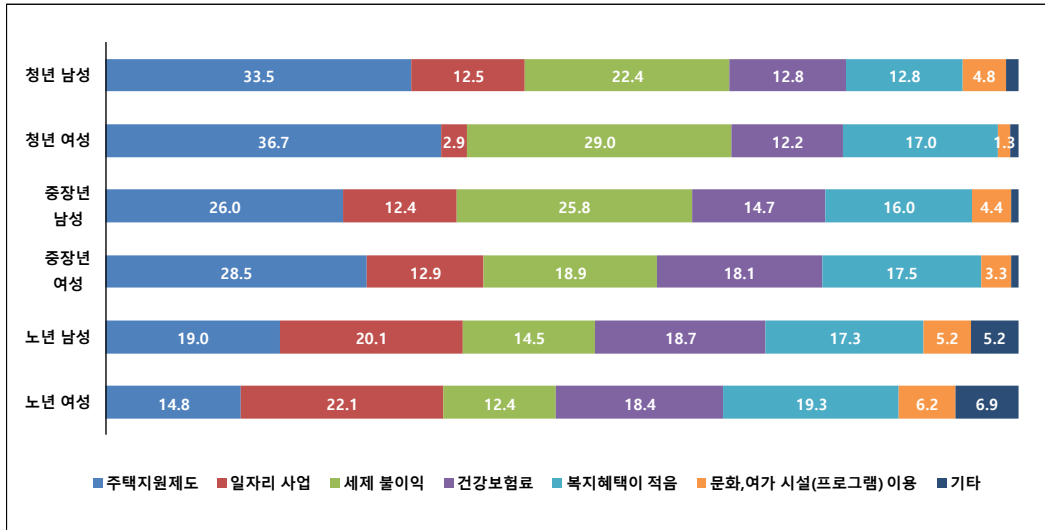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주택지원제도 : 청년/신혼부부 위주의 청약, 임대주택 제도 등	26.9	34.8	27.0	16.3	27.6	26.1
세제 불이익 :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인적공제 혜택이 부족하다	21.3	25.0	23.1	13.1	22.8	19.4
복지혜택이 적음 : 다자녀, 다문화 가정과 같은 다양한 복지혜택이 적다	16.4	14.5	16.6	18.6	15.0	18.0
건강보험료 : 세대당 소득/재산이 같을 경우 다인가구와 같은 금액 납부한다	15.5	12.5	16.0	18.5	14.6	16.6
일자리 사업 : 1인 가구를 위한 일자리가 없거나 기회가 적다	13.5	8.6	12.6	21.4	13.6	13.3
문화 여가 시설(프로그램) 이용	4.2	3.4	3.9	5.8	4.7	3.7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모든 혜택에서의 불이익	0.1	0.3	0.0	0.0	0.0	0.2
없다	2.1	0.7	0.8	6.1	1.6	2.6
무응답	0.1	0.2	0.0	0.2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5]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불이익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정부 지원 중 1인 가구이기 때문에 받는 가장 큰 불이익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지원제도’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청년의 경우 여성 36.7%, 남성 33.5%가 ‘주택지원제도’를 선택했다. 청년 안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세제 불이익’을 응답한 비중이 높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자리 사업’을 응답한 비중이 높다. 중장년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세제 불이익’을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노년에는 청년과 중장년과 비교해 남성과 여성 모두 주택지원제도를 응답한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자리 사업’이 여성 22.1%, 남성 20.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혜택이 적음’을 응답한 비중도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생애주기가 지나며 주택지원제도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면서 복지혜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4〉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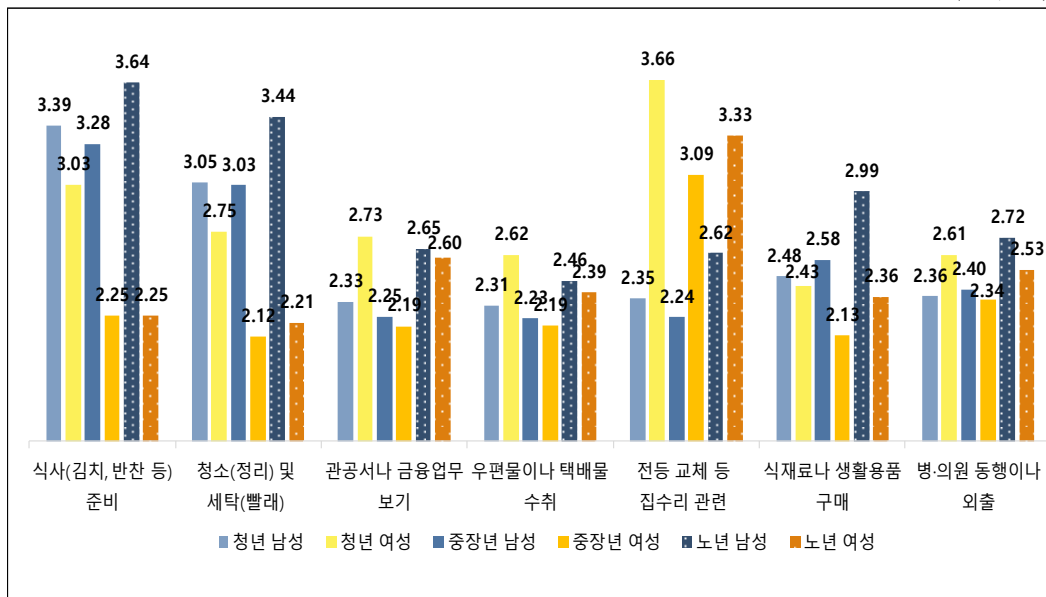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식사(김치, 반찬 등) 준비	3.0	2.8	3.1	3.3	2.6	3.5
청소(정리) 및 세탁(빨래)	3.3	3.1	3.3	3.4	2.9	3.7
관공서나 금융업무 보기	3.6	3.5	3.8	3.4	3.7	3.5
우편물이나 택배물 수취	3.7	3.6	3.8	3.6	3.7	3.6
전등 교체 등 집수리 관련	3.2	3.1	3.4	2.9	3.7	2.7
식재료나 생활용품 구매	3.5	3.5	3.6	3.4	3.4	3.7
병/의원 동행이나 외출	3.5	3.5	3.6	3.4	3.6	3.5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6〉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전등 교체 등 집수리 관련’에 대한 불편 정도가 모든 생애주기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식사 준비’와 ‘청소 및 세탁’에 대한 불편 정도가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년 남성에서 이에 대한 불편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혼자서 알아서 해결한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의존은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지나며 낮아졌다가 노년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반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혼자 해결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II-15〉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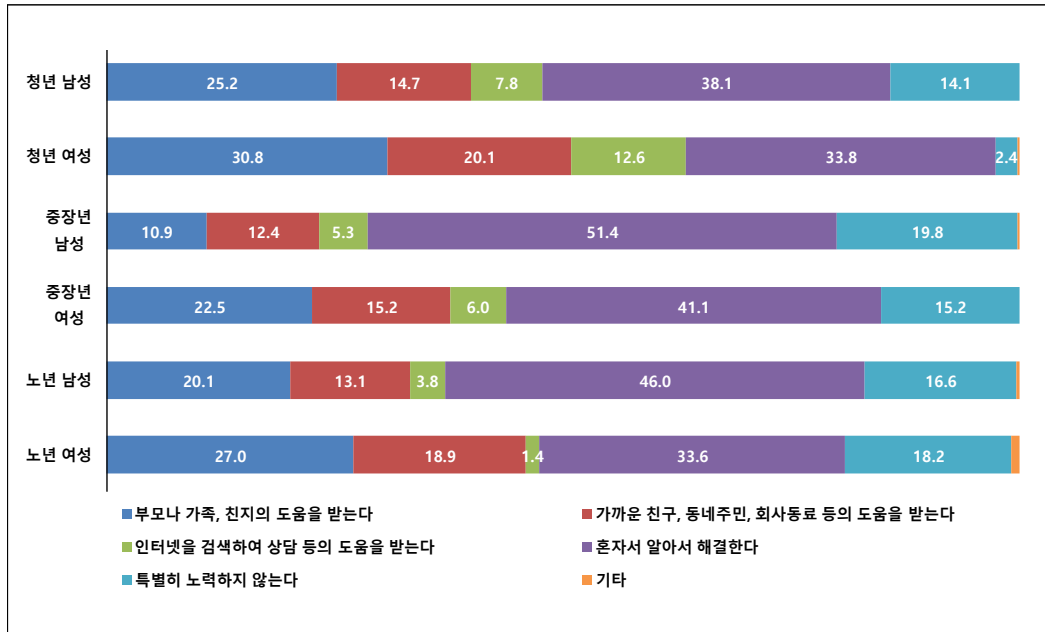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혼자서 알아서 해결한다	41.5	36.4	47.3	37.8	45.9	36.5
부모나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21.6	27.5	15.6	24.7	17.4	26.4
가까운 친구, 동네주민, 회사 동료 등의 도움을 받는다	15.4	16.9	13.5	17.0	13.3	17.8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다	15.1	9.4	17.9	17.7	17.3	12.7
인터넷을 검색하여 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다	6.1	9.7	5.6	2.2	5.9	6.3
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등 복지시설에 도움을 받는다	0.1	0.0	0.1	0.5	0.1	0.2
종교시설의 도움을 받는다	0.1	0.0	0.0	0.2	0.1	0.1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0.0	0.0	0.1	0.0	0.1	0.0
연인의 도움을 받는다	0.0	0.1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7]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16>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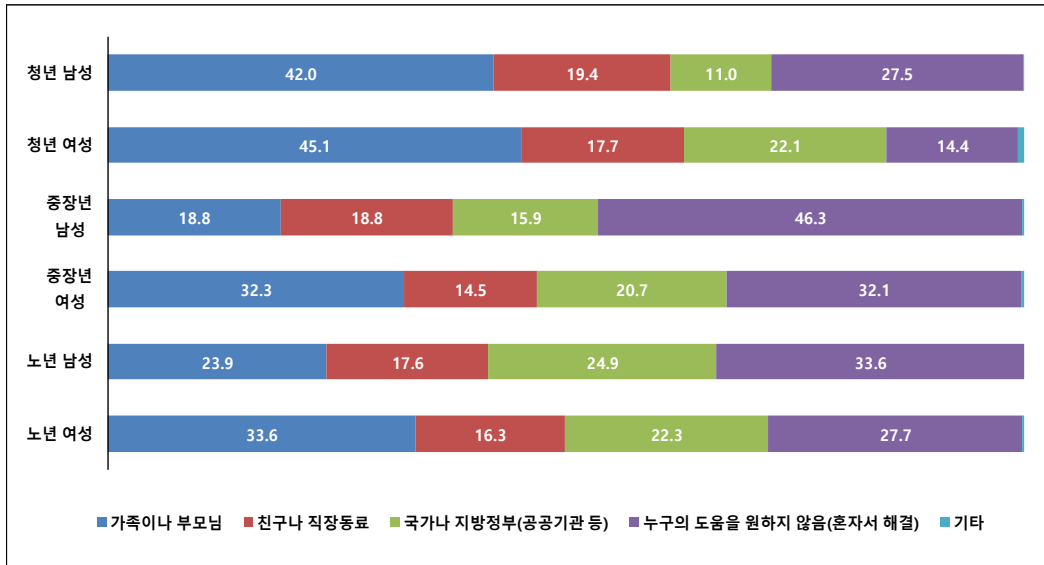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 (혼자서 해결)	32.1	22.2	40.6	29.7	37.6	25.7
가족이나 부모님	31.8	43.3	24.2	30.3	27.9	36.3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18.4	15.5	17.8	23.2	15.5	21.6
친구나 직장동료	17.5	18.7	17.1	16.7	18.8	16.0
연인	0.1	0.4	0.0	0.0	0.1	0.2
무응답	0.1	0.0	0.2	0.0	0.1	0.1
이웃주민	0.0	0.0	0.0	0.1	0.0	0.1
봉사자	0.0	0.0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28]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기를 희망하는 사람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여성 45.1%, 남성 42.0%가 가족이나 부모님을 선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 집단 안에서는 여성의 22.1%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도움을 희망했으나 남성은 11.0%로 여성에 비해 비중이 낮으며 대신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의 비중이 27.5%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에서는 여성의 경우 '가족이나 부모님'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이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의 경우에도 여성은 '가족이나 부모님'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은 '누구의 도움을 원하지 않음'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도움은 여성에서는 모든 생애주기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은 노년에서만 20% 이상의 응답이 확인된다.

〈표 Ⅲ-17〉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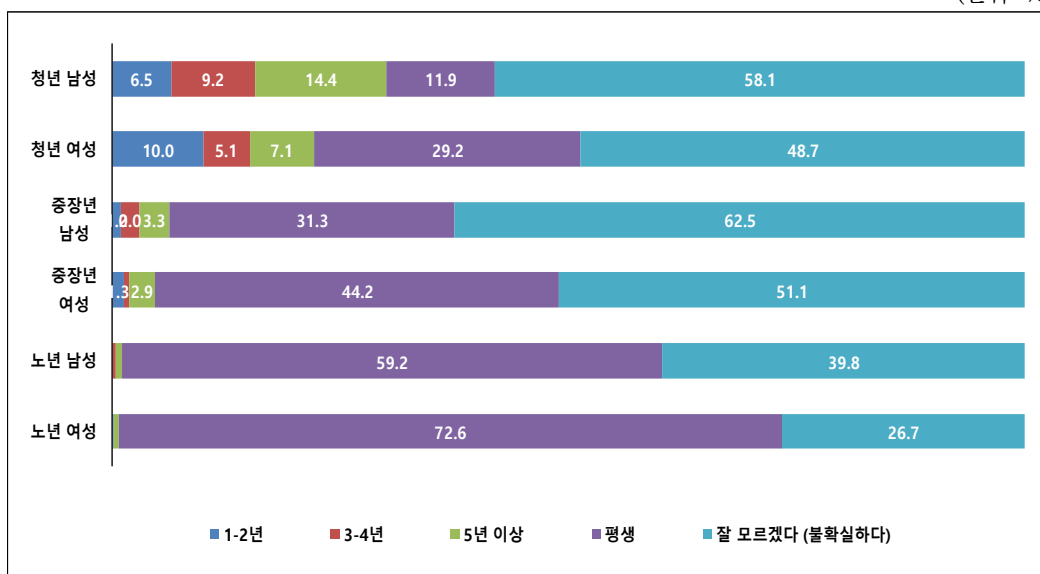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1년	1.2	3.0	0.5	0.1	0.9	1.5
2년	1.9	4.9	0.7	0.0	1.9	1.8
3년	2.4	5.9	1.0	0.1	3.4	1.2
4년	0.7	1.6	0.3	0.0	0.9	0.4
5년	3.1	7.3	1.6	0.2	4.4	1.6
6년 이상	2.1	4.1	1.6	0.4	2.5	1.7
평생	38.6	18.9	36.5	68.1	28.7	49.9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50.2	54.3	57.9	31.1	57.4	4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Ⅲ-29〕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 가구 예상 유지 기간에 대한 응답은 생애주기와 성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청년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비교적 짧은 기간을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향후 1-2년이 10.0%로 남성(6.5%)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청년 여성의 29.2%가 '평생'을 선택한 데 비해, 남성은 11.9%가 '평생'을 선택해 17.3%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생애주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평생'을 응답한 비중이 남성과 여성 모두 점차 높아지지만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생'을 응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I-18〉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필요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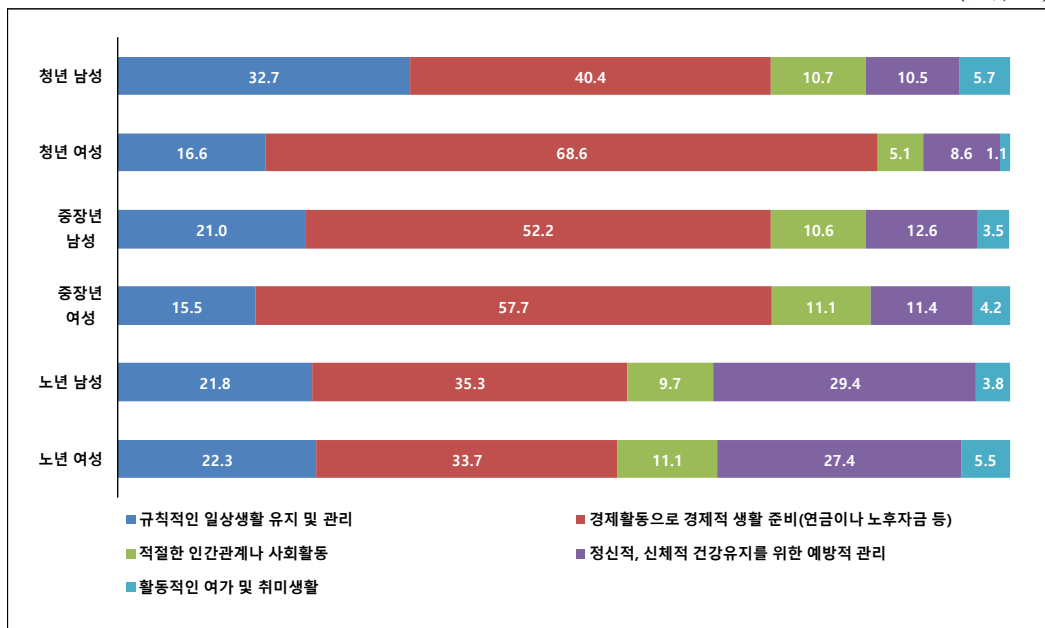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생활 준비(연금이나 노후자금 등)	48.7	51.8	54.4	34.3	45.4	52.4
규칙적인 일상생활 유지 및 관리	22.0	26.2	18.8	22.1	25.3	18.1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15.3	9.7	12.1	28.1	14.4	16.2
적절한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10.0	8.4	10.8	10.6	10.5	9.4
활동적인 여가 및 취미생활	4.1	3.8	3.8	4.9	4.3	3.8
없다	0.0	0.0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30]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필요한 노력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필요한 노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경제활동으로 경제적 생활 준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68.6%가 경제적 준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노년으로 갈수록 ‘정신적, 신체적 건강유지를 위한 예방적 관리’ 비중이 높아지는데, 청년은 10% 내외의 응답을 보였으나, 노년의 경우 여성 27.4%, 남성 29.4%로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건강에 대한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9〉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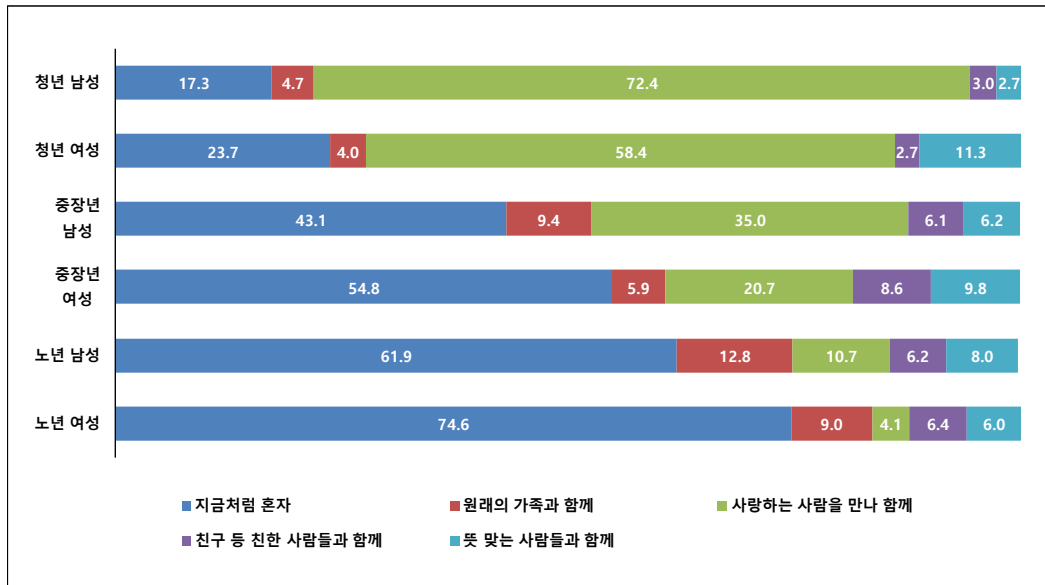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지금처럼 혼자	44.4	19.9	47.8	70.3	36.8	53.0
사랑하는 사람 만나 함께	35.6	66.7	29.3	6.3	44.6	25.4
원래의 가족과 함께	7.4	4.4	8.0	10.3	8.2	6.4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각자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며 함께 사는 주거공동체 등)	6.9	6.2	7.7	6.7	5.2	8.9
친구 등 친한 사람들과 함께	5.6	2.9	7.1	6.3	5.0	6.2
무응답	0.1	0.0	0.1	0.1	0.1	0.0
반려동물	0.0	0.0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31]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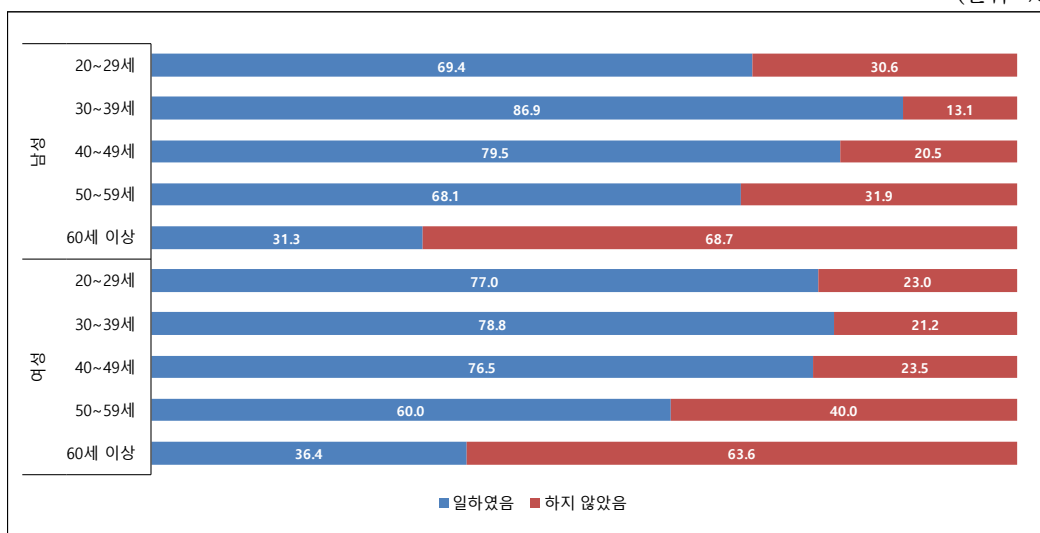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향후 희망하는 가구 형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금처럼 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같은 생애주기 안에서도 성별에 따라 희망하는 가구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청년 안에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성은 58.4%, 남성은 72.4%로 14%p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반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지금처럼 혼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의 비중이 여성은 11.3%, 남성은 2.7%로 차이가 나타난다. 중장년 안에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지금처럼 혼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54.8%, 남성은 43.1%로 11.7%p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비교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의 경우 여성은 20.7%, 남성은 35.0%로 14.3%p 차이가 나타난다. 노년의 경우 ‘지금처럼 혼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74.6%가 ‘지금처럼 혼자’를 선택했다. 남성의 경우 61.9%가 ‘지금처럼 혼자’를 선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의 가족과 함께’가 12.8%,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가 10.7%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2) 경제상황

[그림 III-32] 경제활동 여부(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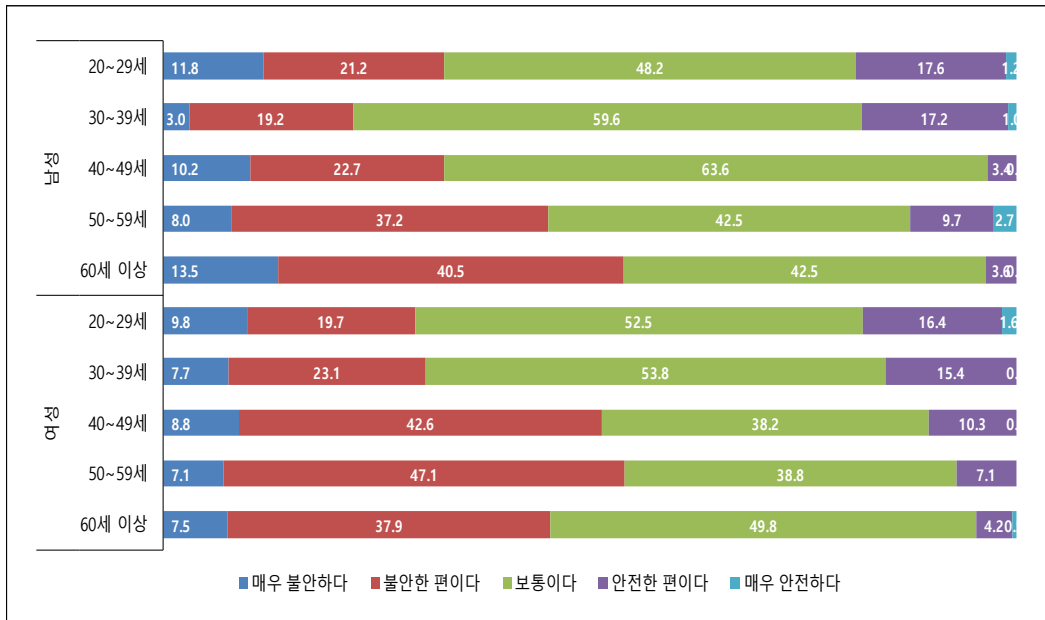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통계청의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의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20대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다가 4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0대의 경제활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남성 86.9%, 여성 78.8%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를 제외하면,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보다 40대와 50대에서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불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높게 나타나고,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 이후 30대에서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불안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했다가 40대부터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33] 경제생활 만족도(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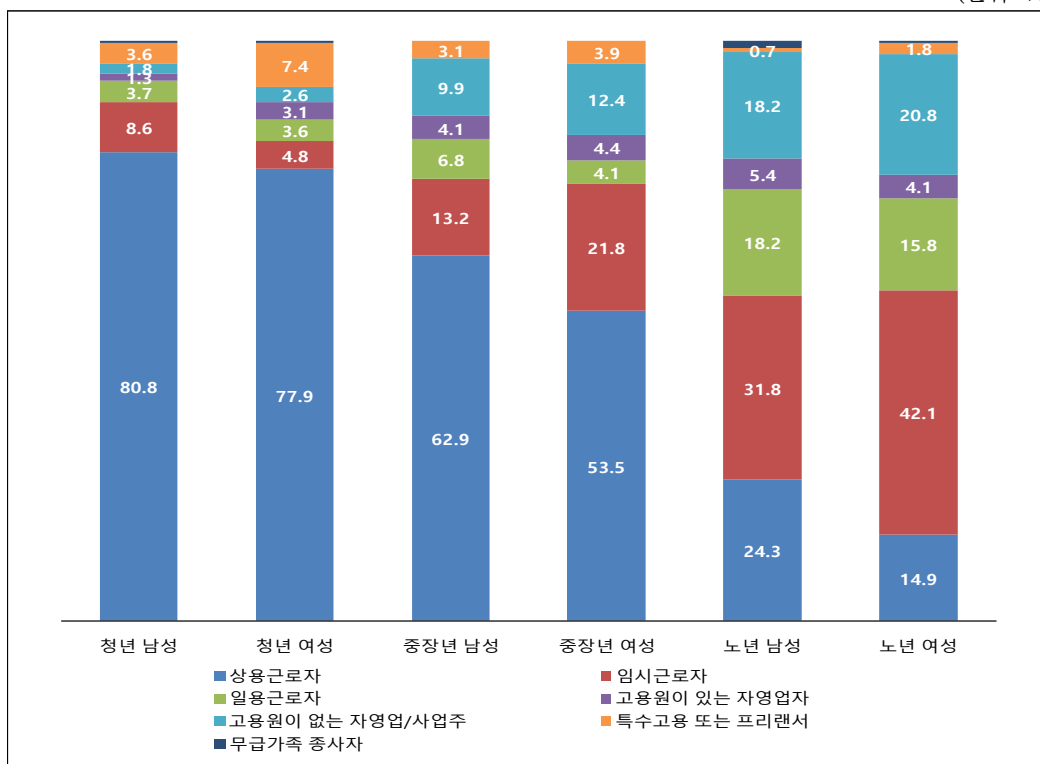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그림 Ⅲ-34]에서 1인 가구의 근로 형태를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임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남성의 경우 80.8%, 여성의 77.9%가 상용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년에는 남성의 24.3%, 여성의 14.9%만 상용 근로자였으며, 대신 노년 남성 31.8%, 여성 42.1%가 임시 근로자라고 응답했다. 또한 노년에는 일용 근로자의 비중도 증가하여 남성 18.2%, 여성 15.8%가 일용 근로자라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사업주'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생애주기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중장년과 노년에는 여성이 상용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대신 임시 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청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특수고용 또는 프리랜서의 비중이 7.4%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34] 근로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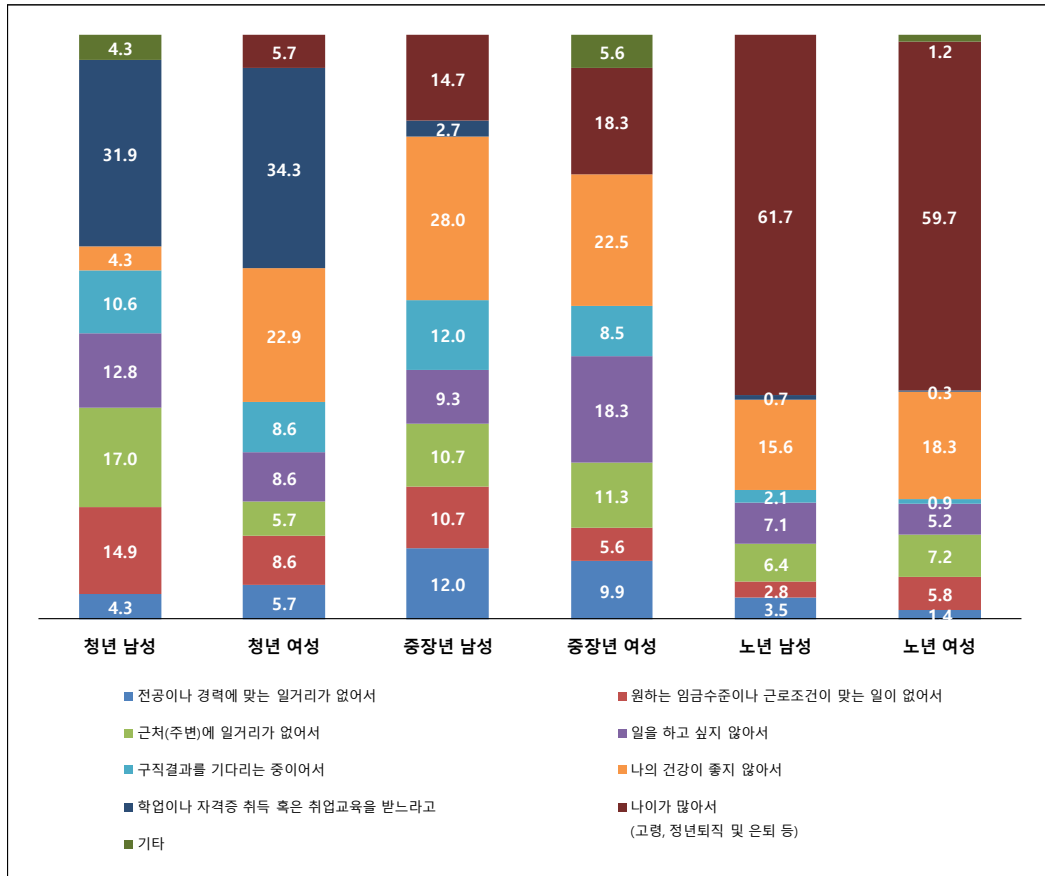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비율 산출

[그림 III-35] 일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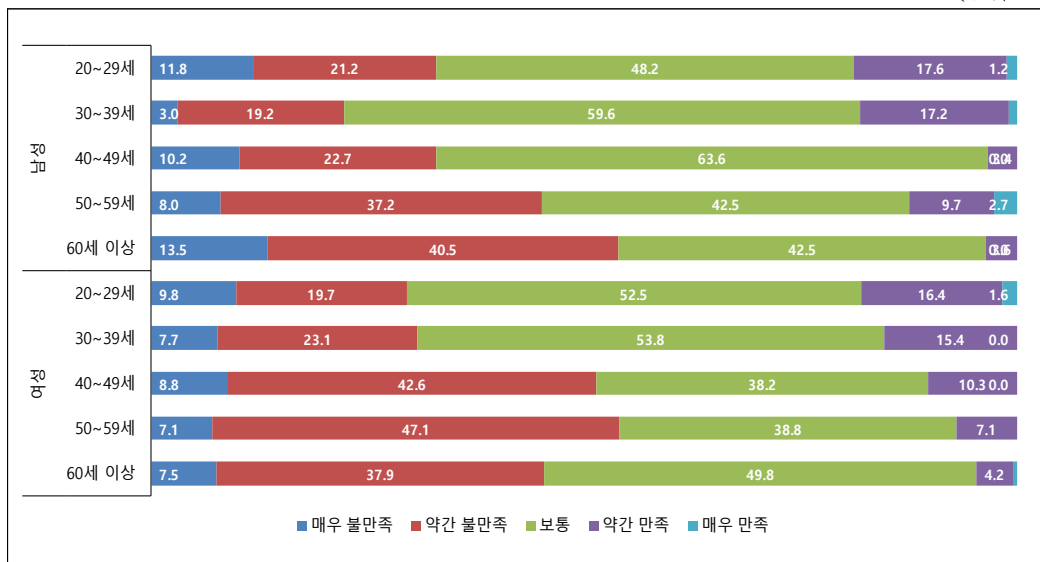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근로소득이 없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산출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학업이나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교육’의 비중이 남성 31.9%, 여성 3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중장년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남성 28.0%, 여성 2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노년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가 남성 61.7%, 여성 5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청년 안에서 남성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이 없어서’가 14.9%,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어서’가 17.0%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2.9%로 나타나 일을 하지 않는 이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III-36] 일자리 충분도(2021)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일자리 충분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면, 대체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에서는 40대와 50대가 일자리 충분도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서는 60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0〉 생활비 지출액

(단위 : %, 만원)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50만원 미만	6.3	7.2	4.2	8.8	5.6	7.1
50~100만원 미만	24.1	21.9	16.3	40.8	18.5	30.5
100~150만원 미만	30.7	32.9	29.3	30.3	30.7	30.7
150~200만원 미만	23.9	21.8	30.0	15.7	26.9	20.4
200만원 이상	15.1	16.2	20.2	4.4	18.4	1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 만원]	126.88	124.82	143.47	99.97	135.90	116.56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21〉 생애주기별 생활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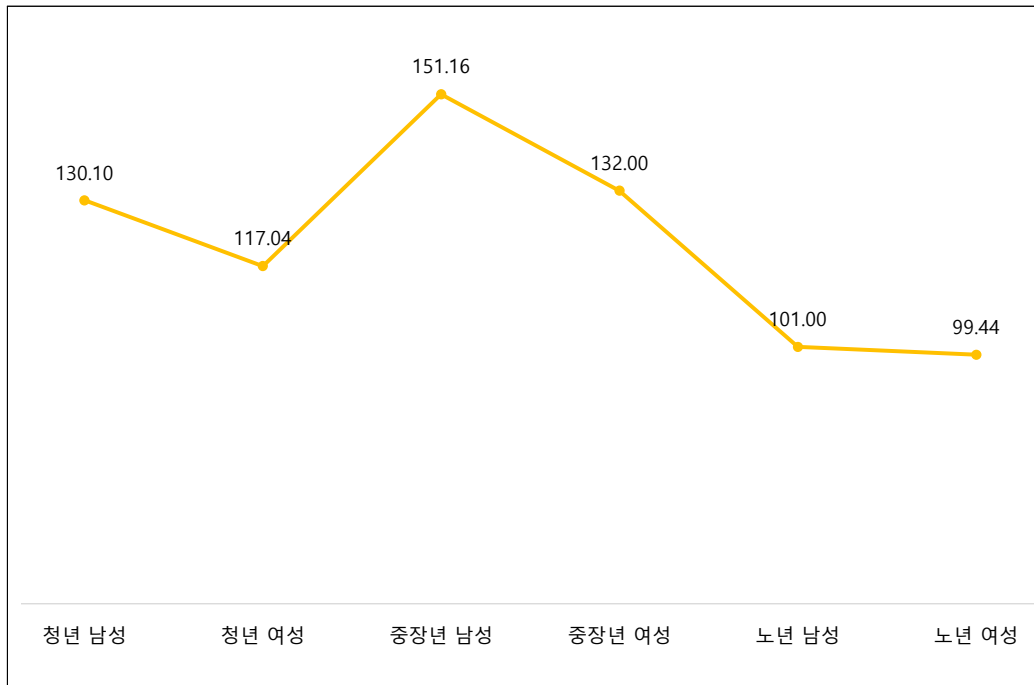
(단위 : %, 만원)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 (만원)
청년 남성	6.3	17.9	34.5	24.9	16.4	130.10
청년 여성	8.4	27.9	30.5	17.3	15.9	117.04
중장년 남성	3.7	12.9	27.9	31.3	24.2	151.16
중장년 여성	4.9	21.4	31.3	28.1	14.4	132.00
노년 남성	9.7	37.7	30.4	17.6	4.5	101.00
노년 여성	8.3	42.4	30.2	14.7	4.4	99.44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37] 생활비 평균 금액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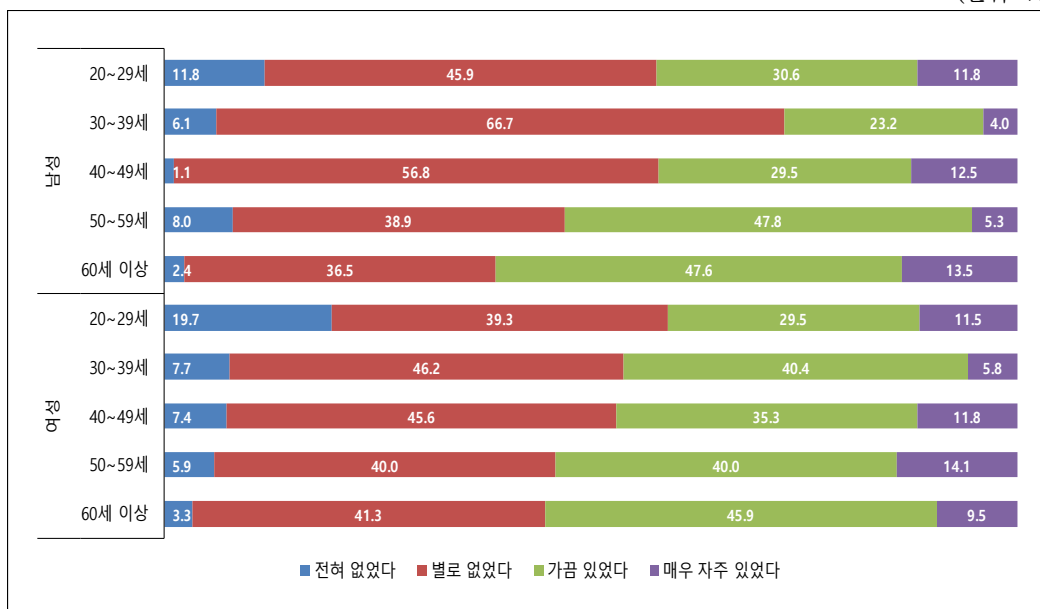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 가구의 생활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생활비 평균 금액은 중장년 남성이 151.16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중장년 여성 132만원, 청년 남성 130.1만원, 청년 여성 117.04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년 여성의 경우 100만원 보다 낮은 평균 금액이 확인된다.

생활비 지출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100-15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은 여성은 100-150만원 이상, 남성은 150-2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노년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50-10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년 여성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의 비중이 42.4%로 나타나 생활비 지출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III-38]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 정도(2021)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생계유지 어려움 경험정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증가하며, 남성의 경우 40대부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표 III-22〉 빚을 지게 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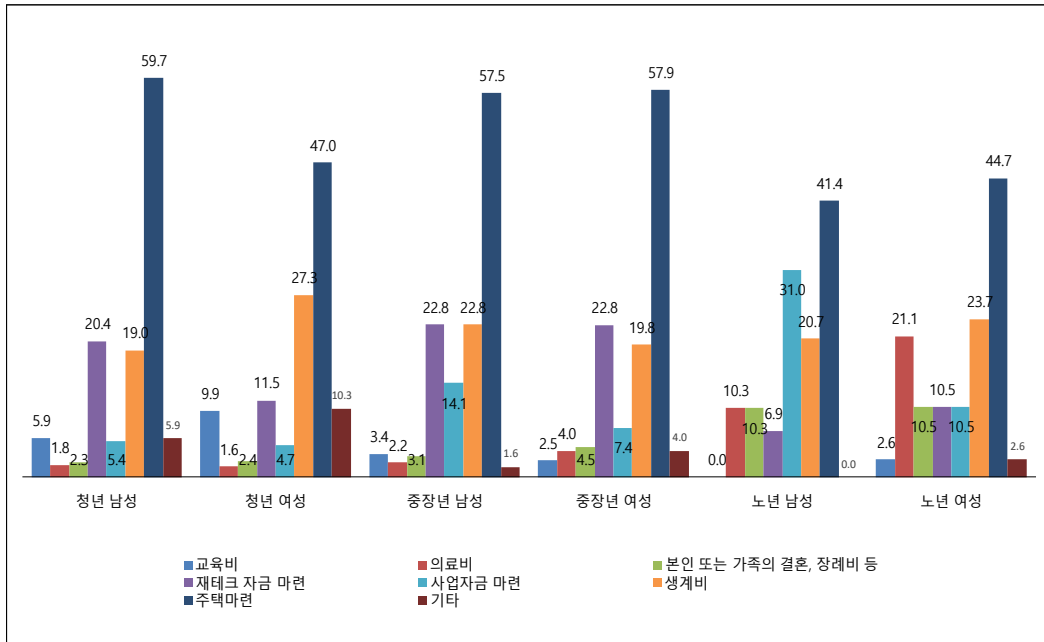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주택 마련	54.7	53.0	57.7	43.3	57.5	51.3
생계비(식비, 수도 및 가스 요금, 월세 등)	22.5	23.4	21.6	22.4	21.2	23.9
재테크 자금마련(주식, 부동산 등)	18.7	15.6	22.8	9.0	21.1	16.0
사업자금 마련	9.1	5.1	11.5	19.4	11.6	6.3
교육비(본인, 자녀, 사교육비)	5.2	8.0	3.1	1.5	4.2	6.3
본인 또는 가족의 결혼, 장례비 등	3.5	2.3	3.6	10.4	3.2	3.9
의료비	3.2	1.7	2.9	16.4	2.5	4.1
전세자금	1.9	3.4	0.8	0.0	0.5	3.4
차량 구매	0.8	1.5	0.2	0.0	1.1	0.4
사기	0.7	0.8	0.6	0.0	0.5	0.8
가족 부채	0.5	0.6	0.2	1.5	0.0	1.0
자금을 빌려줌	0.3	0.4	0.2	0.0	0.0	0.6
이혼 등 재산분할	0.2	0.2	0.2	0.0	0.4	0.0
투자	0.1	0.2	0.0	0.0	0.2	0.0
사고	0.1	0.2	0.0	0.0	0.0	0.2
벌금	0.1	0.2	0.0	0.0	0.2	0.0
쇼핑	0.1	0.0	0.2	0.0	0.0	0.2
코로나	0.1	0.2	0.0	0.0	0.0	0.2
대출	0.1	0.2	0.0	0.0	0.2	0.0
상환함	0.1	0.0	0.2	0.0	0.2	0.0
무응답	0.1	0.2	0.0	0.0	0.0	0.2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빚을 지게 된 이유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응답 집단에서 ‘주택 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청년 남성,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에서는 ‘재테크 자금 마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청년 여성과 노년 여성은 ‘생계비’, 노년 남성은 ‘사업자금 마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39] 빚을 지게 된 이유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부채가 있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산출

<표 III-23> 노후 준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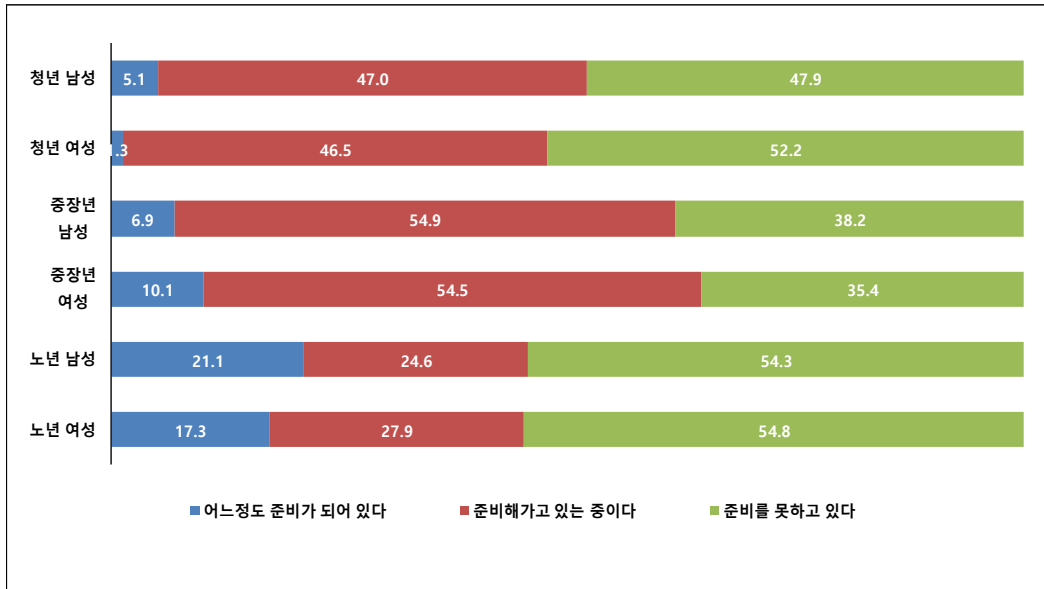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9.3	3.6	8.2	18.6	8.5	10.2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다	45.4	46.8	54.7	26.8	47.4	43.0
준비를 못하고 있다	45.4	49.6	37.1	54.6	44.1	46.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0] 노후 준비 여부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0]의 노후 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청년에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중장년에는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다’, 노년에는 ‘준비를 못하고 있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 안에서 남성의 경우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다’가 47.0%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47.9%)’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중이다’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중장년의 경우 청년에 비해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노년에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의 비중이 다시 증가한 반면, 동시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의 비중도 증가한다.

〈표 III-24〉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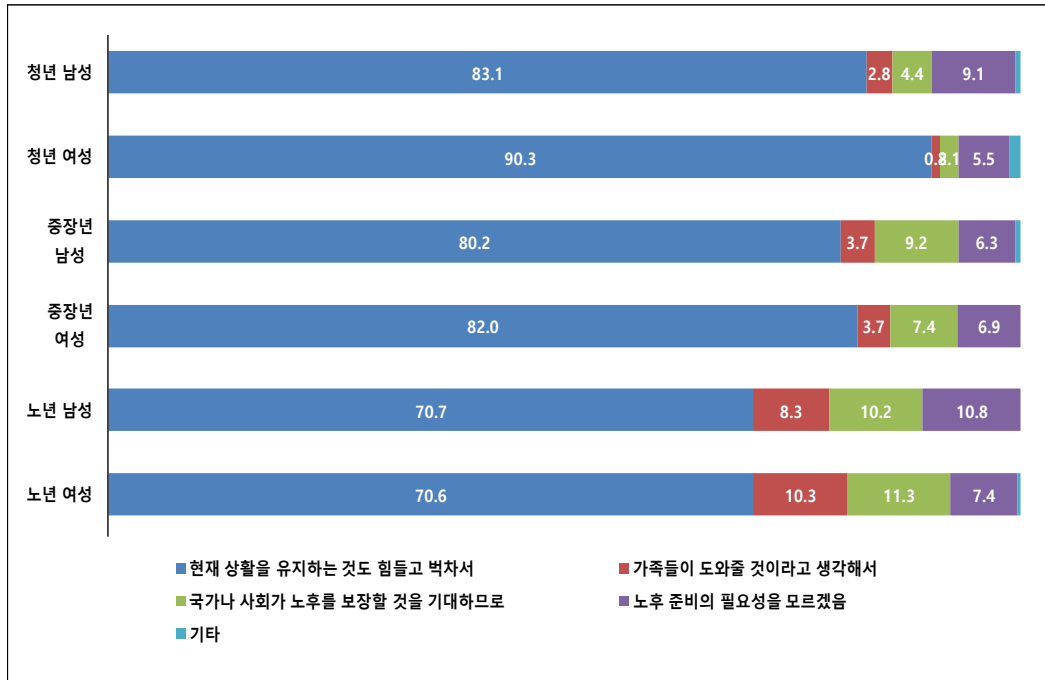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현재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벅차서	79.7	86.1	80.9	70.7	79.5	79.9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모르겠음	7.5	7.6	6.5	8.6	8.2	6.7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므로	7.4	3.4	8.5	10.9	7.5	7.3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4.8	2.0	3.7	9.6	4.2	5.5
아직 젊어서	0.1	0.4	0.0	0.0	0.1	0.1
경제력이 여유롭지 않아서	0.1	0.0	0.4	0.0	0.2	0.0
정부 지원을 받고 있어서	0.1	0.0	0.0	0.2	0.0	0.1
학업 중이라서	0.1	0.2	0.0	0.0	0.1	0.0
취업 전이라서	0.1	0.2	0.0	0.0	0.0	0.1
무응답	0.1	0.2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

[그림 III-41]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대상

[그림 III-41]에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 집단에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벅차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노년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와 ‘국가나 사회가 노후를 보장할 것을 기대하므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3) 주거환경

〈표 Ⅲ-25〉 현재 거주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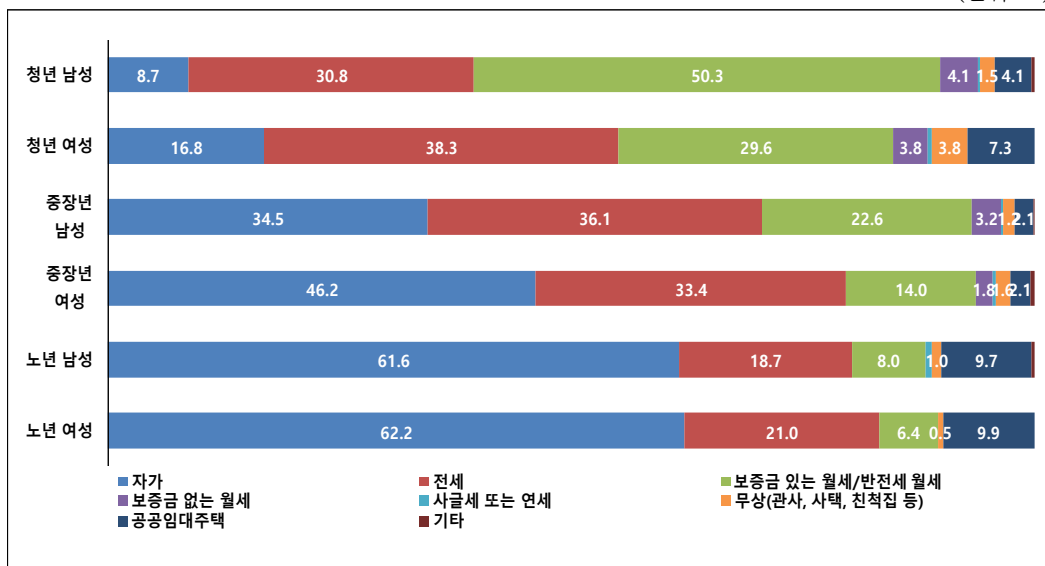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자가	36.1	12.0	39.2	62.0	29.5	43.6
전세	31.0	33.8	35.0	20.2	31.5	30.5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월세	23.5	41.9	19.2	6.9	30.2	15.7
공공임대주택(영구, 공공,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5.0	5.4	2.1	9.8	4.0	6.3
보증금 없는 월세	2.4	3.9	2.6	0.0	3.0	1.7
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	1.5	2.4	1.4	0.7	1.3	1.8
사글세 또는 연세	0.3	0.4	0.3	0.2	0.3	0.2
기타	0.2	0.2	0.3	0.1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Ⅲ-42〉 현재 거주 주택 점유 형태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자가의 비율이 커지고 전세 혹은 월세의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청년과 중장년 안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높고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남성의 8.7%가 자가라고 응답한 반면, 청년 여성은 16.8%가 자가라고 응답했다.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청년 남성은 50.3%, 청년 여성은 29.6%가 응답해 20.7%p의 차이가 나타난다. 중장년에서도 중장년 남성의 34.5%가 자가라고 응답한 반면, 중장년 여성은 46.2%가 자가라고 응답해 11.7%p 차이가 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모든 생애주기 시기에 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노년에서 약 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 매달 지출하는 주거 비용의 부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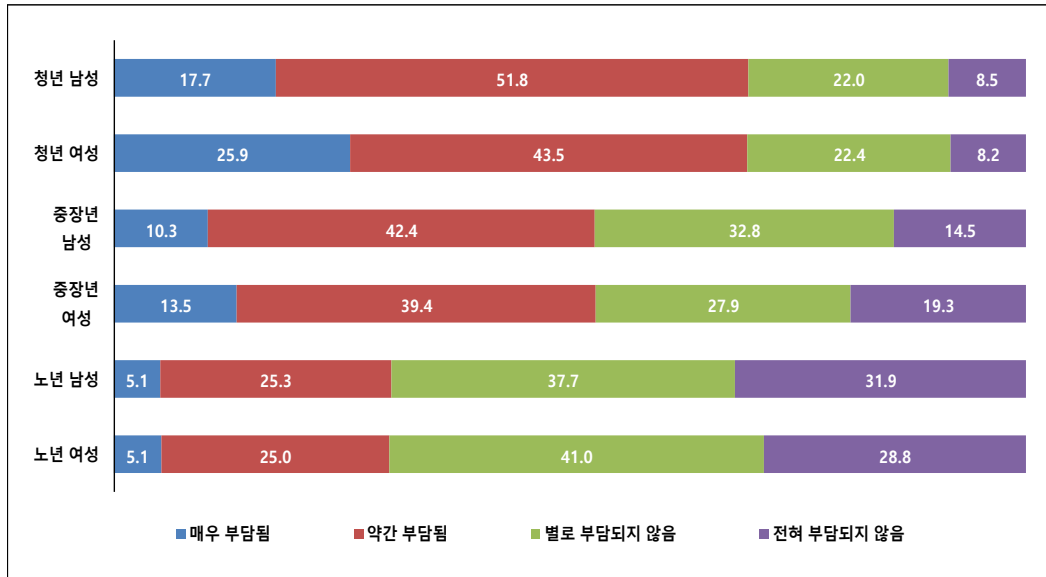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매우 부담됨	13.0	20.9	11.6	5.1	12.2	14.0
약간 부담됨	39.7	48.6	41.2	25.1	43.2	35.6
별로 부담되지 않음	30.2	22.2	30.9	39.9	29.7	30.9
전혀 부담되지 않음	17.0	8.4	16.4	29.8	14.9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3] 매달 지출하는 주거 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주거비용 : 주거 대출 이자, 원금 상환, 월세 등

***자가, 전세, 월세, 연세 거주자 대상 분석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부담된다는 응답(매우 부담됨+약간 부담됨)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청년에서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됨+약간 부담됨)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69.5%, 여성 69.4%로 나타났다. 중장년에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됨+약간 부담됨)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52.7%, 여성 52.9%로 나타나 청년에 비해 응답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0% 이상이 주거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년에는 부담된다(매우 부담됨+약간 부담됨)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30.4%, 여성 30.1%로 나타나 청년과 중장년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주거 점유 형태와 함께 생각해 보면,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자가의 비중이 증가한 것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표 III-27〉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1순위)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32.2	45.8	34.4	10.6	38.1	25.4
거주경험이 있는 지역	20.0	11.4	18.9	33.2	19.0	21.1
교통 편리성	14.6	15.6	15.4	11.9	14.9	14.2
경제성(비용)	12.5	9.2	13.6	15.1	12.8	12.2
주거면적 및 주거환경	6.9	6.4	5.6	9.9	5.6	8.4
부모/자녀/친지와의 거리	5.5	3.6	5.0	9.0	3.6	7.8
치안 및 안전성	3.9	4.7	3.0	4.3	1.9	6.1
여가/문화/교육시설과의 거리	2.9	2.8	3.3	2.1	2.7	3.0
거주 가능 기간	1.4	0.5	0.9	3.5	1.2	1.6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28〉 생애주기별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1순위)

(단위 : %)

	거주경험 이 있는 지역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	부모, 자녀, 친지와의 거리	여가, 문화, 교육시설 과의 거리	교통 편리성	경제성	치안 및 안전성	주거면적 및 주거환경	거주 가능 기간
청년 남성	13.4	47.6	3.8	3.2	15.9	9.5	1.4	4.7	0.8
청년 여성	8.6	43.1	3.3	2.2	15.0	8.8	9.7	8.8	0.2
중장년 남성	18.4	38.2	2.3	2.6	15.3	15.0	2.0	5.4	0.9
중장년 여성	19.6	28.7	9.1	4.4	15.5	11.4	4.6	5.9	0.8
노년 남성	34.3	16.3	7.3	2.1	11.4	13.8	3.1	8.3	3.5
노년 여성	32.8	7.8	9.9	2.1	12.2	15.8	5.0	10.8	3.5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년은 ‘거주 경험이 있는 지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과 중장년에서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청년의 경우 남성이 47.6%, 여성이 43.1%인 반면 중장년의 경우 남성이 38.2%, 여성이 28.7%로 청년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혼자 살게 된 이유’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청년의 경우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직장 또는 학교와의 거리’였기 때문에 거주지 선택에 있어서도 직장이나 학교의 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학교나 직장의 사유보다는 혼인 상태의 변화 등의 이유가 1인 가구 형성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거주지를 선택 요소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혼자 살게 된 이유’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던 만큼, 거주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의 1순위는 동일했지만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모든 생애주기에서 ‘치안 및 안전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표 III-29〉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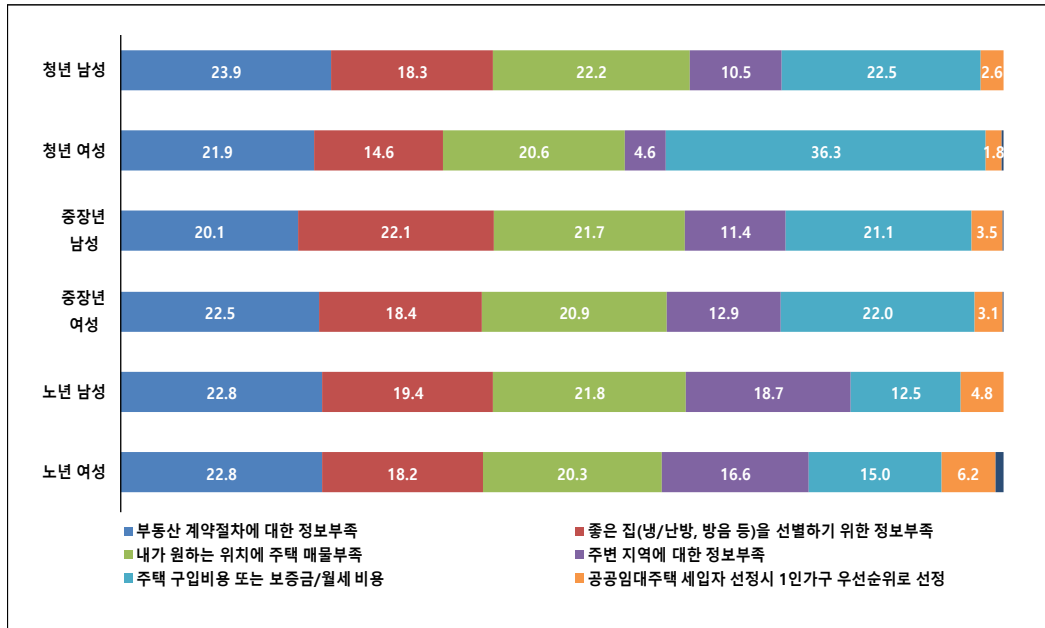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부동산 계약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22.1	23.1	21.1	22.8	21.9	22.4
주택 구입비용 또는 보증금/월세 비용	21.8	28.1	21.5	14.2	20.3	23.5
내가 원하는 위치에 주택 매물부족	21.3	21.6	21.3	20.8	21.9	20.6
좋은 집(냉/난방, 방음 등)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부족	18.9	16.8	20.6	18.6	20.3	17.3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부족	12.1	8.1	12.0	17.3	12.2	11.9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선정시 1인가구 우선 순위로 선정	3.6	2.2	3.3	5.7	3.4	3.8
없다	0.1	0.0	0.1	0.2	0.1	0.2
무응답	0.1	0.0	0.0	0.4	0.0	0.2
신뢰성	0.0	0.1	0.0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4]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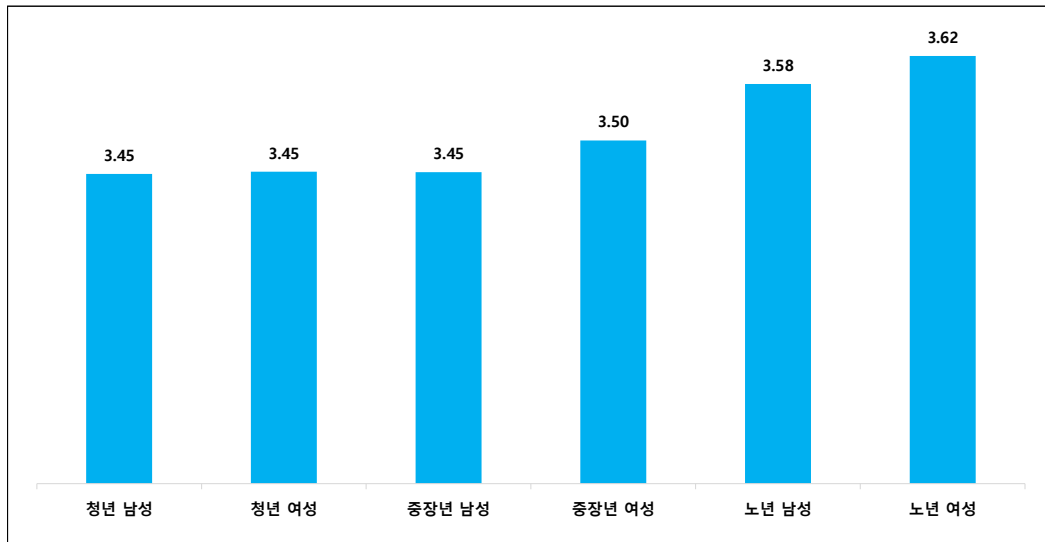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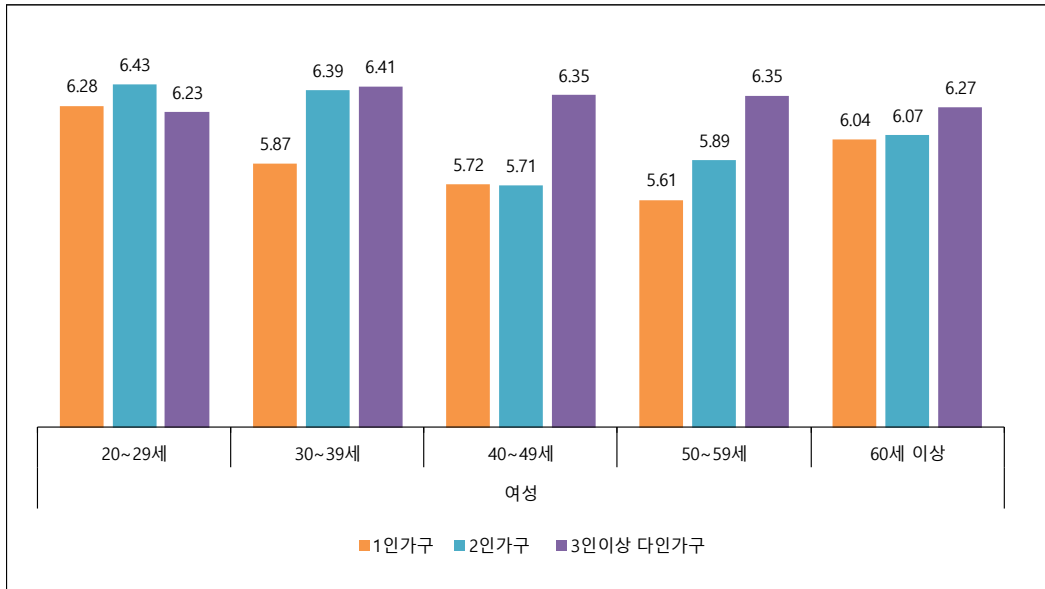
[그림 III-45]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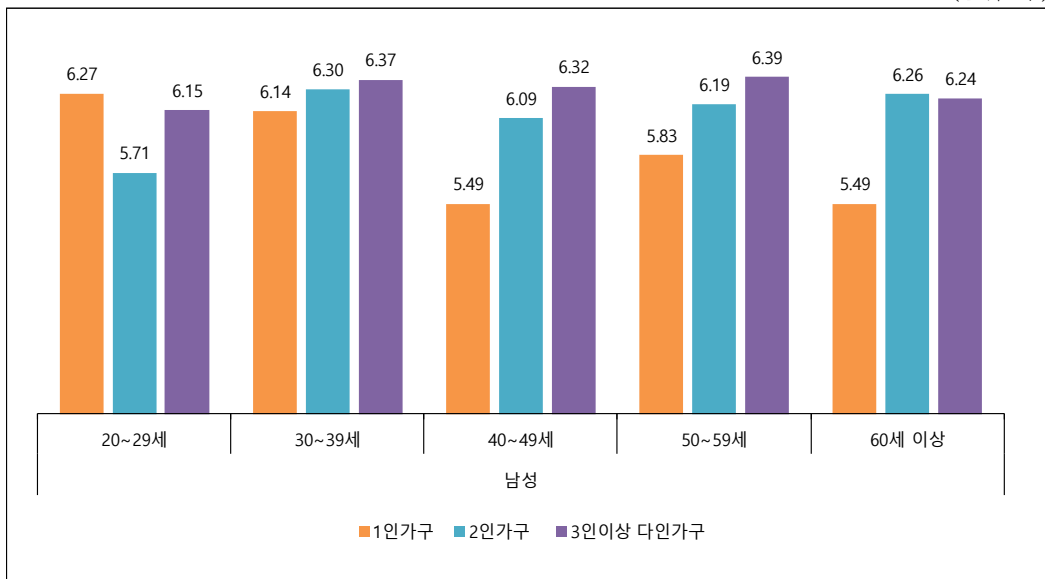
[그림 III-46]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 여성(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그림 III-47]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 남성(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그림 III-45]에서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노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청년과 중장년은 3.45-3.5점 사이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인다.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항목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에 여성의 경우 1인 가구의 만족도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에서도 2인 가구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사실상 여성 1인 가구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2인 가구나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1인 가구의 만족도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2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 III-30〉 거주지 불만사항(1순위)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특별히 없다	38.6	23.7	39.4	56.6	39.0	38.1
주거 비용 부담	14.3	19.4	13.6	9.1	15.4	13.2
열악한 주거 시설(방음, 채광, 냉난방, 환기 등)	13.6	18.2	13.6	7.5	13.4	13.8
편의시설(상가, 마트, 의료기관 등) 부족	8.3	8.1	8.1	8.7	9.1	7.3
불편한 주변 환경(쓰레기,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7.7	8.9	7.8	5.8	7.3	8.2
교통 불편	7.1	11.4	5.8	3.6	6.5	7.8
문화, 여가, 스포츠 시설(도서관, 체육관, 문화원, 공연장 등) 부족	5.6	5.1	6.4	4.8	5.8	5.3
치안문제(밤길불안 및 절도, 갈취, 강도 등)	2.9	2.4	3.3	2.7	2.2	3.7
동사무소(읍면) 등 공공서 접근성 낮음	1.3	1.4	1.2	1.2	1.0	1.5
기타	0.7	1.2	0.8	0.0	0.4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거주지에 대한 불만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불만사항이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여성에서는 ‘열악한 주거 시설’이 2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살펴본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에서 노년기의 만족도가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높게 나타난 만큼 노년에서는 거주지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 ‘특별히 없다’는 응답이 약 55% 내외로 나타났다.

‘특별히 없음’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청년 남성은 ‘주거 비용 부담’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 남성에서는 ‘열악한 주거 시설’이 14.0%, 중장년 여성에서는 ‘주거 비용 부담’이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 남성에서는 ‘편의 시설 부족’이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년 여성은 ‘주거 비용 부담’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 생애주기별 거주지 불만 사항(1순위)

(단위 : %)

	교통 불편	주거 비용 부담	열악한 주거 시설	불편한 주변 환경	치안 문제	편의시설(상가, 마트, 의료기관 등) 부족	문화, 여가, 스포츠 시설 부족	동사무소 등 공공서 접근성 낮음	기타	특별히 없음
청년 남성	9.5	20.1	14.6	7.8	2.3	9.0	4.7	1.2	0.9	30.0
청년 여성	14.4	18.4	23.7	10.6	2.7	6.9	5.8	1.8	1.5	14.4
중장년 남성	5.4	13.5	14.0	7.4	2.0	8.6	7.0	1.1	0.1	40.9
중장년 여성	6.5	13.7	13.1	8.3	5.4	7.3	5.4	1.3	1.8	37.2
노년 남성	3.1	10.4	9.0	5.5	2.8	10.7	4.5	0.3	0.0	53.6
노년 여성	3.9	8.5	6.7	6.0	2.7	7.6	4.9	1.6	0.0	58.1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32〉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택 관련 자원(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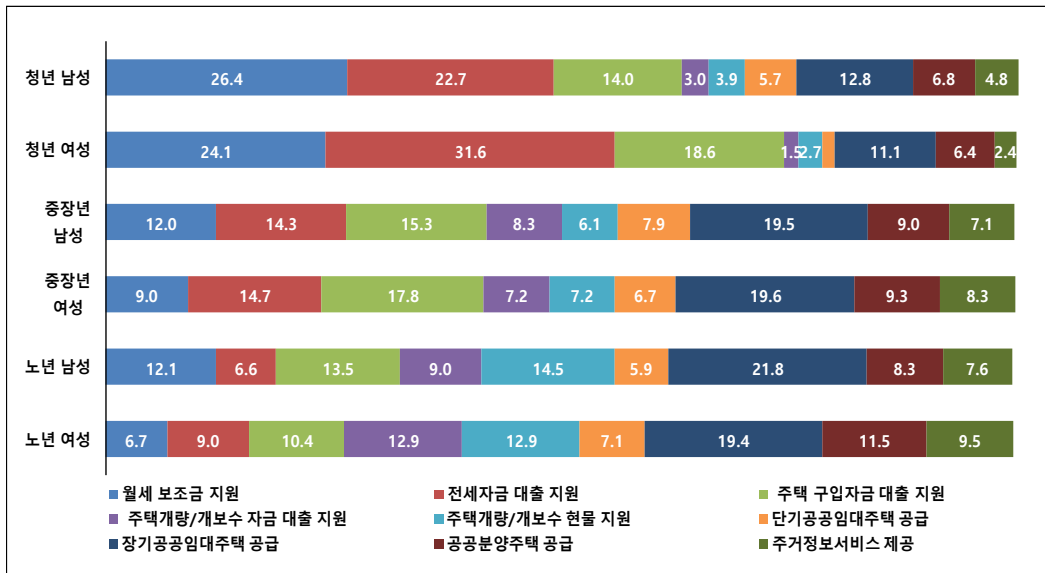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17.3	12.1	19.5	20.2	17.4	17.2
전세자금 대출 지원	16.7	26.3	14.5	8.2	16.1	17.4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15.0	15.8	16.3	11.5	14.6	15.5
월세 보조금 지원	14.9	25.5	10.8	8.5	17.2	12.4
공공분양주택 공급	8.6	6.6	9.1	10.4	8.1	9.3
주택개량/개보수 현물 지원	7.2	3.4	6.5	13.5	6.6	7.9
주택개량/개보수 자금 대출 지원	7.0	2.4	7.9	11.6	6.5	7.6
주거정보서비스 제공	6.7	3.8	7.6	8.9	6.4	7.1
단기공공임대주택 공급	6.1	3.9	7.4	6.7	6.8	5.3
없다	0.3	0.0	0.3	0.6	0.3	0.2
기타	0.1	0.1	0.1	0.0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8〕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택 관련 자원(1순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기타 응답 제외

1인 가구를 위해 필요한 주택 관련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에서는 남성은 월세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2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여성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에서는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남성 19.5%, 여성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년에서는 중장년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가 남성 21.8%, 여성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며 '주택개량/개보수 자금 대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동시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도 다른 생애주기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3〉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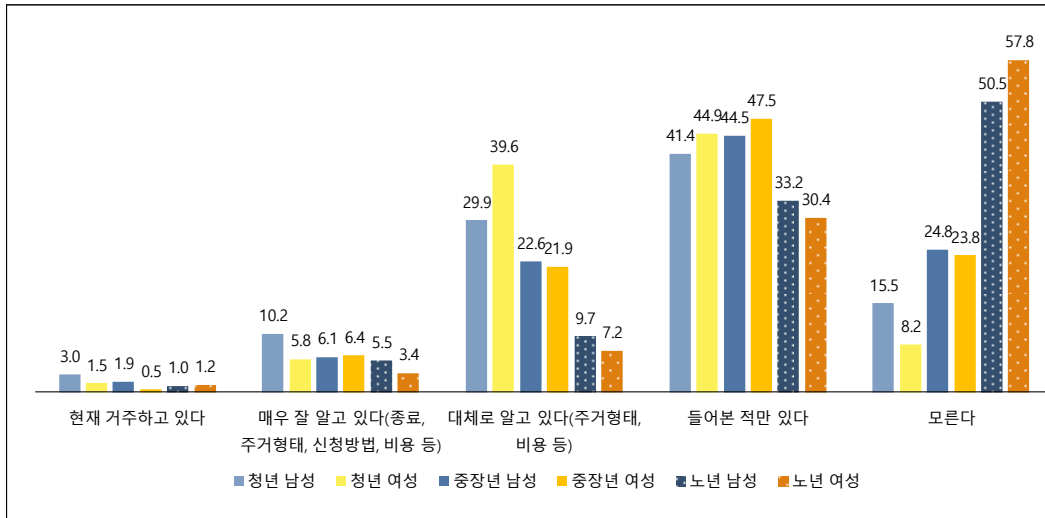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현재 거주하고 있다	1.6	2.4	1.3	1.2	2.1	1.0
매우 잘 알고 있다(종류, 주거형태, 신청방법, 비용 등)	6.4	8.4	6.2	4.1	7.5	5.2
대체로 알고 있다(주거형태, 비용 등)	22.5	33.8	22.3	8.1	23.2	21.7
들어본 적만 있다	41.3	42.8	45.7	31.3	41.7	40.8
모른다	28.2	12.5	24.4	55.3	25.5	3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49]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공유주택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은 ‘들어본 적만 있다’의 비율이 가장 높고, 노년에서는 ‘모른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청년의 경우 중장년에 비해 ‘대체로 알고 있다’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청년 여성의 39.6%가 ‘대체로 알고 있다’라고 응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 남성의 경우 10.2%가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다는 응답도 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34〉 공유주택 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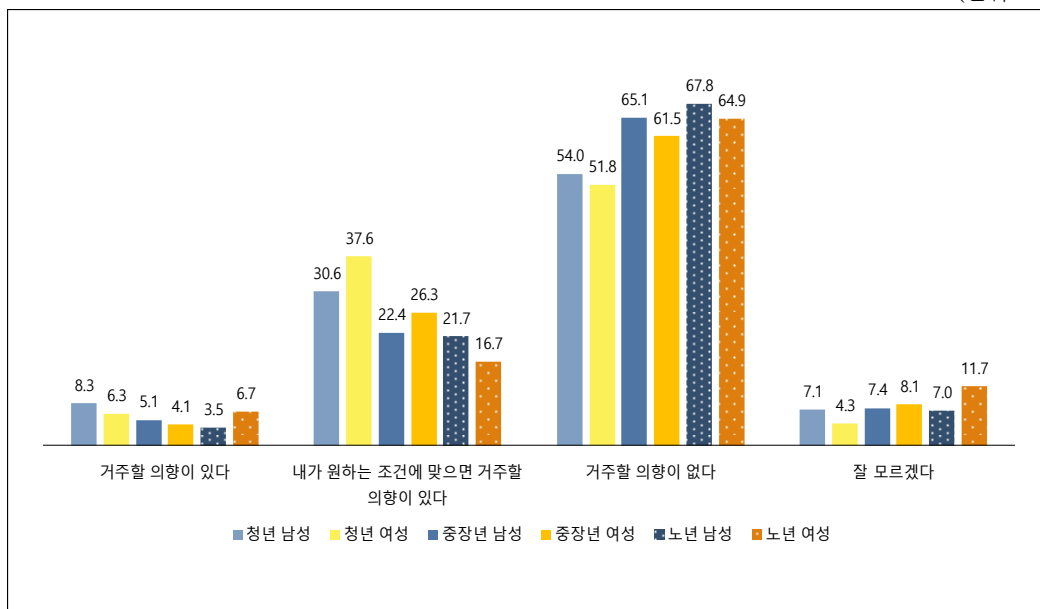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거주할 의향이 있다	5.9	7.5	4.7	5.5	6.2	5.4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거주할 의향이 있다	26.9	33.5	24.0	18.6	25.6	28.5
거주할 의향이 없다	59.9	53.1	63.6	66.0	60.9	58.6
잘 모르겠다	7.4	5.9	7.7	9.9	7.3	7.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0] 공유주택 거주 의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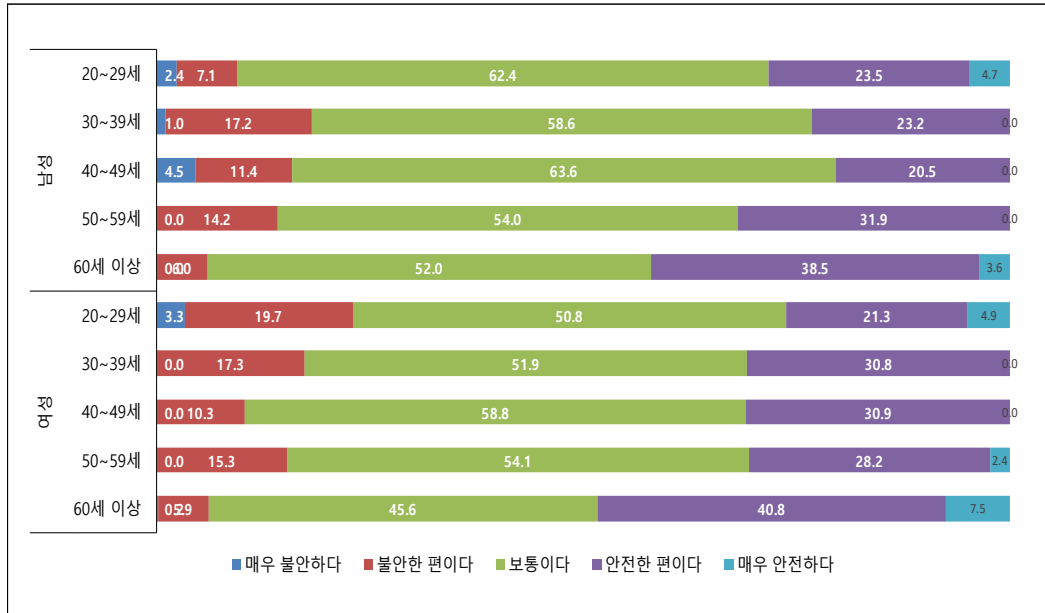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공유주택 거주 의향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거주할 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과 노년에는 60% 이상, 청년에서는 50% 이상이 거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공유주택 거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거주할 의향이 있다+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으면 거주할 의향이 있다)한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 여성의 43.9%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로 청년 남성 38.9%, 중년 여성 30.4%, 중년 남성 27.5%, 노년 남성 25.2%, 노년 여성 23.4% 순으로 나타난다.

4) 안전 환경

[그림 III-5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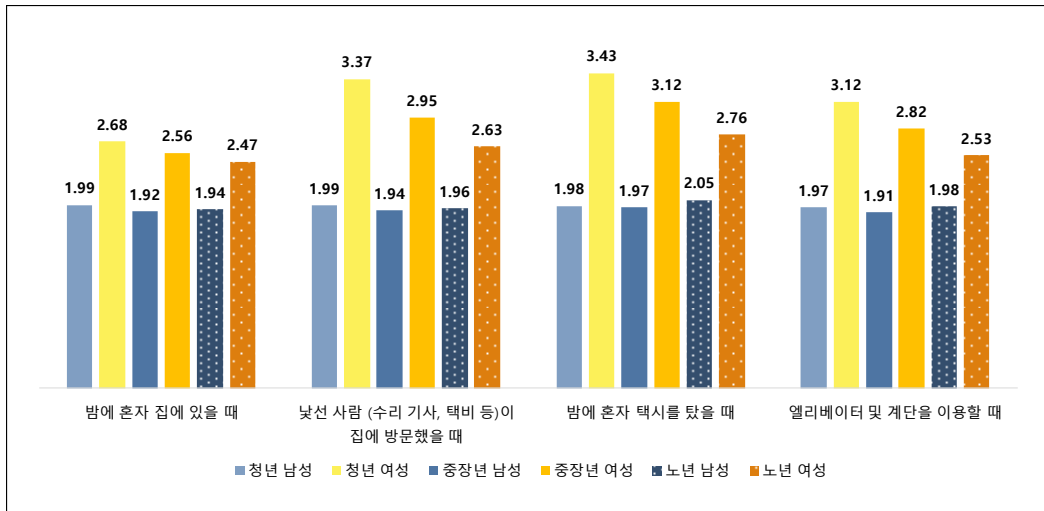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안전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과 남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매우 불안하다+불안한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여성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남성 18.2%, 30대 여성 17.3%, 40대 남성 15.9% 순으로 나타난다. 60대 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여성의 48.3%가 안전하다(안전한 편이다+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52] 안전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높을수록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

[그림 III-52]의 안전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 대해 청년 여성이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밤에 혼자 택시를 탔을 때’에 대한 응답이 3.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 생애주기 내의 청년 남성의 1.98점과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생애주기 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려움 정도가 높게 나타나 성별 간 안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5〉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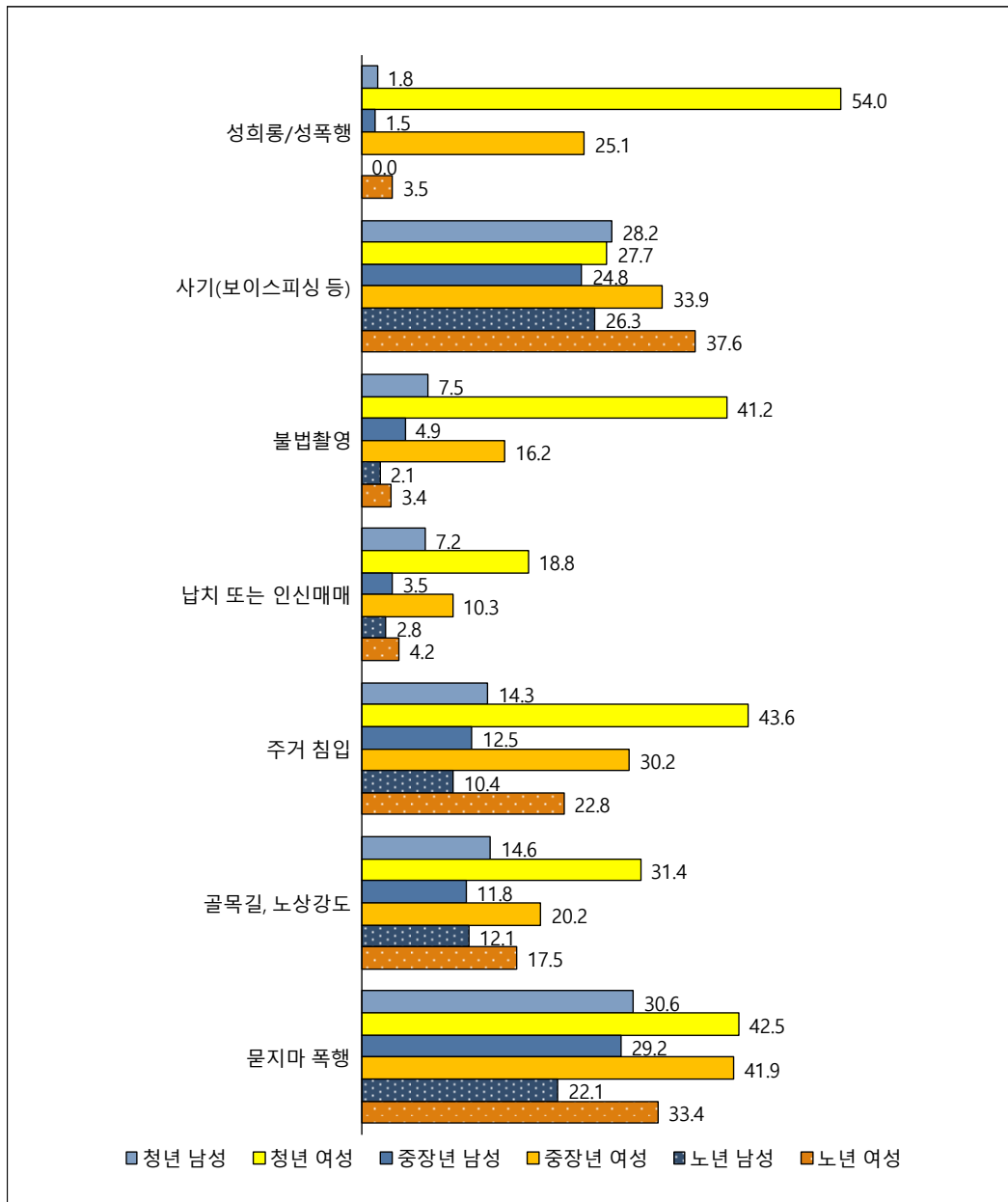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문지마 폭행	33.5	35.4	34.3	29.6	28.6	39.1
사기(보이스피싱 등)	29.6	28.0	28.5	33.8	26.3	33.5
주거 침입	21.4	26.1	19.6	18.6	12.8	31.3
골목길, 노상강도	17.3	21.4	15.2	15.7	12.8	22.4
성희롱/성폭행	12.7	22.9	11.0	2.3	1.4	25.6
불법촬영	11.6	21.1	9.4	2.9	5.4	18.6
납치 또는 인신매매	7.4	11.9	6.2	3.7	4.7	10.5
절도	0.0	0.0	0.1	0.0	0.0	0.1
없음	36.6	30.9	38.8	40.1	46.9	24.8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3]의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문지마 폭행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성희롱/성폭행, 불법촬영, 주거침입, 문지마 폭행 등에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청년 여성의 경우 사기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성폭행은 54.0%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중장년 여성의 25.1%의 두 배 이상의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불법 촬영의 경우에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중장년 여성이 16.2%이며, 다른 집단에서는 10% 미만의 응답을 보인 반면, 청년 여성은 41.2%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낮게 응답한 ‘납치 또는 인신매매’의 경우에도 18.8%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년에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그림 III-53] 자신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유형(중복응답)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36〉 안전을 위해 하는 노력(중복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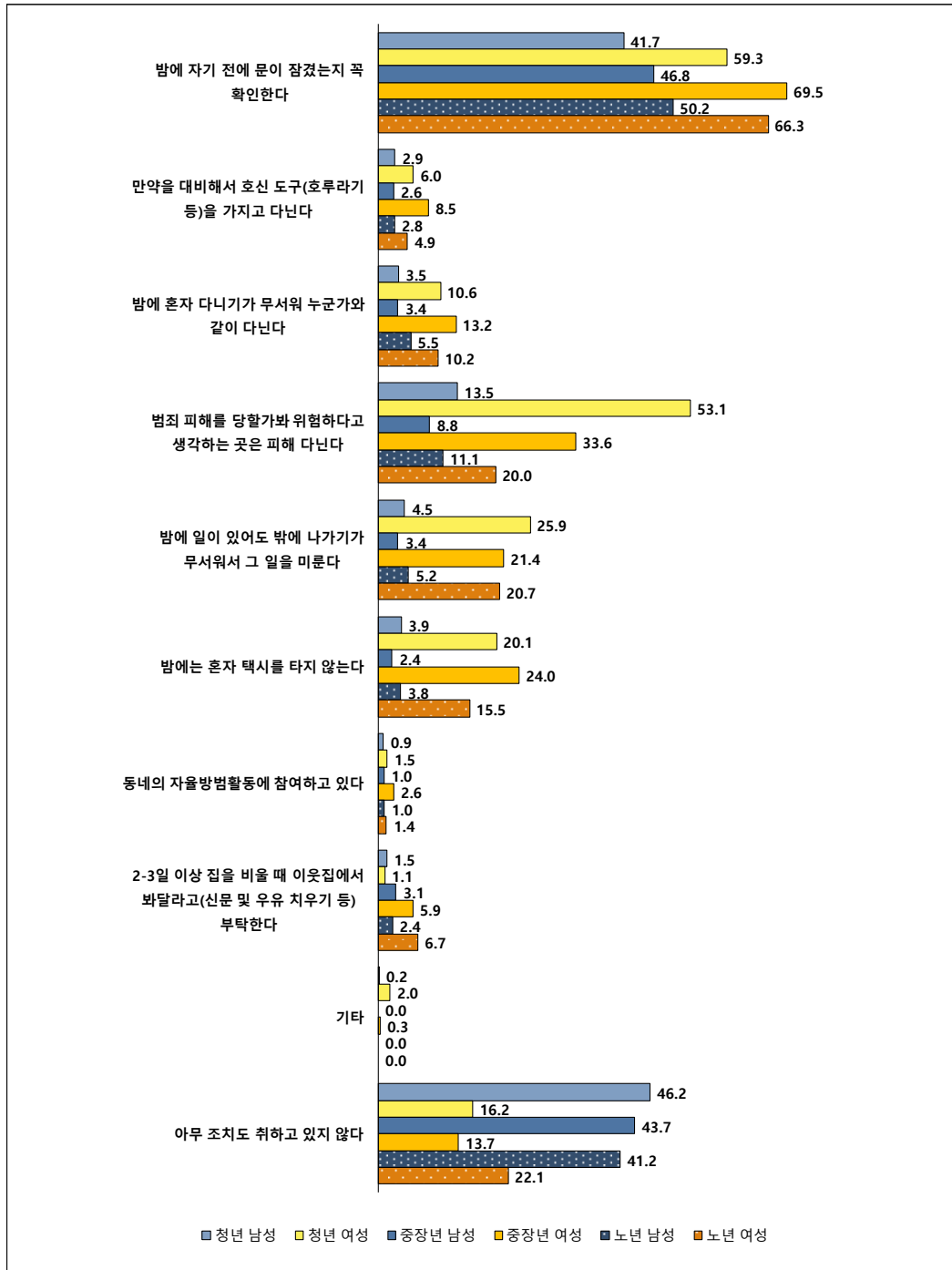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54.9	48.8	55.9	60.8	45.5	65.5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21.7	29.5	18.7	17.0	10.8	34.3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12.6	13.1	10.6	15.4	4.1	22.4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11.0	10.5	11.1	11.6	3.2	20.0
밤에 혼자 다니니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7.3	6.4	7.3	8.7	3.7	11.5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4.5	4.1	5.0	4.2	2.7	6.6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서 봐달라고(신문 및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3.5	1.3	4.2	5.3	2.4	4.8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4	1.2	1.6	1.3	1.0	1.9
기타	0.3	0.9	0.1	0.0	0.1	0.7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31.7	34.1	31.6	28.5	44.2	17.3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4]의 안전을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한 응답에서도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이외의 다른 조치에는 비율이 낮게 나왔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와 더불어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에서 남성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응답 비율 자체는 낮게 나왔으나 대부분의 조치 항목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림 III-54] 안전을 위해 하는 노력(중복응답)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37〉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안전 정책 인식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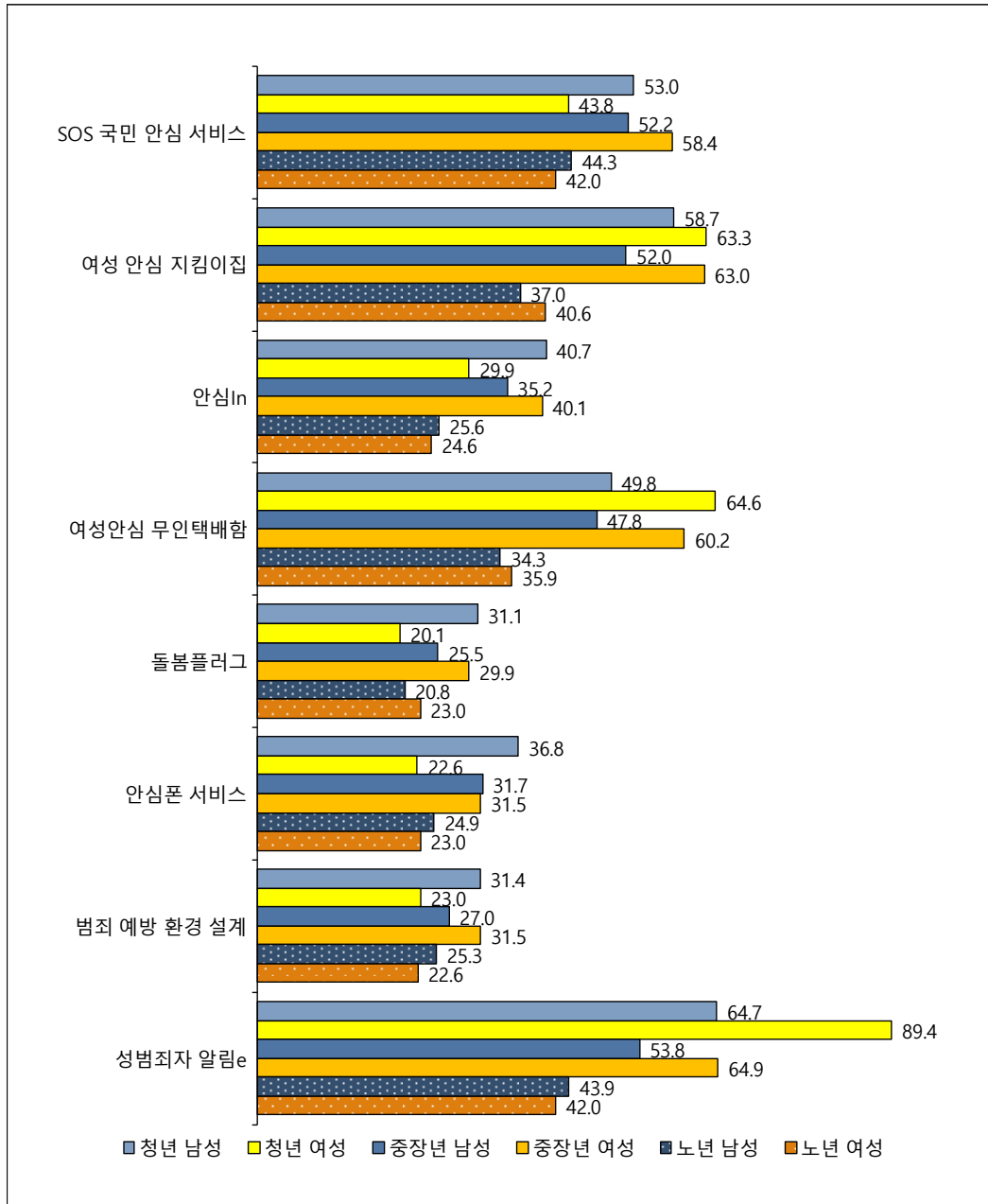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SOS 국민안심서비스	50.1	49.3	54.7	42.8	51.3	48.7
여성안심지킴이집	53.6	60.6	56.4	39.4	52.1	55.3
안심in(안심앱)	33.9	36.3	37.2	24.9	35.7	31.9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49.5	55.8	52.8	35.3	46.4	53.0
돌봄플러그	25.8	26.7	27.2	22.2	26.8	24.8
안심폰 서비스	29.5	31.0	31.6	23.6	32.5	26.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27.3	28.0	28.8	23.5	28.3	26.1
성범죄자 알림e	59.7	74.7	58.3	42.7	56.2	63.8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5]의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안전 정책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89.4%가 ‘성범죄자 알림e’를 알고 있다고 응답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과 ‘여성 안심 지킴이집’처럼 안전 정책 이름에 ‘여성’이 들어간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의 인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돌봄플러그’, ‘안심폰 서비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경우 모든 집단에서 인식률이 높지 않아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년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 집단에 비해 정책에 대한 인지율이 낮으므로 노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III-55] 인천광역시 1인 가구 안전 정책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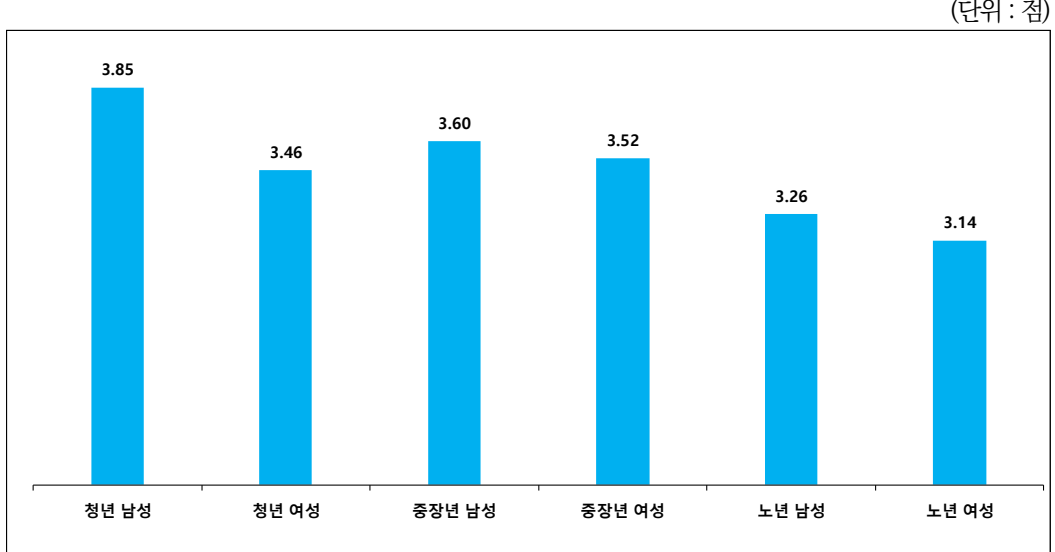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5) 건강상태

[그림 III-56] 신체적 건강 상태 정도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음

스스로 평가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이 3.85점으로 가장 높고, 중장년 남성 3.60점, 중장년 여성 3.52점, 청년 여성 3.46점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57]에서 음주 정도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거의) 마시지 않는다’의 응답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월 1~2회’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거의) 마시지 않는다’의 비중이 증가하며, 남성의 경우 ‘주 1~2회’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III-58]의 흡연 여부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음주 여부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청년 여성의 71.0%, 중장년 여성 83.0%, 노년 여성 93.1%가 ‘피우지 않는다(피워 본 적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와 ‘현재 피우고 있다’의 비중은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계속 감소한다. 남성의 경우 ‘현재 피우고 있다’의 비율이 청년 남성 39.6%, 중장년 남성 43.9%로 비율이 증가했다가 노년 남성은 26.0%로 다시 비율이 감소한다.

〈표 Ⅲ-38〉 음주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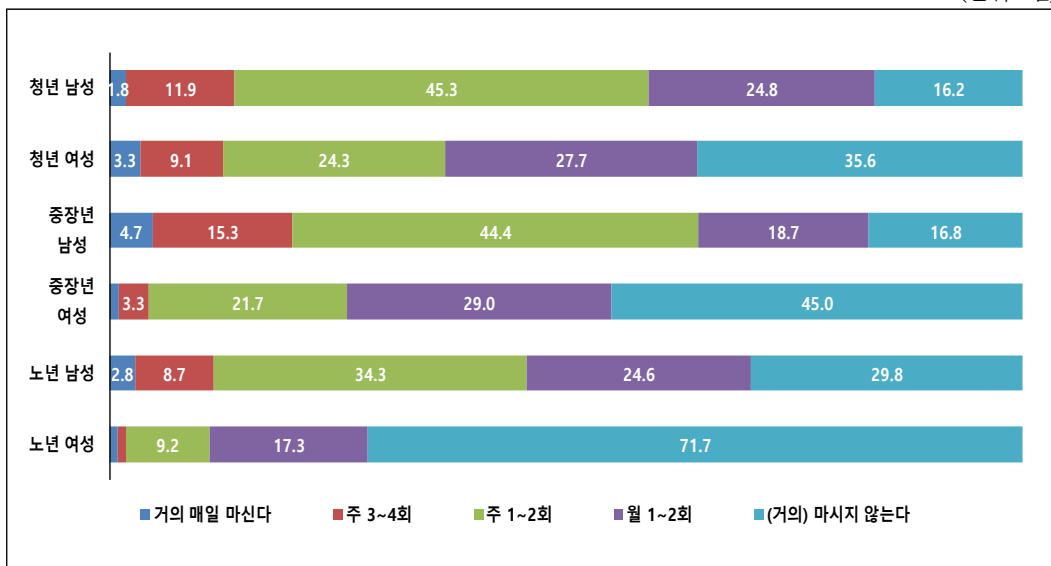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거의 매일 마신다	2.5	2.4	3.2	1.5	3.4	1.6
주 3~4회	8.9	10.7	10.5	3.5	13.1	4.0
주 1~2회	31.5	36.9	35.3	17.7	43.2	18.1
월 1~2회	23.1	25.9	22.9	19.8	21.8	24.6
(거의) 마시지 않는다	34.0	24.1	28.2	57.5	18.6	5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Ⅲ-57] 음주 정도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39〉 흡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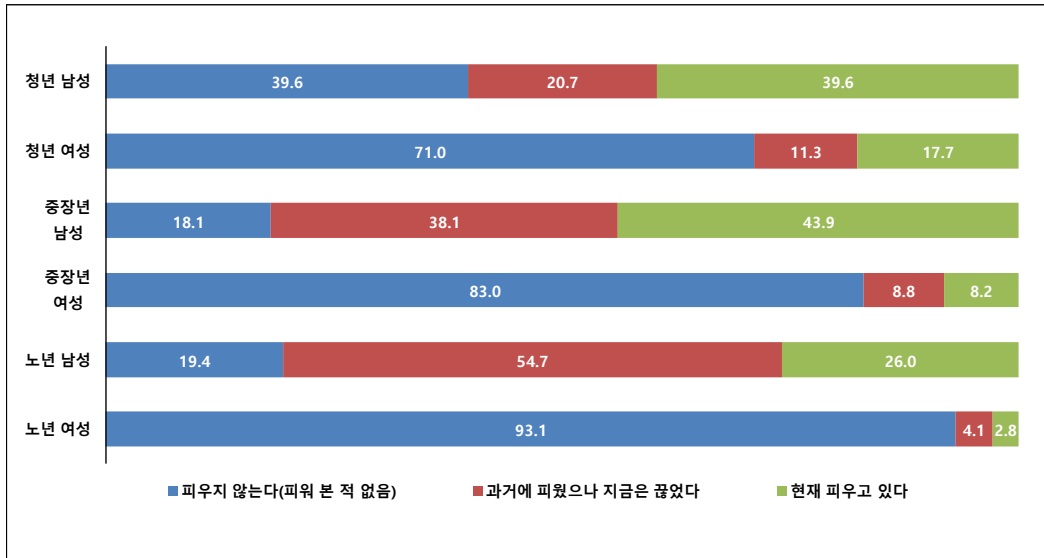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피우지 않는다(피워 본 적 없음)	52.6	52.3	44.1	68.2	25.9	83.2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22.1	16.9	26.3	21.2	34.5	7.8
현재 피우고 있다	25.3	30.8	29.5	10.6	39.6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8] 흡연 여부

(단위 : 점)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40〉 하루 15분 이상의 운동 여부 및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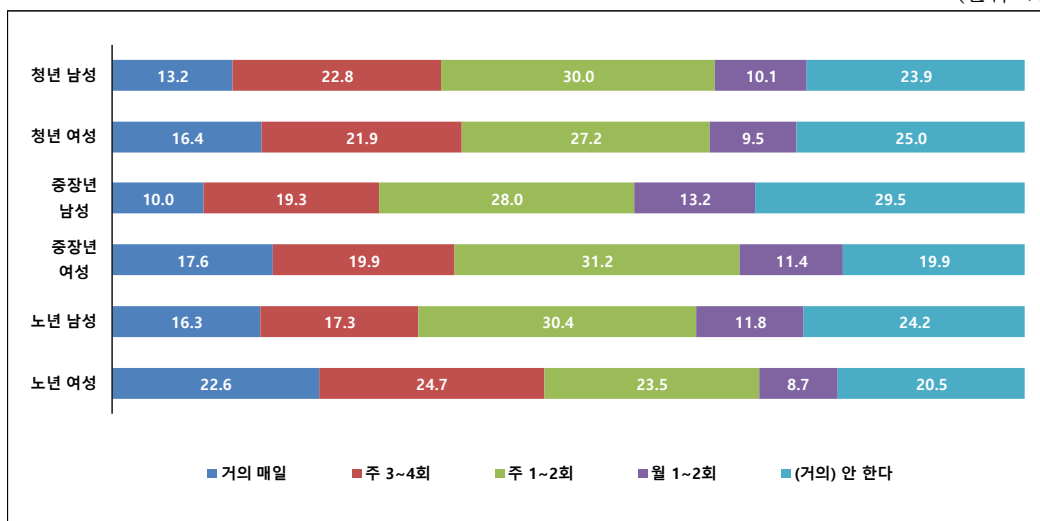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거의 매일	15.3	14.5	13.0	20.5	12.1	19.0
주 3~4회	21.1	22.5	19.5	22.2	20.2	22.1
주 1~2회	28.3	28.9	29.3	25.8	29.1	27.4
월 1~2회	11.0	9.8	12.5	9.7	11.9	9.9
(거의) 안 한다	24.3	24.3	25.7	21.8	26.7	2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59] 하루 15분 이상의 운동 여부 및 빈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하루 15분 이상의 운동 여부 및 빈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가 지남에 따라 운동의 빈도수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동일 생애주기 내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운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1〉 아플 때 알려거나 의논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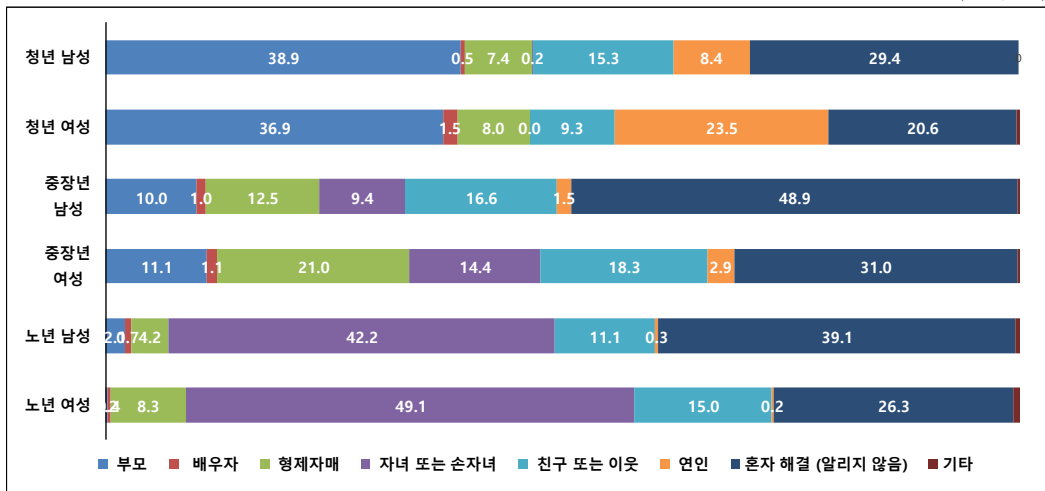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혼자 해결 (알리지 않음)	33.9	25.8	41.7	30.6	40.4	26.5
부모	16.9	38.1	10.4	0.8	19.0	14.5
자녀 또는 손자녀	16.4	0.1	11.4	46.8	11.2	22.4
친구 또는 이웃	15.0	12.9	17.3	13.7	15.3	14.7
형제자매	11.1	7.6	15.9	6.9	9.4	13.0
연인	5.6	14.5	2.1	0.2	3.8	7.7
배우자	0.9	0.9	1.0	0.5	0.7	1.0
기타	0.2	0.1	0.1	0.5	0.1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0〕 아플 때 알려거나 의논하는 사람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0〕에서 아플 때 알려거나 의논하는 사람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부모’의 빈도가 남성 38.9%, 여성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의 경우 ‘혼자 해결 (알리지 않음)’의 비율이 남성 48.9%, 여성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의 경우 ‘자녀 또는 손자녀’의 비율이 남성 42.2%, 여성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2〉 건강검진 여부 (최근 2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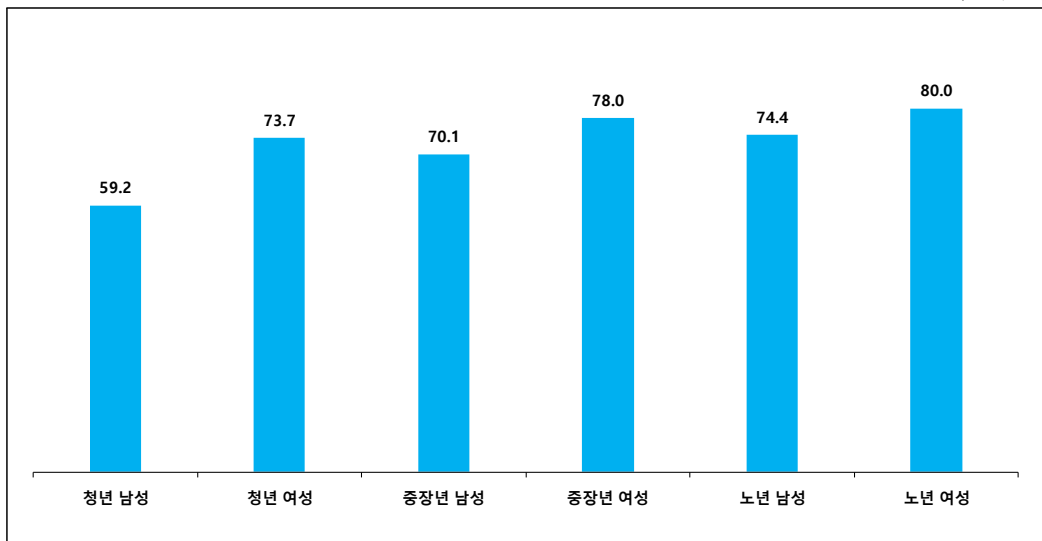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예	71.8	65.0	73.3	78.1	66.9	77.5
아니오	28.2	35.0	26.7	21.9	33.1	2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Ⅲ-61] 건강검진 여부 (최근 2년 내)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건강검진 : 일반검진, 국가검진 등

최근 2년 내 건강검진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응답 집단에
서 70%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노년 여성은 80%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같은 생애주기 안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3〉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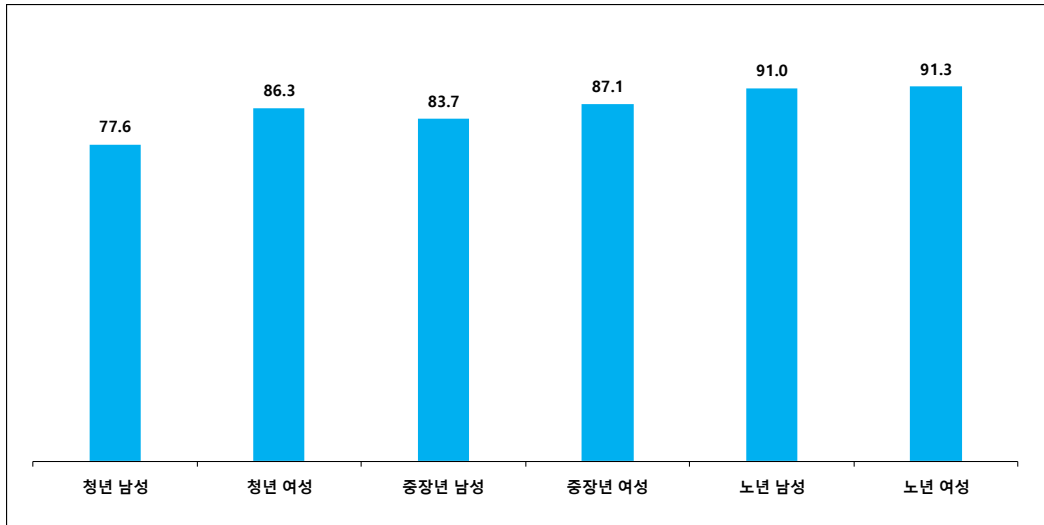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예	85.3	81.1	85.1	91.2	82.7	88.4
아니오	14.7	18.9	14.9	8.8	17.3	1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2] 예방접종 여부 (최근 1년 내)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예방접종 : 독감, A형 간염, 대상포진, 코로나백신 등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 남성을 제외한 모든 응답 집단에서 80% 이상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노년 여성이 91.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같은 생애주기 안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4〉 식생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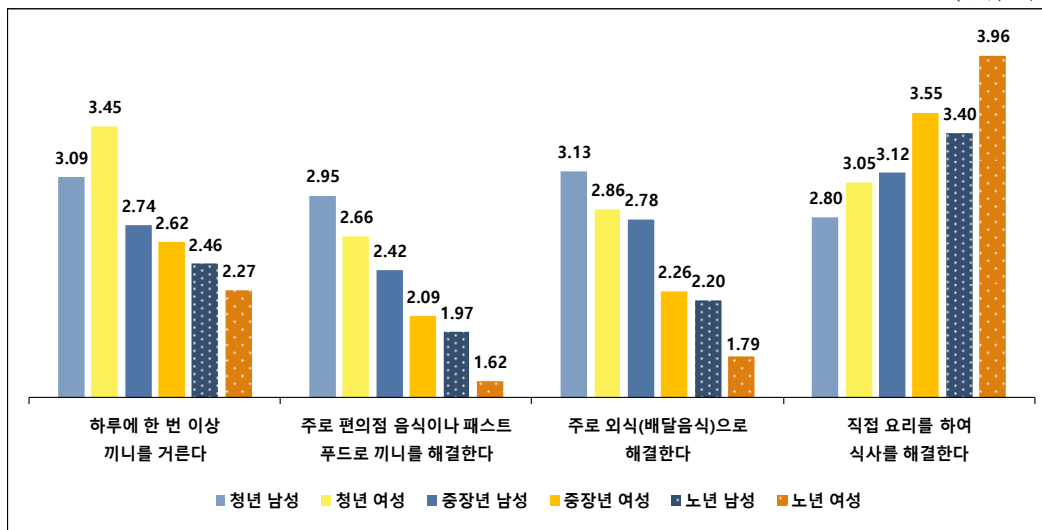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른다	32.4	48.6	29.7	16.3	33.3	31.4
주로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해결한다	14.8	28.7	11.3	2.7	18.8	10.1
주로 외식(배달음식)으로 해결한다	21.1	36.4	18.8	5.0	27.8	13.3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한다	45.1	26.9	44.3	70.5	32.0	60.1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3] 식생활 형태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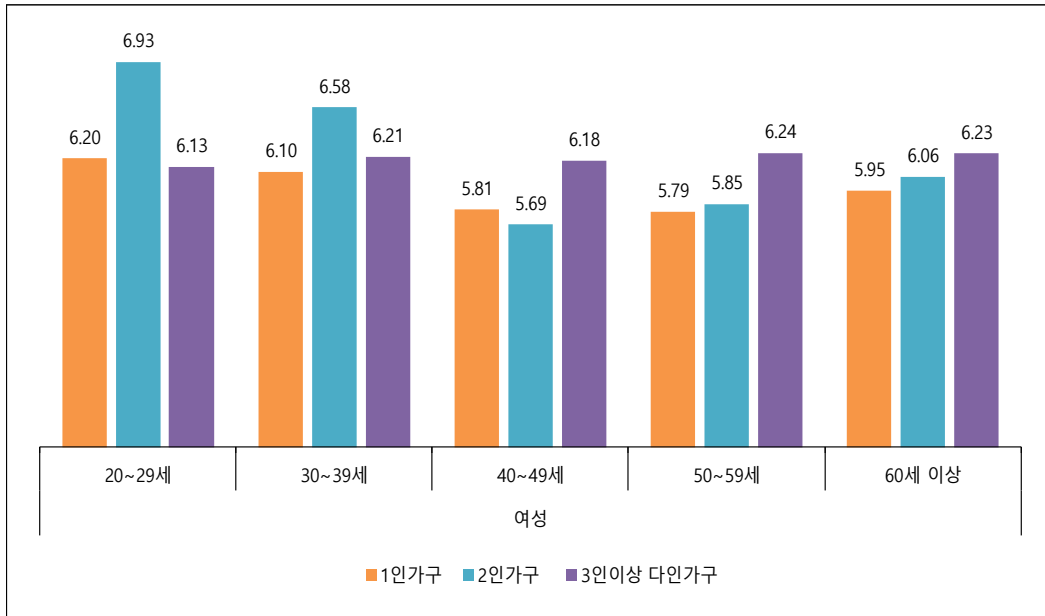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음

식생활 형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식생활 형태에 차이를 보인다. 청년의 경우, 직접 음식을 해 먹기보다는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편의점, 패스트푸드, 외식 등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으며, 노년에는 직접 요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청년 여성의 경우 ‘하루에 한 번 이상 끼니를 거른다’는 응답이 3.45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64]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여성 (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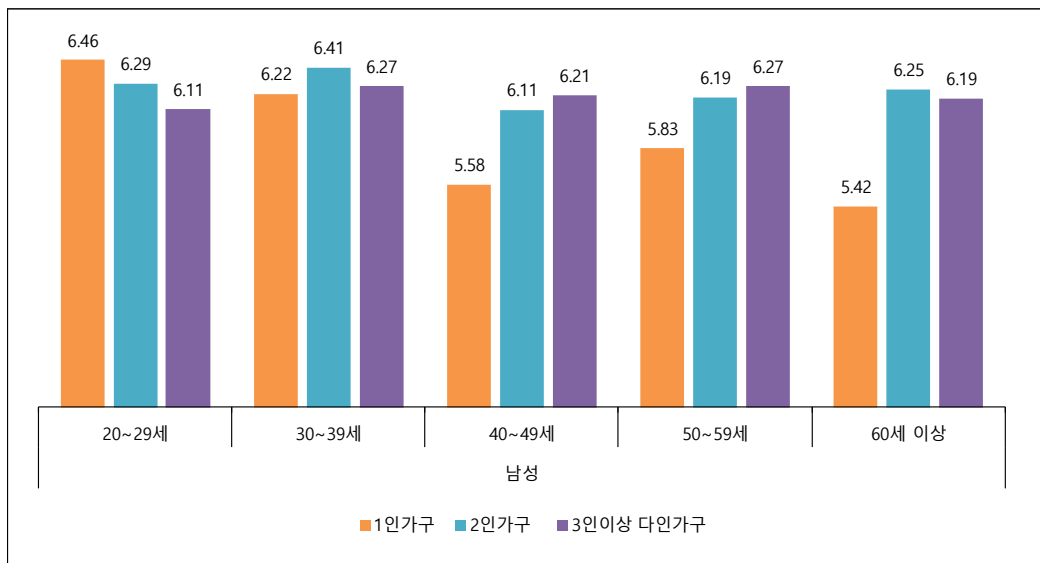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의 경우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0점으로 2인 가구(6.9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3인 이상 다인가구(6.13점)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10점으로 2인 가구와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40대에서는 5.81점으로 2인 가구(5.69점)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다인 가구(6.18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난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가구 구성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그림 III-65]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 남성 (2인가구 및 다인가구 비교, 2021)

(단위 : 점)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남성의 경우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20대와 30대에서 비교적 높게 유지되나 40대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인 가구와 다인 가구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동일 연령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1인 가구 삶의 만족도는 20대와 30대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0대 이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60대 이상에서는 여성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45〉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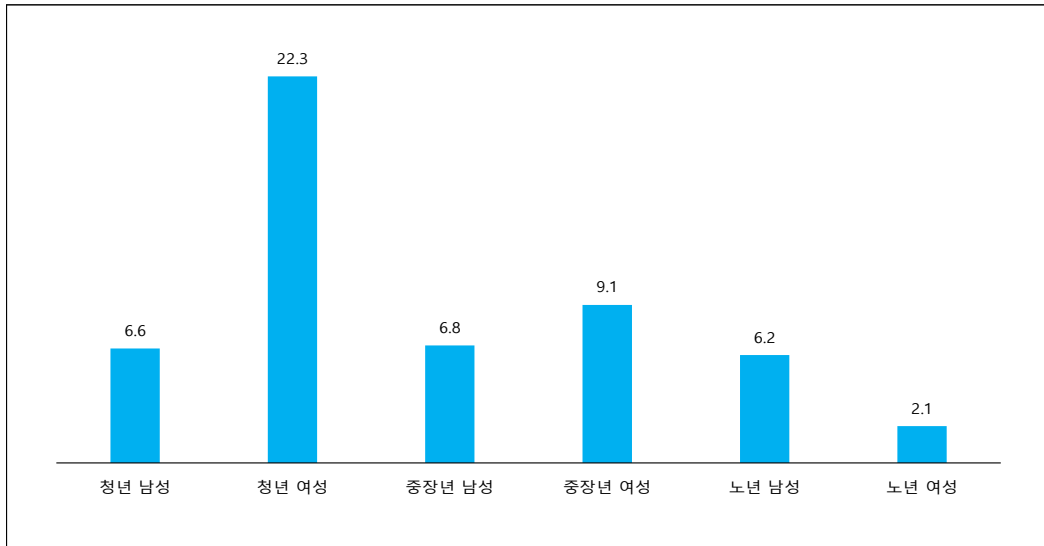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있다	8.4	13.0	7.7	3.5	6.6	10.4
없다	91.6	87.0	92.3	96.5	93.4	8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6]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을 살펴보면, 청년 여성이 22.3%로 다른 집단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높은 중장년 여성(9.1%)과 비교해도 13.2%p 차이가 나며, 가장 낮게 나온 노년 여성과 비교했을 때는 20.2%p 차이가 확인된다.

[그림 III-67]에서 자살을 생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앞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청년 여성의 경우 '외로움/고독'이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과적 문제'가 38.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 남성과 노년 남성, 노년 여성에서는 '외로움/고독'이 다른 이유에 비해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장년 여성에서는 청년 여성과 비슷하게 '외로움/고독'과 '정신과적 문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자살을 생각한 이유 (1순위+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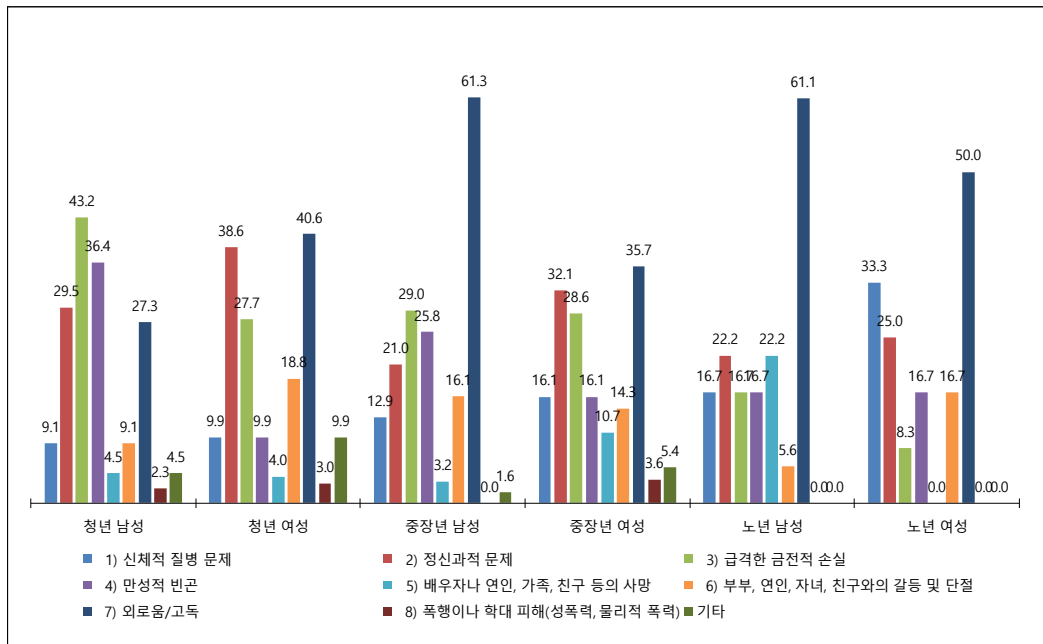
(단위 : %)

	전체	연령별			성별	
		청년	중장년	노년	남성	여성
외로움/고독	43.7	36.6	49.2	56.7	49.2	39.6
정신과적 문제	30.7	35.9	26.3	23.3	24.2	35.5
급격한 금전적 손실	29.0	32.4	28.8	13.3	32.3	26.6
만성적 빈곤	19.1	17.9	21.2	16.7	28.2	12.4
부부, 연인, 자녀, 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15.0	15.9	15.3	10.0	12.1	17.2
신체적 질병 문제	13.0	9.7	14.4	23.3	12.1	13.6
배우자나 연인, 가족, 친구 등의 사망	6.1	4.1	6.8	13.3	6.5	5.9
폭행이나 학대 피해(성폭력, 물리적 폭력)	2.0	2.8	1.7	0.0	0.8	3.0
기타	5.5	8.3	3.4	0.0	2.4	7.7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그림 III-67〉 자살을 생각한 이유 (1순위+2순위)

(단위 : %)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표 III-47〉 평소 태도와 감정에 대한 정도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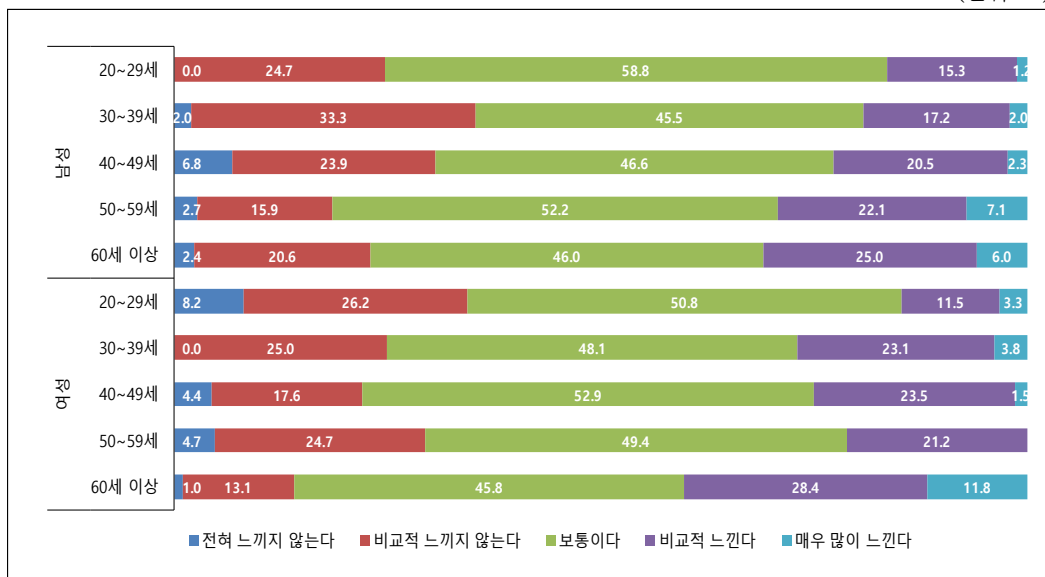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전체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	2.94	2.77	2.88	2.93	2.78	2.97	2.89
나와 같이 있어줄 사람이 부족하다	2.23	2.30	2.36	2.43	2.65	2.44	2.38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2.03	1.86	2.28	2.15	2.36	2.16	2.14
나는 혼자라고 느껴진다	2.17	2.12	2.42	2.35	2.65	2.42	2.34
친구들 안에 속해있다	2.96	2.50	2.72	2.69	2.70	2.80	2.74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	2.75	2.34	2.61	2.62	2.61	2.73	2.62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2.01	2.01	2.22	2.21	2.36	2.21	2.16
나의 관심사나 의견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한다	2.08	1.91	2.27	2.18	2.41	2.29	2.19
주위 사람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2.83	2.56	2.65	2.73	2.60	2.80	2.71
주위 사람들과 가깝다	2.84	2.51	2.68	2.71	2.60	2.82	2.71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	2.07	1.97	2.36	2.25	2.52	2.32	2.2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	2.06	2.07	2.25	2.26	2.35	2.22	2.19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	2.19	2.28	2.34	2.34	2.44	2.31	2.31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	1.97	1.92	2.19	2.17	2.37	2.21	2.13
내가 원할 때는 같이 있어줄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2.87	2.55	2.66	2.78	2.65	2.78	2.72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2.92	2.70	2.68	2.73	2.67	2.85	2.76
나는 수줍음을 잘 탄다	2.37	2.58	2.28	2.42	2.29	2.39	2.38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할 사람은 없다	2.14	2.16	2.31	2.30	2.52	2.30	2.27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01	3.05	2.81	2.92	2.82	2.90	2.91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다	2.89	2.87	2.67	2.76	2.64	2.80	2.77

*자료 :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6) 문화여가 / 사회적 관계망

[그림 III-68] 현재 거주지역(군/구)에 대한 소속감 (2021)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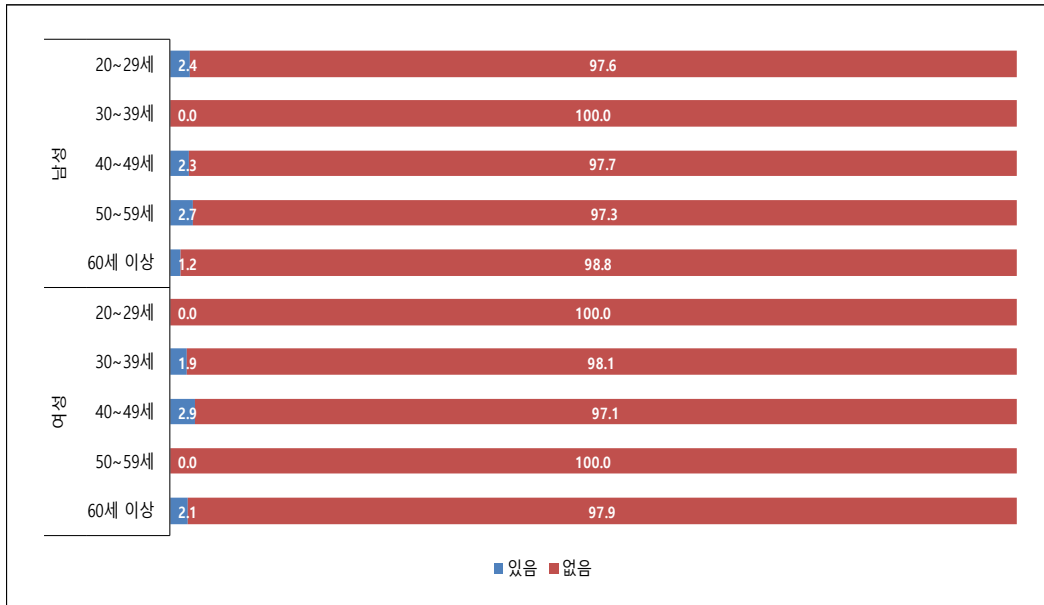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비교적 느낀다+매우 많이 느낀다)의 비중이 20대에서 14.8%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30대는 26.9%로 20대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이후 40대와 50대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60세 이상에서는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의 비중이 20대에서 16.5%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0대부터 증가하여 60대 이상에서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자원봉사 활동 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69] 자원봉사 활동 여부 (2021)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MIDS

7) 1인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도

〈표 III-48〉 1인가구 정책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클수록 필요성이 큼)

(단위: 점)

	청년 남성	청년 여성	중장년 남성	중장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전체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4.17	4.40	4.18	4.15	3.97	4.02	4.16
청소, 빨래, 식사준비, 정리정돈 등	3.52	3.01	3.81	3.61	4.04	3.84	3.64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예방,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	3.82	3.64	3.98	3.95	4.00	3.97	3.90
고장수리, 낙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	3.79	4.00	3.83	4.00	3.91	3.99	3.91
귀갓길 안전, 강력 범죄 발생 위험 해소, 주변 유해시설 개선 등	3.64	4.20	3.75	3.99	3.74	3.80	3.84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인·구직 정보 제공, 능력 개발 등	3.78	3.86	3.84	3.95	3.80	3.72	3.83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 견 개선	3.40	3.35	3.66	3.75	3.69	3.65	3.59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및 소모임 활동 지원	3.53	3.31	3.62	3.69	3.72	3.67	3.59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3.54	3.49	3.66	3.72	3.75	3.67	3.63
취미, 예술,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3.78	3.83	3.76	3.87	3.83	3.82	3.81
공유 주방 및 거실, 스터디룸, 창작 공간 등	3.49	3.33	3.49	3.55	3.52	3.47	3.48
개인공간(침실 등)을 가지면서 주 방, 거실 등 일부공간을 함께 사용 하는 형태	3.43	3.21	3.53	3.51	3.59	3.46	3.46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닌 다양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과의 공유 확산 및 공동체 조성	3.41	3.30	3.50	3.54	3.54	3.54	3.47
봉사, 시민사회단체 관련 정보제공 및 참여 기회 제공	3.30	3.21	3.49	3.60	3.53	3.56	3.45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상조 지원 등	3.37	3.58	3.58	3.69	3.63	3.64	3.57

*자료: 2022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노년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년 남성에서는 '청소, 빨래, 식사준비, 정리 정돈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 여성에서는 '귀갓길 안전, 강력 범죄 발생 위험 해소, 주변 유해시설 개선 등'이 4.20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장년 여성과 노년 여성은 '고장수리, 낙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이 각각 4.00점, 3.99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남성(3.82점), 중장년 남성(3.98점), 노년 남성(4.00점)은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 예방,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3.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 조사 분석

가. 조사개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43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43명 중 38명은 직접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고 5명은 줌을 이용한 화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성 24명, 남성 19명이었다. 20대는 8명(여5, 남3), 30대는 7명(여2, 남5), 40대는 10명(여6, 남 4), 50대는 5명(여3, 남2), 60대는 7명(여5, 남2), 70대는 5명(여2, 남3), 80대는 1명(여1)이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스노우볼 기법으로 인천에 거주 중인 1인가구인 분을 먼저 소개받고 인터뷰 참여자에게 다시 알고 있는 지인을 소개받는 형태로 연구참여자를 늘려갔다. 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시 관계자 추천을 통해 연령대별 연구참여자를 소개받기도 하였다.

〈표 III-49〉 2023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심층면접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43	100.0
성별	남성	19	44.2
	여성	24	55.8
연령층	청년	15	34.9
	중장년	17	39.5
	노년	11	25.6
연령	20대	8	18.6
	30대	7	16.3
	40대	10	23.3
	50대	5	11.6
	60대	7	16.3
	70대 이상	8	18.6

	성별	나이	경제 상황	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직종	혼자생활한 기간	인천 정주 기간
A-1	여	22	중하	2.3년제 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년6개월	4개월
A-2	여	28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년6개월	3년6개월
A-3	여	28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년6개월	3년6개월
A-4	여	25	중하	고등학교 졸업	미혼/비혼		판매종사자	4개월	27년
A-5	여	28	중상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2년	2년
A-6	여	30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년	32년
A-7	여	35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서비스 종사자	3년	3년
A-8	여	40	중중	대학원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1년	40년
A-9	여	43	중하	2.3년제 대학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13년1개월	43년4개 월
A-10	여	43	중하	2.3년제 대학졸	이혼	3명	단순노무종사자	4년9개월	43년
A-11	여	40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서비스 종사자	15년	41년
A-12	여	48	중중	대학원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30년	48년
A-13	여	52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5년	30년
A-14	여	52	중상	고등학교 졸업	이혼	1명	관리자	20년	54년
A-15	여	53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년	30년
A-16	여	48	중하	2.3년제 대학졸	이혼	2명	사무종사자	6개월	20년
A-17	여	67	하	고등학교 졸업	사별	2명	무직(은퇴)	16년	25년
A-18	여	67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이혼	2명	무직(은퇴)	23년	23년
A-19	여	65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이혼	2명	판매종사자	28년	
A-20	여	69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사별	3명	무직(은퇴)	3년3개월	10년
A-21	여	64	하	고등학교 졸업	사별	2명	단순노무종사자	11년	2년3개월
A-22	여	74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사별	2명	서비스 종사자	20년	70년

	성별	나이	경제 상황	학력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직종	혼자생활한 기간	인천 정주 기간
A-23	여	72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사별	2명	무직(은퇴)	40년	6년
A-24	여	86	하	무학	사별	2명	무직(은퇴)	7년	60년
B-1	남	28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3년 2개월	28년
B-2	남	27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년4개월	6년4개월
B-3	남	24	중하	2.3년제 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6년3개월	1년1개월
B-4	남	33	중하	2.3년제 대학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년5개월	7년5개월
B-5	남	30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6년	4년
B-6	남	31			미혼/비혼			10년	1년6개월
B-7	남	33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서비스 종사자	3년3개월	33년3개 월
B-8	남	30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5년	2-3년
B-9	남	46			미혼/비혼			14년	5년
B-10	남	45	중하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사무종사자	20년	25년
B-11	남	45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15년	47년
B-12	남	41	중중	4년제대학졸	미혼/비혼		서비스 종사자	4년	10년
B-13	남	51							
B-14	남	53	중상	대학원졸	미혼/비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년	1년1개월
B-15	남	60	하	고졸	사별	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년1개월	60년
B-16	남	66	하	고등학교 졸업	이혼	1명	무직(은퇴)	30년	20년
B-17	남	75	중하	중학교 졸업 이하	별거	3명	군인(은퇴)	9년	53년
B-18	남	71	하	고등학교 졸업	사별	1명	무직(은퇴)	8년	16년
B-19	남	73	하	중학교 졸업 이하	사별	4명	무직(은퇴)	28년	23년

나. 세대별 정책 요구도

1) 청년층 정책 요구도

① 일상적 긴급지원

청년층 1인가구에게서 나타나는 정책요구에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일상적 긴급지원에 대한 것이다. 다른 중장년층,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은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1인가구로서의 일상과 직장생활을 정착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들을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거나 불예측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상의 일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본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거나 집을 수리하는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조정할지 큰 어려움을 느꼈다는 청년기 1인가구가 적지 않았다. 또한 본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들, 예를 들면 수도를 틀어두고 나와서 온 집안이 다 젖었다거나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지 않고 나왔을 때 본인 대신 집에 들어가 긴급하게 처리를 해 줄 일상긴급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청년층에서 유독 높게 나왔다.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시간 외에 누군가가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말도 안 된다고 하면 주말이 되면 너무 그렇지만 주말이 안 된다고 하면 일을 빼고 가서 그거를 기다려서 고치고 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했고 (A-2, 20대 여성)

에어컨 같은 것도 분명 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갔다 오니까. 환풍기도요, 환풍기도 그때 몰랐는데 예전엔 몰랐는데 오래 틀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4시간 넘어가면. 틀어놓고 거의 집에 갔다 온다고 이틀 정도 뒤에 왔는데 켜져 있다든가... 무서워서 일주일 동안 못 썼어요. 네, 그래서 더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수도를 안 잠근 적이 있지, 가스를 안 잠근 적은 아직은 없으니까 정말 저는 뭐 진짜 그런 데서 삐끗 잘못하면...(B-7, 30대 남성)

② 반려동물 지원서비스

외로움을 덜어주고 함께 사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반려동물과 관련한 정책은 1인가구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청년층 1인가구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반려동물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사료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 1인가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면접내용이 많아 돌봄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본인이 긴급히 긴 시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려동물을 적절히 맡아줄 주변인이 없을 때 호텔링 등을 안전하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라거나 늙거나 병들어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돌봐줄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제일 좀 혼자여서 제일 불편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케어를 저 혼자 해야 되니까 계속.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시켰었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은 안락사를 권유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그냥 고통스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안락사는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대신에 집에다가 산소방 이런 거 대여해 놓고 거기서 그냥 한 달 정도? 케어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 있을 때 그냥. 자연사했어요. 산소방이 있을 때는 출근하셨을 때도 개는 산소방에 이렇게 있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살면서. (B-1, 20대 남성)

③ 관계형성 프로그램 지원

같은 지역에서의 1인가구 커뮤니티 지원 및 관계형성에 대한 관심이 1인가구에서 성별을 막론하고 높게 나타났다. 원가족이나 어울리던 친구, 동료와의 지리적으로 멀다고 느끼면서 느끼는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인천출신이 아닌 경우 직주근접을 이유로 인천에 자리잡은 청년층의 경우 집과 직장만을 오가며 다른 1인가구와의 관계형성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사교생활을 원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여가생활만 즐기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혼자살기 때문에 자기 집을 이용해 사람들을 초대하고 서로 편하게 오갈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까운 지역에서 대면으로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은 욕구는 성별에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여성청년 1인가구의 경우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가능하면 안전이 보장된 조건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욕구도 나타났다.

그냥 소모임 같은. 소모임이라고 치면 대표적인 거는 소모임이라는 어플도 있고, 문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고, 독서 모임도 트레바리라고 해서 그런 거 있고, 대표적인 거 있는데... 그것도 해보긴 했죠. 그게 또 중요한 거 같아요. 나이대도 좀 비슷해야 되는데

20대들이 많고 이러니까. 물론 저는 다 잘 어울릴 수는 있는데 만족도가 떨어져요. 난 다 아는 얘기, 해본 경험, 이런 것들에서 갭이 많이 느껴지고. 특히 그리고 1인 가구, 여성 가구는 좀 더 다른 게, 그냥 1인 가구랑 다른 게... 좀 사람을 가려서 잘 만나야 된다. 그거를 진짜 많이 느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개팅이든, 이성을 만나든, 어쨌든 그런 데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좀 애로 사항이, 힘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접근을 다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불미스럽게 돼서... 제가 지금 봉사활동하는 것도 이제 모임장이 남자 분이신데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별로 이렇게 안 맞고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다니거든요. 그런 거. (A-7, 30대 여성)

④ 가사 관련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 지원

청년층 1인가구 중 특히 청년층 남성 1인가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책요구라고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요리, 청소, 빨래 외에 필요한 가사 관련 기술과 지식에 대한 학습수요이다. 반찬지원이나 밀키트 지원 등 식생활에 대한 정책요구도는 청년층이 다른 층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었으나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특징은 가사, 재생산 관련 기술에 대한 학습요구였다. 1인가구 중 특히 남성 1인가구는 계절마다 의류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기술이라거나 화장실, 개수대 청소, 창틀, 냉장고 등 매일 필요하지 않지만 분기별, 주기적으로 필요한 일들에 대한 학습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일상의 어려움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어려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튜브 시청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층면접 때 드러나며 이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나타났다.

옷장 정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옷 개는 거라든가 부모님이 잘 설명해 주면 그런 집은 알겠지만 아닌 집이라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애들이면 이제 그냥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B-7, 30대 남성)

근데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어디 청소라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관심은 가는데 하기 어려워요. (B-4, 30대 남성)

⑤ 건강관리(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수요는 1인가구 전반에 높은 편이지만 특히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는 청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청년층은 자기계발과 일자리 구하기, 연애관계 맺기, 혼자살기를 적응하는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애과정으로 각각의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많이 겪을 뿐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상담, 약물치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심리상담 서비스, 우울증 검사 등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인천 와서... 주변에 없으니까. 되게 우울하기도 했고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오시면서. 여기 동네에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것도 그건데 다 이제 환경이 낯선 거니까 적응을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했고. 회사랑 또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좀. 그 당시에는 사실 우울하더라를 인지하긴 했는데 뭔가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그때 아마 병원 갔으면 무조건 우울증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울기도 했고 연락을 다 안 받았어요 제가. 연락 오는 것도 다 안 받고 그냥 집에 딱 와서 모든 걸 다 끊었어요. 가족이 연락 와도 그냥 안 받고 그랬었어요. (B-3, 20대 남성)

⑥ 생활동반자법 등 혈연, 혼인이 아닌 관계의 제도적 인정에 대한 요구

청년층 1인가구는 결혼의향에 따라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에서도 결혼을 기대하는 이성이 있는 경우는 안정적으로 결혼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주거정책(자가소유주택 마련 지원 등)에 대한 정책요구가 높고 결혼의향이 있지만 현재 만나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 연애, 결혼할 대상을 만날 수 있는 모임지원 프로그램 등의 요구도가 높은 편이었다.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는 1인가구가 청년층의 경우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이었다. 연애-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경로에서 자유로운 만큼 현재 1인가구로서의 일상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만족도 높은 편이었으나 이들이 향후 영원히 혼자 살기만을 기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결혼관계가 아니어도 친구, 동료와 함께 공동체를 꾸려 서로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언젠가 만들고 싶다는 기대가 있지만 이 관계가 제도적으로 지지받지 않기 때문에 불충분한 동반자로 남을 것에 대한 우려가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관계지원체제에 대한 요구도로 나타났다.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동반자를 등록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다들 똑같이 이거를 제일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 됐으면 좋겠고. (생활동반자법?) 네. 그런 거. (이 동반자가 이렇게 커플이 아니어도 비혼 친구여도 좀 가족처럼 인정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일단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랑 같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반자를 등록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A-4, 20대 여성)

⑦ 주택안심키트 제공

안전에 대한 요구도는 성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여성 청년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라는 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노력하면서 수리기사 등이 방문했을 때 여럿이 사는 집인 것처럼 연출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귀가시 매일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일상의 전반적인 불안, 긴장도가 높은 편이라는 답변도 높았다. 동시에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집에 들어가서도 누군가 집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귀가 후 모든 방문을 열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청년여성 1인가구가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안전장치, 방범창, 도어락, 응급벨 등 주택안심키트 지원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일상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요청된다.

저는 그거 말고 그런 걸 생각을 했었어요.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뭐라고 해야 돼 잠금장치 같은 거 지원해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서울은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안심키트 같이...) 네 맞아요 초인종 말고 그 잠금 장치 같은 거 때문에. 이게 신축이 아니고 구옥이어서 좀 험겍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A-6, 30대 여성)

청년의 1인가구 형성 배경은 학업(유학)이나 취업으로 인한 독립, 부모와의 사별, 원가족으로부터의 자립욕구, 원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다양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1인가구가 대체로 보험료로 인한 지출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20대 심층면접 대상자 일부도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지출(월30만원 이상)하고 있었다. 자가소유비율이 높지 않은 청년 1인가구에서 드러나는 정책 이슈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믿을만한 정보와 제도에 대한 것이다. 월세나 전세 등이 대부분인 청년 1인가구는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정책 및 안전한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특히 청년에게 지원되는 중기청 전세자금지원 정책 등이 소득에 따른 대출제한금액의 현실화, 시세에 맞는 주택재고 등에 있어 높은 정책요구도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지원 등)도 그 지원 폭과 규모 등을 넓힐 것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이는 청년시기에 더 많은 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자 하는 기대이다. 상시근로를 하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욕구에서 주로 드러나는 특징은 본인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택관련 문제(집수리, 가스검사 등), 우편물 수령이나 불예측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원해주는 가구원이 없어서 겪는 불편과 불안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도우미 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혼자 이플 때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맞는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처음 독립했을 때 필요한 실무적인 차원의 가이드(주택 관리, 공과금 관리 등)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도도 존재했다. 성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안전과 관련한 지표였으며 여성 청년 1인가구는 안전이슈로 인해 불편과 불안을 겪은 후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아파트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임에도 고독사 및 혼자 있을 때 겪는 사고 등에 대한 불안을 노출하기도 했으며(“혼자 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유학, 취업 등으로 이주한 경우 1인가구를 위한 모임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한 부분도 있었다.

청년 1인가구는 아직 미래에 구체적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구체적 계획 또는 열망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정책요구도가 차이를 보였다. 1인가구임에도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로서의 권리 또는 경제적 지원보다 자가소유를 위한 보조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편이었다. 청년 1인가구에서는 일반적인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외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제도, 사회적 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⑧ 정책요구도의 성별 차이

청년층의 정책요구도에 있어 성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안전문제에 대한 것이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모든 연령층과 성별에 있어 안전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며 높은 주거비용을 감수하거나 자신의 생활환경 또는 시간대를 급격히 좁히는 등의 적극적 실천을 하기도 한다. 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주거와 안전문제는 함께 다뤄져야 할 의제이다. 둘째 생활기술에 관한 것이다. 청년남성 1인가구의 경우 가사노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훈련되지 않은 삶의 질이 많이 낮아짐을 호소한 사례가 많다. 식사준비, 주거관리, 건강관리 등에 방법을 잘 몰라 일상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구성과 관련한 미래기획에 대한 것이다. 청년여성 1인가구중 일부는 향후 비혼을 결심하거나 혼인 없이 동거 등을 추구하는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기획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함께 동거하거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정서적, 경제적 동반자적 위치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청년남성 1인가구의 경우 그에 대한 관심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을 위한 소셜모임에 대한 것이다. 청년1인가구의 경우 지역기반의 친구, 관계망을 만들고자하는 욕구는 강하였지만 이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다. 청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소셜모임을 원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2) 중장년층 정책 요구도

① 1인가구 특성 교육프로그램(디지털 교육 등)

청년층과 달리 다가오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나는 중장년층 1인가구는 빠른 디지털기술의 변화, 생활전반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는 요구를 피력했다.

그니까 엄마가 이런 사실 요런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요즘 전자기기는 어르신들이 바로바로 못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딸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거 불편하면 해결해 주고 근데 난 누가 해주지?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또. 늘 나이 60, 70 됐을 때 엄마는 안 계실 거고 거의. 동생 가족이 있지만 그리고 동생도 이제 뭐 저랑 언제나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없고.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렴풋한 미래의 모습? 걱정되기는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지금은 당장 닥친 현실은 아니니까 일단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A-8, 40대 여성)

② 고독사예방 프로그램

중장년층 1인가구는 노년기에 대한 불안이 정책요구도로 나타난다. 청년기에 비해 향후에 도 1인가구로 살 가능성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면서 1인가구에 필요한 제도의 정착이 미래 노년층 1인가구로서 살 것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줄 것에 대한 기대로 보인다. 예컨대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은 현재 나이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제도의 정착이 본인의 미래에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관련하여 관계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른 1인가구와의 연계를 하고 고립도를 낮추는 네트워킹 지원에 대한 요구도도 있었다.

우리 80 넘으면 서로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자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독사 비율이 되게 높다고 들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없을까. 그래서 전기 사용량 그런 것도 모니터 하신다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야쿠르트 하시는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한테 계속 이게 야쿠르트 드시고 계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게 혼자 뭔가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간 단체랑 이렇게 좀 연결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은 이렇게 자원봉사는 이렇게 그런 점수도 좀 커바를 하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A-15, 50대 여성)

③ 1인가구에 불리한 세제 개선

중장년층 1인가구는 세금체제 전반이 1인가구에 불리하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고 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편이었다. 이는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과 기대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과도 관련되어 있다. 특히 '상글세'와 같은 논의는 1인가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후준비가 불안한데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 불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1인가구

에 대한 적극적 차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연말정산 등 세제개선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또한 본인 사망 뒤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등을 바로 소멸시키는 것도 가족을 이룬 가구와의 차별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배우자, 자녀가 없어도 본인이 지정한 동반자 또는 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상속할 수 없음에 대한 세제가 개선될 것을 요구했다.

그냥 요새 나오는 싱글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물론 결혼을 하고 얘기를 놓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보편적인 사람의 삶이지. 삶을 못 따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더 받아내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각각의 삶의 방향성과 지표가 다른데 그거를 결혼 안 했다는 이유로 싱글세를 거둬야 된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더 달라고 얘기를 해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갖고 있는 것마저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구를 많이 해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1인 가구도 세금 많이 납니다. 이미지가... 연말 정산 환급도 안 되고. (B-9, 40대 남성)

차별이라고 한 번 생각했던 거는 제가 여지껏 부었던 국민연금 이게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으면 내 대에서 딱 끝난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되고 나서 조금 그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대부분 무슨 내가 어떤 재산이 많으면 많지도 않지만 이게 형제들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연금 관련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사망을 하면 거기서 끝. 유족 연금은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한테 유족 연금이나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한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에는 내가 여지껏 국민연금을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구나. 다른 이웃을 위해 여지껏 냈나 보다 하고 그때 약간 그런 면이 좀 불합리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죠. (A-15, 50대 여성)

④ 경제상황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중장년기 1인가구는 비혼, 이혼 등을 계기로 1인가구를 형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장년기 1인가구는 소득안정성과 자산, 사회적 연결망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정책요구도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력,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 성차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 주변 기혼여성들의 중장년층 삶의 환경과 조건에 비해 삶의 자율성, 노동강도, 자기계발 등에 상대적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취미생활과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많은 시간을 쏟고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삶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여성 1인가구의 특징으로 부모돌봄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요구도가 여성에 비해 높은 편으로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가 여성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⑤ 돌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중장년 1인가구는 성별을 막론하고 노년에 나타날 건강과 돌봄 문제에 사적으로 대비하는 보험료 지출이 무척 높은 편으로 월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하며(높은 경우 월 100만원 수준) 다가올 노년의 병원비, 간병 등을 매월 보험료로 지출하면서 스스로도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규모의 소득과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연결망이 부재할 불안, 사회복지체제에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대비로 사적보험이 유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고독사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청년층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안전 문제는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에서도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점이다. 많은 중장년 1인가구가 지적하는 바, 청년과 노년에 집중된 정책에서 중장년은 빗겨나가 있다는 불만이 높은 것에 비해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는 기대는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낮은 편이었다. 중장년 시기에 적절한 소득과 직업안정성이 있는 편이어도 노년층에 급격히 빈곤층 또는 고립가구가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있었다.

중장년 1인가구 중 비혼 또는 자녀가 없는 이혼으로 인한 1인가구의 경우, 향후 파트너십을 맺을 욕구나 기대가 높지 않아 향후 필요시 보호자 역할을 해 줄 존재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었으며 이를 위해 생활동반자 법 등을 통해 사회적 가족 구성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층의 그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혼인관계가 아닌 커플 또는 가족으로서 사회적 제도에 진입하려는 욕구보다 건강문제 등 불예측적인 상황에 대비해 자신을 대리할 존재에 대한 요구의 측면이 강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요구도는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부재할 경우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공공 반려동물 호텔링,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⑥ 정책요구도의 성별 차이

중장년층 정책요구도에서 성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관계에 있어 성차가 드러나는데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에 비해 실제 갖고 있는 참조집단이나 또래집단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중장년여성 1인가구는 직장동료, 가족, 또래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동반할 수 있는 지지집단을 이미 가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여가활동을 보낼만한 또래집단을 갖지 못한 경우가 남성이 많았고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정책요구도는 남성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중장년남성 1인가구는 여가활동으로 음주를 언급한 경우가 많고 음주문제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여성은 알콜문제가 심각하다고 언급한 경우가 드물어 건강, 특히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건강 및 일상문제를 겪는 것에 있어 성차가 드러났다. 셋째, 1인가구에 있어 차별적 시선을 받은 경우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1인가구에 대한 스스로의 차별적 시선도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시선도 거의 없다고 언급한 반면 중장년 이상은 특히 여성들이 차별적 시선을 받은 경우가 많고 더 취약하고 불안정한 존재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불쾌했다는 언급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있어 성차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넷째,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다. 중장년여성 1인가구도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안전에 있어 우려를 많이 나타냈다. 주거선택 또한 안전을 고려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보아 안전에 대한 정책요구도에서 성차가 나타난다.

3) 노년층 정책 요구도

① 반찬지원 프로그램

노년층 1인가구는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소득, 자산, 자녀와의 관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특히 1인가구로서 겪는 어려움 중 사회적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책개선의 긴급성이 요청된다. 식생활에서의 만족도는 성차가 특히 나타나는 영역으로 노년층 남성1인가구의 경우 식사에서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특히 사별, 이혼 등으로 1인가구를 형성한 저소득층 노인남성의 경우 반찬을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아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느끼고 이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높았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뭘, 밥은 괜찮은데 반찬을 해 먹지를 못해요. 주로 사다 먹었어요, 반찬가게에서. 그거 하고 나머지 반찬을 제가 다 사 왔어요. 네, 제가 못 하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걸 해보지도 않았고 와이프가 그냥 차려주면 먹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리 돼 버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찬가게에서 그날, 그날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B-9, 70대 남성)

혼자 생활해 보니까 이제 문제는... 가족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밥 챙겨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설이 잘 되어서 밥은 쌀 씻어서 적당한 물을 넣으면 밥 되고. 반찬이 문제인 거야. 반찬. 물론 시대가 다, 사기도 많이 하지만 내가 해 먹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해먹기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B-17, 70대 남성)

② 의료비지원

노년층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간병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요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노년층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질환을 겪을 뿐 아니라 관절 질환 등을 겪으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져 전동 휠체어 지원 등 구체적인 의료지원이 요청되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생활비에서 의료비 비중이 매우 높아 다른 관심사를 가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도 하며 이는 우울 감 등을 높여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식들 돈이 있다고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 증여해 준 거... 두 애 이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약값도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지 어떡하겠냐고, 내가 그냥 그러고 왔어요. 나 그런 소리 진짜 치사한 소리 하기 싫은 사람이야.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안 먹고 안 쓰고 아끼지. 보면 알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A-24, 80대 여성)

③ 적정주택지원 프로그램

노년기 1인가구는 원하는 조건의 주택임주가 어려워 주거안정성 및 적정주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이외에 민간임대 주택 등에서 너무 비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다. 주거의 질이 나쁠 경우 향후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동반되어 노인층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지원할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진짜 원룸은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인천에 집구하러 다닐 때 이런 다세대 주택 처음에는 돈이 이제 적으니까 그런 데부터 돌아봤어요. 아무리 혼자 살아도 이건 아니다 싶은 방들이 너무 많은 데서 살고 있는 할머니들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주택이 방 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무리해가지고 주공 아파트로 간 거예요. (A-21, 60대 여성)

④ 병원동행프로그램

노년층의 경우 보행 등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큰 병원을 이용할 때 접수 및 수납 등의 과정 자체를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병원동행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고 전반적인 의료화 과정에서의 지원 프로그램이 요청되었다.

병원 같은 거 갈 때 같이 따라가 주고 이러는 거...? 좀 따라가주는 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그것도 괜찮겠쥬. 나도 그런 쪽으로 내가 내 상황이 그러니까, 요즘 들은 너무 막 사람들이 막 피해버리고 막 이렇게 안 저거 하려고 그러잖아(A-17, 60대 여성).

노년 1인가구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으며,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노인 1인가구는 노화로 인한 각종 건강문제에 직면하면서 발생하는 건강과 의료비에 대한 요구,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⑤ 원가족과의 관계 및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노년 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소득, 자산 등 경제적인 부분에 못지 않게 자녀, 친구, 이웃 등 관계망의 밀도,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경제적 요인 등으로 자녀와 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낙담과 회한의 감정을 많이 드러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성이 높은 경우가 많지 않고 대체로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아 대화상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이를 ‘혼술’ 등 음주를 통해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알콜문제가 있으며 연속선 상에서 빈번한 알콜섭취로 인한 질환, 정신건강의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 등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노인가구는 여성이 많았고 이들은 신앙심이 주는 안정감, 사회적 연결망을 교회에서 얻고 봉사의 이름으로 소일거리를 교회에서 행하기도 한다.

여성 노인이 성역할과 관련된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청소부, 식당에서의 허드렛 일 등 돌봄, 가사노동 등의 노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근로소득을 얻을 경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노년 남성 1인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종류가 적은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남성 노인의 경우 돌봄노동의 경험 부재로 인해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크게 심적, 물리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날 뿐더러 지역커뮤니티 등 공동체 활동에서도 돌봄감각과 경험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사지원에 대한 요구도 또한 크게 성차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남성 1인가구 노인의 경우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 요리를 해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남성 1인가구의 경우 식비 보조, 또는 밀키트, 반찬 제공 등의 복지정책을 원하고 있고 여성 노인의 경우는 집수리 등 주택관련한 정책을 원하는 등 정책요구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⑥ 노년기의 경제 문제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소외

노년의 경제적 문제는 병원비, 식비 등과 연결해 사회적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 등)가 현실화되지 못한 다는 불만이 높고, 실제로 소득이 매우 낮고 자산이 없음에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병원비 등 실질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불만으로 나타났다. 젊은 시절 파산을 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소득을 만들기 어려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노년 1인가구가 느끼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제2금융권과의 거래로 인해 더 많은 경제적 위험을 감내하면서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자 하는 욕구도 노년 1인가구에서 존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료비, 동물병원비 등을 부담할 자신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전에 비해 많이 사라진 노인정 등을 통해 함께 노닥거리고 일상을 나눌 또래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 마음맞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년배 친구 유무가 삶의 만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병원동행서비스 등에 대한 요구도는 노년층의 경우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고독사 등은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로 인식하며 사후에 경제적, 물리적 정리를 믿고 맡길 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존재했다.

⑦ 정책요구도의 성별 차이

노년층에서 성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것이다. 노년여성 1인가구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남성에 비해 우호적이고 일상적 교류가 많은 편이었다. 건강, 일상생활 등에서 자녀와의 교류로 상당 부분 의지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와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또래친구, 종교생활 등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다. 반면 노년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우울감,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식사 등 일상생활에 대한 지점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노년남성 1인가구의 경우 반찬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건강문제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반찬문제 해결, 식사문제를 꼽은 경우도 많았고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노년남성 1인가구를 위한 밀키트지원, 반찬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0〉 세대별 정책 요구도에 기반한 정책 과제

구분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경제생활 지원	일자리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창업 지원	중장년 재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금융지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	노후생활 설계지원	취약계층 노인 긴급 의료비 대출
		1인가구 긴급 생활자금 대출지원		
	소득보장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격 조건 완화
		1인가구에 불리한 세제 개선		
주거안정 지원	주거공급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 임대주택 공급	저렴한 실버타운 공급
	주거비 지원	근로 저소득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노후주택 개량/보수 자금 대출 지원	
		1인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		
	주거서비 스	안심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부동산 안심계약 서비스		
		중개보수 지원 서비스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	건강	청년 정신건강 심리 상담 지원	중장년 우울증 치료 지원	치매예방, 조기진단 프로그램
		병원동행 서비스		
		운동 및 식단관리 프로그램 교육		저소득 노인 1인가구 방문 운동치료서비스
			만성질환(알콜성 질환 등)관리 교육 및 상담 지원	
	일상돌봄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 문제해결 긴급지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회	여성1인가구 및 노인1인가구 밀집지역 CCTV설치 확대		
		안전예방교육 및 자기방어 훈련 지원		
		안심귀가 지원 사업		
	개인공간	1인점포 및 1인가구 안심비상벨 설치		
사회관계 망 강화	관계형성	1인가구 동호회 활동 지원		이웃지기 프로그램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밀키트 배달 서비스
		지역사회 공유부역(소셜다이닝) 및 공유 공간 지원		
			이혼, 사별 1인가구 자조모임 지원	
	생활역량 강화	1인가구 가족상담(관계회복) 지원		
		생활용품 나눔장터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요리교실 운영	디지털 환경 적응 교육
	가사 및 생활역량 강화 교육(1인가구 꿀팁교육)		웰다잉 준비교육	

IV.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1. 정책 추진 방향
2. 비전 및 정책 목표
3.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4.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5. 1인가구 정책 추진 로드맵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

1. 정책 추진 방향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가 가구 단위를 2인 이상의 가족으로 생각해 왔던 방식에서 가족형태 및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혼자 사는 1인을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의 하나로 인정함과 동시에 혼자서 살기 때문에 정책적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살펴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안을 만들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비전은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으로 설정하였다.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은 1인가구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1인가구로 살아갈 삶에 대해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지역사회의 돌봄과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화가 진전되는 현대사회에서 1인가구의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와 관계의 고립에 의한 돌봄의 공백, 지역 공동체성에서의 배제와 맞물려 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인가구여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단위 정책에서 1인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에 대해서 1인가구를 고려한 정책 추진의 노력도 필요하다.

1인가구는 세대와 연령, 경제 수준, 친족구성원관계의 친밀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세대와 성별을 교차해서 살펴보면 청년여성과 청년 남성,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 노년 여성과 노년 남성 사이에서는 매우 동질적인 정책 욕구가 파악되기도 한다. 1인가구 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세대와 성별을 함께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수요와 함께 성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생활에서의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이 더해져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1인가구 정책은 그동안 고독사 방지 정책 중심으로 독거노인 지원이나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복지정책 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삼분의 일이 1인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인가구가 보통의 시민의 삶의 모습이자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항시적으로 변화가능한 생활형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천은 지역적으로 1인가구의 구성 비율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화군과 동구는 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중구와 연수구, 미추홀구와 서구는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계양구와 서구, 옹진군은 중장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인천지역 기초단위의 1인가구 지원 정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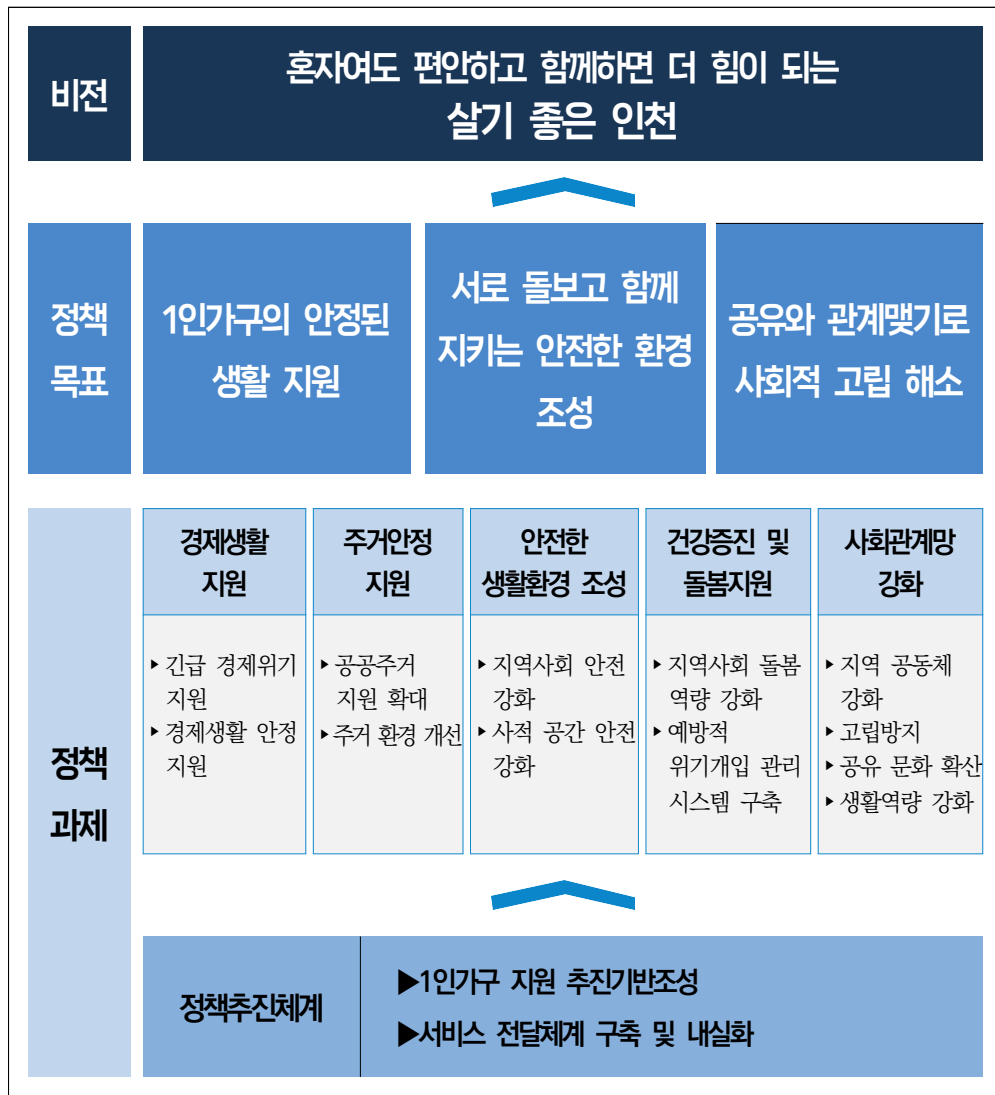
2. 비전 및 정책 목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은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으로 도출하였다. 1인가구로 생활하여도 편하게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인가구가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 수 있다는 지향을 담은 것이다.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는 첫째, 1인가구의 안정된 생활 지원, 둘째, 서로 돌보고 함께 지키는 안전한 환경 조성, 셋째, 공유와 관계맺기로 사회적 고립 해소로 정했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1인가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생활과 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 참여형의 상호돌봄과 안전환경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1인가구가 돌봄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돌봄의 주체로서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 정책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문화를 확산하여 지역 주민이 서로 관계맺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개인화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는 물리적 고립과 정서적 단절 문제에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시민을 가족이라는 안전망이 없을 때라도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1인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V-1]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3.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14개의 정책과제와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주관부서 (협조부서)
① 정책추진 기반 구축	1-1. 1인가구 지원 추진기반 조성	1-1-1.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	신규	인구가족과
	1-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1-2-1.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	인구가족과
		1-2-2.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확대	인구가족과
	1-3.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1-3-1.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정책홍보 강화	신규	인구가족과
② 경제생활 지원	2-1.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	2-1-1. 1인가구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복지정책과 (인천사회서비스원)
		2-1-2. 자립준비 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신규 및 확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2-2.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2-2-1. 중장년 1인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공정사회경제과 (경제정책과)
		2-2-2.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노인정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2-3. 1인가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2-3-1. 1인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신규	공정사회경제과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③ 주거안정 지원	3-1. 주거지원	3-1-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확대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1-2. 중장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1-3.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신규	주택정책과 (인천도시공사)
	3-2. 주거 환경 개선	3-2-1.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확대	주택정책과 (광역주거복지센터)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주관부서 (협조부서)
		3-2-2.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신규	인구가족과 (광역주거복지센터)
④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 지역사회 안전 강화	4-1-1.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확대	안전상황실 토지정보과
		4-1-2. 안심귀가 지원 사업	확대	인구가족과 (자치경찰위원회)
	4-2. 사적 공간 안전 강화	4-2-1. 여성안심드림사업	확대	여성정책과
⑤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5-1.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1-1. 1인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건강증진과
		5-1-2. 1인가구 고령환자 간병비 지원	신규	건강증진과
		5-1-3.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인구가족과
		5-1-4. 1인가구 정신건강 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상담 지원	확대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5-1-5. 고립·은둔 자활 프로그램 운영	신규	복지서비스과
		5-1-6. 반려동물 돌봄 지원	신규	농축산과
	5-2. 예방적 위기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	5-2-1.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 시스템 구축	확대	복지서비스과
		5-2-2. AI케어콜 서비스 확대	확대	복지서비스과
		5-2-3.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	복지서비스과
		5-2-4.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확대	건강증진과 (인천자살예방센터)
		5-2-5. 웰다잉 지원 사업	신규	건강증진과 (노인정책과)
⑥ 사회관계 망 강화	6-1. 지역 공동체 강화	6-1-1.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신규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6-1-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지원사업	신규	인구가족과 (청년정책담당관)
	6-2. 공유 문화 확산	6-2-1.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신규	인구가족과 (가족센터)
		6-2-2. 공유부엌 조성 및 요리 코칭 사업 운영	신규	

4.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1 정책추진기반 구축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① 정책추진기반 구축	1-1. 1인가구 지원 추진기반 조성	1-1-1.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	신규
	1-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1-2-1.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
		1-2-2.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확대
	1-3.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1-3-1.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정책홍보 강화	신규

1-1 1인가구 지원 추진기반 조성

인천은 매우 빠르게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비혼과 이혼의 증가, 고령화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지원하는 문제는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대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추진체계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1인가구 정책은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청년정책담당관, 도시계획국 등 여러 부서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전담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충원하는 과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1인가구 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1-1-1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일자리, 주거, 안전, 복지,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1인가구 관련 정책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부처 간 협의와 협력이 중요함

- 1인가구 관련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 1인가구 정책 관련 주요 부서에 1인가구 정책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감있는 정책 수행 필요
- 1인가구 정책과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련한 협조와 지원사항을 논의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필요
- 1인가구 포털 사이트의 직접관리를 통한 시민 소통적 정책 운영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에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4인 구성)
 - 1인가구 지원 업무 총괄, 부서간 업무 협의 및 지원,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가족센터 1인가구 지원 사업 관리
 -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 운영, 1인가구 지원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천 1인가구 플랫폼 구축 및 관리
- 보건복지국, 청년정책담당관, 도시계획국 등 관련 부서에 1인가구 정책 담당자 지정
- 정례화된 1인가구 정책 합동점검회의 실시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인구가족과 1인가구 정책 전담팀 신설	추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복지국, 청년정책담당관, 도시계획국 등 관련부서 1인가구 정책담당자 지정	담당자 지정	운영	운영	운영	운영

1-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1인가구 관련한 정책은 복지관과 가족센터,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취약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1인가구 관련한 정보 및 사회관계망 지원 관련한 사업은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1인가구 지원사업 관련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가족센터와 복지관의 협조 체계와 역할 배분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는 1인가구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사업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의 경우 일자리 지원사업을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1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배치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축의 필요성
- 지역내 1인가구 관련 사업 추진체계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역할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지정
- 1인가구 정책협의체 구성
 - 시와 군구 1인가구 정책 담당자, 가족센터 1인가구 전담인력 및 1인가구 사업 관계자 협의체 구성
 - 정책간담회 및 1인가구 사업 평가, 정기 워크숍 등 개최
-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소요예산 : 1,53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가족센터 내 1인가구 지원 전담인력 배치	계획수립	인력 채용 (8인)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320	320	320	320
1인가구 정책협의체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50	50	50	50	50

1-2-2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가구 지원사업의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정보전달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패밀리사이트로 시범운영 후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의 URL로 운영되는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 인천시 1인가구 지원정책 대시민 소통 및 홍보 등 참여 창구 마련 필요
- 1인가구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인천 1인가구 포털 플랫폼 구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1인가구 지원정보의 통합적 제공
- 나에게 맞는 지원서비스를 안내해주는 1인가구 스마트 상담창구 운영

-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및 1인가구 프로그램, 취업 및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병원동행사업, 집수리 플랫폼 등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사업 참여자 온라인 접수 기능 연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인천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온라인 서비스 구축	시범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50	400	150	100	100

1-3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중 14.2%가 ‘무능력자 또는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시선’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인 남성 1인가구도 10명 중 1명 정도가 이와 같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청년 여성 10.6%, 중장년 여성 10.1%로 경험 1인가구로서 ‘성적인 불쾌감과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는 성역할고정관념과 정상가족관념이 내재되어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에는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뿐만 아니라,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성역할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돌봄을 가치있게 평가하는 성평등 관점의 돌봄역량 강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층 1인가구에서는 소득공제 등에서 차별을 경험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중장년층 여성 1인가구는 사회복지 혜택 등에서 배제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 및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1인가구라면 누구나 정책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1-3-1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정책홍보 강화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1인가구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
- 가족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비혼, 이혼 경험에 대한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1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으로 인해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접근의 제한성이 존재할 수 있음
-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 정보전달이 가능한 지원정책 홍보 및 1인가구 관련 사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공익광고 매체를 통한 1인가구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개선
- 가족다양성 및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여성사회교육기관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및 자기돌봄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1인가구 차별 개선을 위한 매체 및 정책홍보물 모니터링 실시
- 1인가구 지원 제도 홍보 브로셔를 제작하여 가족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여성사회교육기관 등에 비치하여 배포
- 인천광역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1인가구 지원 정책 정보 배너(banner) 홍보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인천여성문화회관

□ 소요예산 : 7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운영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50	50	50	50	50
여성사회교육기관 성평등교육 및 자기돌봄 교육 지원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50	50	50	50	50
1인가구 정책홍보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50	50	50	50	50

2 경제생활 지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② 경제생활 지원	2-1.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	2-1-1. 1인가구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2-1-2. 자립준비 청년 및 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신규 및 확대
	2-2.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2-2-1. 중장년 1인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확대
		2-2-2.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3. 1인가구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2-3-1. 1인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신규

2-1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

1인가구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상황에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사회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높고 그 이유는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1인가구의 경제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1-1 1인가구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긴급복지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는 생계를 혼자서 해결하기에 부채에 대한 채무도 혼자서 감당해야 함
- 1인가구가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주택구입을 제외하고 생계비로 인한 경우가 20%내외임.
청년여성 27.3%와 노인여성 23.7%이 생계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액의 빚이 큰 빚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채위기에 처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부채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부채관리 컨설팅 및 금융교육 지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생계유지비, 의료서비스, 임시 주거 등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사회서비스원

□ 소요예산 : 4,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금융교육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긴급복지 지원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0	1,000	1,000	1,000

2-1-2 자립준비 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 청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인가구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정착지원금 제공이 필요함
- 인천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25세까지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가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도도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점차적인 증액이 필요함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인천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현재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매우 적은 편임. 수당지급 자격요건 완화와 예산증액이 필요
-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신설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착지원금의 단계적 증액
-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정착지원금 신설
-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지급대상 자격요건 완화
 - 현재 자격요건은 쉼터 퇴소 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직전 1년은 연속적으로 이용해야 함.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여 자격요건 충족이 어려움. 자격요건을 퇴소 직전 3년 동안 2년을 이상(연속적이 아닌 쉼터를 이용한 기간을 모두 합쳐) 이용한 청소년으로 변경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여성가족국 청소년정책과

□ 소요예산 : 6,9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자립준비 청년 정착지원금 단계적 증액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800	850	900	950	1,000
가정밖 청소년 정착지원금 신설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500	500	500	500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당자격요건 완화 및 예산 증액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50	100	100	100	100

2-2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1인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원은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 생활비 지출이 많아지고 고용상황에 따라 경제적 안정이 좌우되기에 1인가구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정책은 1인가구 돌봄과 복지 서비스 등의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로 개발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동체 기여형 청년 일자리 개발을 통해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세대 간 소통과 관계망 형성을 통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노인세대의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1 중장년 1인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 사업 운영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중장년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사업을 꽃밭가꾸기, 지역명소 환경정비 등 다양한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 시 1인가구에 대한 고용상담 및 경력개발 상담 제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경제산업본부 공정사회경제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 소요예산 : 8,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장년 1인가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0	1,000	1,000	1,000
저소득 1인가구 일자리 지원 사업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0	1,000	1,000	1,000

2-2-2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노인 일자리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노인세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노인들 간의 소통을 통해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의 적응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코칭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힘든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인들의 생활 적응력 확대를 도와주는 공익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노인 1인 세대에게 시간제 파견으로 생활 코칭 도움을 주는 인력제공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
- 말벗활동을 통해 우울감이나 소외감 등을 겪는 노인 1인가구에게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 각종 복지·의료서비스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소식 전달
- 생활환경 점검(규칙적인 식사여부 확인, 일상가전·상하수도 작동여부 확인 등) 각종 위생상태 점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노인인력개발센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노인 1인가구 생활코칭 노인알리사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200	200	200	200	200

2-3 1인가구 지원 사회적 기업 육성

증가하는 1인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적 경제영역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가족센터나 복지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1인가구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1인가구 소비 시장을 육성하고 새로운 창업 분야를 진흥함으로써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에 민간 영역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3-1 1인가구 대상 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진흥 정책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함
- 민간영역에서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1인가구 관련 서비스를 확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육성방안을 모색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창업 또는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 추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경제산업본부 공정사회경제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500	500	500	500

3 주거안정 지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③ 주거안정 지원	3-1. 주거지원	3-1-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확대
		3-1-2. 중장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3-1-3.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신규
	3-2. 주거 환경 개선	3-2-1.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확대
		3-2-2.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신규

3-1 주거지원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1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주거 지원과 관련한 지원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 근로 저소득 1인가구에게는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3-1-1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정책요구도 조사 결과, 청년층에서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
-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청년층 대상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임대사업에 청년층 1인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임차형(보증금 지원형) 임대주택 공급 도입
- 사업 홍보 강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3-1-2 중장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중년층은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음
- 중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중년층 대상 건설형 임대주택,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
-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중년층 1인가구를 입자자격에 포함시켜 사업을 확대함
- 사업 홍보 강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장년 장기 임대주택 공급	검토	계획수립	추진	추진	추진

3-1-3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현재 인천시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150명 규모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임
- 인천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며 지원사업 전용 대출금융상품을 출시하여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연 2%를 지원하고 있음
- 정책요구도 조사 결과, 청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요구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규모를 확대하여 근로 저소득 1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저소득 1인가구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제도 도입
-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한 전용 대출금융상품 출시
- 연 2% 이내 최대 5,000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
- 소득입증 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도시공사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산출내용 : 융자지원 인원(2,00가구) *대출금(5,000만원) 대출* 연이율지원
(6%-1%)*2년=1,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준비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0	1000	1000	1000

3-2 주거 환경 개선

- 1인가구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면 낙후된 지역이나 노후 주택의 원룸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장년 여성 1인가구와 노인 1인가구는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집수리 및 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 차원에서도 1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주택개량 지원금에 대한 사업과 생활수리 지원을 연계해주는 플랫폼 운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3-1-1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는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음
-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생활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와 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운영
- 현재 쪽방밀집 지역인 중구 동인천동과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 일원을 중점지원 지역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서비스 지역과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광역주거복지센터

□ 소요예산 : 2,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주거 환경 개선 및 시설수리 장비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400	500	500	500	500

3-2-2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정책요구도 조사 결과, 중장년 및 노년 여성들의 고장수리, 낙후 시설물 교체 및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의 경우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수리 및 관리 지원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노년층 등 주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의 생활 수리(형광등, 방충망 수리 등) 노후 주택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주택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1인가구 대상 안심 집수리 플랫폼 운영
- 모바일 어플, 전화 등을 통해 주택 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 전달조직 또는 직원 마련
- 여성직업교육 훈련과정에 여성 집수리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개발
- 지역 내 수리점 또는 지역에서 인증을 거친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내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광역주거복지센터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안심 집수리 서비스 플랫폼 운영	계획 수립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50	100	100	100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④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 지역사회 안전 강화	4-1-1. 범죄 예방 환경 조성	확대
		4-1-2. 안심귀가 지원 사업	확대
	4-2. 사적 공간 안전 강화	4-2-1. 여성안심드림사업	확대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에 대해 연구한 박준휘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여부 자체가 범죄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1인가구 밀집지역이 비밀집지역 대비 2~3배의 범죄발생률을 보였다(박준휘, 2017).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범죄 두려움에 있어서도 청년 여성 1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정책은 밀집지역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 여성의 범죄 두려움을 해소하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을 1인 가구의 정책 수요에 맞게 보완하여 확대 시행하되, 정책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4-1 지역사회 안전 강화

4-1-1 범죄 예방 환경 조성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 유형에 대한 응답에서 여성의 경우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남성에 비해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여성과 노인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사실이 알려져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CCTV의 설치에 범죄 발생 이후 범죄자 파악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를 보임. CCTV의 설치에 거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느끼고 공공장소 및 주거 지역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함
-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범죄발생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 밀집 지역을 파악하고 범죄 발생률, 안전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CCTV 추가 설치 지역 선정
-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 혹은 긴급 상황이 파악될 경우 경찰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경찰과의 시스템 연계 강화
-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
 - 여성안심귀갓길 및 안심구역, 1인가구 밀집 지역에 LED(태양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소요예산 : 2,3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CCTV 추가 설치	계획 수립	설치	설치	설치	설치
소요예산	-	200	200	200	200
주소정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 사업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예산	300	300	300	300	300

4-1-2 안심귀가 지원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치안 및 안전성’의 비중이 다른 생애주기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생애주기에서 여성은 남성 에 비해 ‘치안 및 안전성’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자치방법 순찰을 통해 긴급 상황이나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범죄나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빠르게 체포할 수 있음
- 1인가구의 경우 귀가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밤늦게 귀가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 귀가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인천광역시는 2019년 ‘안심 In’ 서비스를 출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착지를 설정하고 귀갓길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전에 등록해 둔 가족 혹은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위치가 전송되는 ‘안심귀가’,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도움요청’을 제공하고 있음
- 안심 In 서비스와 연계된 안심귀가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각 지역별 자치방법을 담당하는 경찰 및 인력 간 정보를 공유하고 안심콜 및 긴급 상황 발생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심야시간대 자율방법대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순찰 활동 강화
- 사례분석 등을 통해 범죄유형 및 긴급 상황 유형에 따른 대응 방법 마련
- 안심 In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안심귀가 동행지원 사업
 - 안심 In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존 ‘안심귀가’ 서비스와 함께 안심귀가 동행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심보안관 및 안심귀가 동행자에 대한 여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지교육을 통해 여성안전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

□ 추진체계

-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안심귀가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50	100	100	100

4-2 사적 공간 안전 강화

4-2-1 여성안심드림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 청년 여성의 경우 43.6%가 주거 침입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도 다른 생애주기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일정 자격 기준의 전월세 거주자에 대해 주거 안심 장비 지원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 현재 남동구 및 부평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을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
- ◇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가정용 cctv ,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장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소요예산 : 1,28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안심장비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140	240	300	300	300

5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⑤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5-1.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1-1. 1인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5-1-2. 1인가구 고령환자 간병비 지원	신규
		5-1-3. 병원동행 서비스	확대
		5-1-4. 1인가구 정신건강 상담 및 가족관계 회복상담 지원	확대
		5-1-5. 고립·은둔 자활 프로그램 운영	신규
		5-1-6. 반려동물 돌봄 지원	신규
	5-2. 예방적 위기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	5-2-1.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 시스템 구축	확대
		5-2-2. AI케어콜 서비스 확대	확대
		5-2-3.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
		5-2-4.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확대
		5-2-5. 웰다잉 지원 사업	신규

○ 1인 가구는 혼자 살기 때문에 질병이나 건강 문제 발생 시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혼자 생활하며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종종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참여, 경제적 안정 등 여러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삶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겪을 경우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부재는 1인 가구의 정신 건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건강 정책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건강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 건강이 점차 나빠지며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아플 때 보호자의 부재가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적절한 돌봄 지원이 건강 정책과 동반되어야 한다.

5-1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1-1 1인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제약과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치료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문 서비스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노년의 경우 ‘영양 및 신체적·정신적 질병 예방,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노년 남성의 경우 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저소득층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운동에 할애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저소득층의 건강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전문적인 운동치료가 가능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노년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개발.

○ 운동 지도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제공

- 방문 운동치료를 통해 운동치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전달
- 건강한 영양상태 유지를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및 올바른 식단 상담을 통해 노인 1인가구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5-1-2 1인가구 고령환자 간병비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중증질환으로 입원하게 되면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가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의 중증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의 회복을 지원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종합병원이나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소득수준 이하(중위 소득 80% 미만)의 1인가구 70세 이상의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 1인당 1회에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고령환자 간병비 지원	계획 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5-1-3 병원 동행 서비스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 가구는 아플 때 함께 있을 사람이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특히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의 경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
- 병원 동행을 통해 의료 정보와 처방, 향후 치료 계획 등을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의사의 지시사항을 올바르게 전달하여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돌봄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지원과 봉사시간 인정 정로로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수요가 높은 정책이어서 확대 운영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
 - 병원 동행 서비스 신청을 위한 콜센터 운영
 -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운영
-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병원 방문에서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지원
 - 서비스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비용 및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나, 소득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서비스 지원
 - 단순한 병원 동행만이 아니라 진료나 검사를 받는 동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접수 및 수납 등의 절차를 지원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소요예산 : 4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병원동행 서비스	계획 수립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50	100	100	100

5-1-4 1인 가구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상담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겪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서의 문제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음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을 살펴 보면 청년 여성이 22.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지만 정신건강 관리에 있어 더 취약한 편임.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내용

- 1인 가구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심리 상담가를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
 - 1인 가구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 마련
-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자살 위험군 관리
 -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초기 증상을 탐지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건강 교육과 서비스 지원 강화
 -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1인 가구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 증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혹은 서비스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 접근성 향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가족센터

□ 소요예산 : 2,3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상담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400	400	500	500	500

5-1-5 고립·은둔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한 일자리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전반적인 생애 단계에서의 안정성이 붕괴하고, 사회적인 연결성이 약화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코로나 19 이후 전반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며 사회적 고립 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임
-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청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은 주위에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고 혼자만의 의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회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고립 은둔 청년을 비롯하여 장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구직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전단계로서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내용

- 사회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운동, 예술, 취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
- 심리적 지원 서비스 제공
 - 장기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심리적인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상담 서비스를 제공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 고립 은둔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 자조 프로그램 운영
 -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와 청년층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사회서비스원

□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고립·은둔 자활 프로그램 운영	연구 용역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50	150	150	150	150

5-1-6 반려동물 돌봄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비혼과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1인가구는 정서적 위안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나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함
-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정책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1인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호텔링 서비스 제공
- 취약 1인가구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공
- 1인가구 사후 반려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 1인가구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하여 양육자 사망 시 입양 연계
 -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전 신청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반려동물 돌봄 지원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50	150	150	150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100	100	100	100	100
1인가구 사후 반려동물 입양지원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50	50	50	50

5-2 예방적 위기 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

5-2-1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 시스템 구축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경우 재난 등의 천재지변, 급작스러운 건강 문제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 1인 가구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취약계층 위기가구의 구별이 더욱 어려움.
- AI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지원 조치가 가능함.
- 돌봄플러그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정 내 활동상태를 살피고 위험단계가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치에 활용될 수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취약계층 위기가구 데이터 구축
 -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위기가구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AI를 통한 위기 신호 감지 및 대응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보한 위험 요소를 활용하여 위기 발생 신호를 포착하여 인지
 - AI 시스템을 통해 위기를 인지하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행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안심플러그 설치 확대
 - 현재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에 보급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 소요예산 : 1,75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500	500	100	100	100
안심플러그 설치 확대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70	80	100	100	100

5-2-2 AI 케어콜 서비스 확대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AI기술을 활용하여 중장년 1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여 고독사 예방에 활용
- 정서 안정을 위한 대화 및 뉴스와 생활 정보 등을 전달하여 사회적 고립 방지
- 이상징후(통화기록이 없거나 말이 없는 사람)를 선별하여 담당자가 개별 연락하여 위기 상황 조기 발견에 활용

□ 추진방향 및 내용

- AI케어콜 서비스 확대
 - 취약 중장년 1인가구 및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 확대
 - AI가 주1회 자동 전후와 담당자에게 통화결과를 리포트하고 그 결과를 케어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 현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케어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 소요예산 : 2,9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AI케어콜 서비스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500	600	700	700	700

5-2-3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혼자 살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청년의 경우 직장과 학교 및 개인적인 편의의 이유로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장년 및 노년의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별거, 사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혼인상태의 변화를 통한 1인 가구의 형성은 가족의 해체와 연결되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1인 가구를 형성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과거에는 고독사가 노년에 해당하는 문제로 여겨졌으나,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결과 50-60대 남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행정통계, 사례관리 등을 통한 고독사 데이터 확보 분석
 - 행정통계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고독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 정의
 - 사례관리 및 분석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요인 및 특징적인 요소를 분류

○ 중장년 및 노인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지원

- 각 군구의 복지 기관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고립·은둔 1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 시스템 연계
-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 사람들이 고립·은둔 1인가구의 징후를 파악하고 알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복지서비스과

□ 소요예산 : 5,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1,000	1,000	1,000	1,000	1,000

5-2-4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보건복지부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20년 기준 23.3으로 전국에서 8위 수준이고 전년도에 비해 자살률이 증가한 지역임.
- 2022년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전체 1인가구 중 8.4%로 매우 높은 비율임. 이 중에서 청년 여성은 22.3%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함.
- 자살을 생각한 이유로 외로움/고독 문제(43.3%)과 정신과적 문제(30.7%)로 응답하였고, 중장년과 노년층에서는 외로움/고독을 꼽은 비율이 높았고 청년 여성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를 호소한 비율도 높았음(38.6%), 한편 청년 남성은 급격한 금전적 손실(43.2%)을

꼭고 있어서 최근 청년층의 코인 투자 등의 활동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 세대별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 추진 필요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자살고위험군 선별검사 및 상담지원
 - 1인가구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 정신건강·자살 고위험군 심층종합검사 및 전문심리상담 지원
 -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자살시도자 사례 관리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 관리 실시
- 투자실패로 인한 금전 손실, 배우자 사망 등 자살위기와 연관성이 높은 생애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자살예방사업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자살예방 사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300	350	350	400	400

5-2-5 웰다잉 지원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함
- 현재의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은 고독사 위기관리 중심으로 의료적 접근 위주로 편성되고 있음. 건강한 성인이나 노인들이 노후생활과 죽음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생애과정으로 웰다잉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노인 1인가구의 경우 질병이나 치매 등 갑작스럽게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재정 상황 준비 및 재산 관리, 후견인 지정 등에 대한 준비를 포함하여 노후를 대비한 재산관리 및 의료비 지출 계획, 장례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병행하여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웰다잉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죽음을 준비하여 남은 생을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좋은 삶에 대한 방향성을 교육하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서전 또는 지역사와 연계한 구술생애사 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삶의 의미를 재조명
-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 1인가구가 질병이나 장애, 고령으로 인해 법률적 의사결정과 행위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무를 대신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연고 1인가구 대상 임종 봉사 및 장례 지원
 - 연고가 없이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임종이 임박한 1인가구에 대해 임종봉사를 지원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사망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입관비와 추모의식, 장례비 등을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웰다잉 준비 교육 사업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100	100	100	100	100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100	100	100	100	100

6 사회관계망 강화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비고
[6] 사회관계망 강화	6-1. 지역 공동체 강화	6-1-1.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신규
		6-1-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지원사업	신규
	6-2. 공유 문화 확산	6-2-1.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신규
		6-2-2. 공유부엌 조성 및 요리 코칭 사업 운영	신규

6-1 지역 공동체 강화

사회관계망 강화는 1인가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이 연속적으로 생활관리, 미래전망의 불안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천광역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 중 ‘고독과 외로움’은 노년남성의 경우 1순위를, 노년여성, 중장년남성, 중장년여성에게는 2순위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실태조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알아서 해결한다’가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1인가구의 생활에 있어 사회적 관계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생활관리와 일상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사회관계망 강화는 중요하며 이는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된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6-1-1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 중에서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응답이 높고,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할 사람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1인가구로 지낸 시간이 비교적 짧은 청년과 비교적 긴 중장년-노년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생활관리에 있어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지원할 수 있음

- 세대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실질적 지원을 주고받아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청년 1인가구가 지역 내 중장년-노년 1인가구와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독립을 준비 중인 청년도 참여 가능
- 멘토단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군구 가족센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6-1-2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지원 사업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시민참여형 정책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과 연계함
- 여가활동 중심의 동호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적 의제에 개입할 수 있는 관계망을 구성을 통해 1인가구 관계망 형성과 지역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
- 1인가구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회적 의제 발굴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소모임 활동지원 공모사업 운영
 - 소모임을 구성해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증진을 위해 활동계획을 제출하면 이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지역특화 과제 발굴 지원사업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6-2 공유 문화 확산

공유문화 확산은 정서적 관계 뿐 아니라 1인가구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 자원을 나누어 생활의 합리성을 높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안전한 환경까지 고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식사를 함께하는 여가와 생활의 동시적 모임을 지원하는 공유부엌 조성, 요리코칭 지원은 1인가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6-2-1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가 다인가구 단위로 판매되는 식재료를 구매해 직접 요리하면 버려지는 식재료와 경제적 낭비가 발생함
-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하는 것을 꺼려 식생활이 부실하고 외식, 배달음식을 자주 먹다보니 비만 등 건강문제가 발생하거나 제철식단을 경험하기 어려움
- 여러 1인가구를 모아 장보기를 함께 하면 식재료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기반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효과 기대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1인가구 3가구 이상을 포함한 3~5가구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 1가구당 3만원씩, 모임당 9만원~15만원까지 3개월 간 지원
- 공동장보기모임을 구성해 단위별 지역화폐 지원
- 공유부엌, 요리코칭 사업과 연계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협조부서 및 기관 : 군구 가족센터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공동장보기 모임 지원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100	100	100	100

6-2-2 공유부엌 조성 및 요리 코칭 사업 운영

□ 필요성 및 사업목적

- 1인가구 일상생활에서의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식사준비임. 인천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의 불편 중 ‘식사(김치, 반찬 등)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노년남성에서는 매우 높게, 중장년, 청년 남성에서도 높게 나타났음. 심층면접에서도 식사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식생활이 미흡하거나 배달음식 등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식사준비로 인한 어려움은 특히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남
- 식생활은 건강, 생활의 질과 직결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의료, 돌봄 비용의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1인가구의 건강과 일상을 위해 식생활 지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지역사회 공유부엌은 식생활 개선 뿐 아니라 프로그램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음
- 지역사회 공유부엌을 운영하는 운영진 고용을 통해 지역기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만들어냄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조리시설을 보유한 기관을 섭외하여 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업무 후 저녁식사시간, 주말 등)을 활용해 공유부엌 사업 운영
- 공유부엌 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요리코칭 사업을 함께 운영, 생활역량 강화교육과 연계
- 공유부엌을 통해 지역 1인가구 모임을 활성화하여 여가문화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지원
- 우수 참여자에게 지역화폐 추가지원, 문화활동 참여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 제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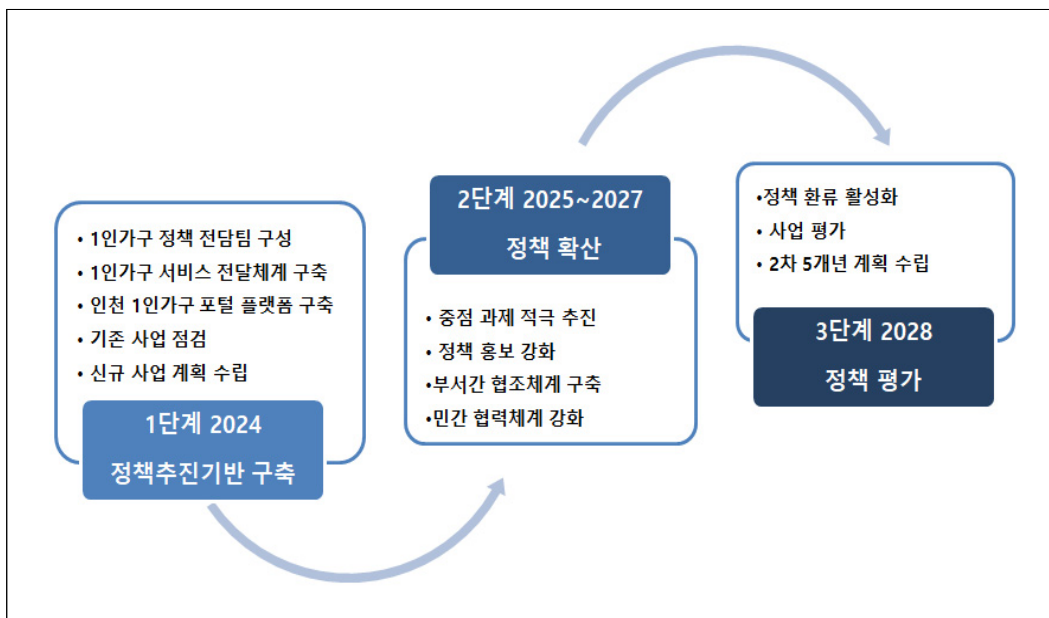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공유부엌 조성 및 요리 코칭 사업	계획수립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소요예산	-	300	300	300	300

5. 1인가구 정책 추진 로드맵

가.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1단계(2023년), 2단계(2025~2027), 3단계(2028) 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각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림 IV-2]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2024년에는 정책추진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1인가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여성가족국 인구가족과에 1인가구 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여 1인가구 정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주요 1인가구 정책 추진부서에 1인지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진다. 군구 가족센터에 1인가구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1인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유관 정책들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담긴 기존 사업을 점검하여 보완할 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과제는 정책의 세부추진 일정 및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 2025년~2027년에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확산하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정책체감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한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완할 점을 점검하고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1인가구 정책은 취약계층 복지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면서 1인가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 정책의 하나이자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가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정책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확산시킨다.

3단계는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수요조사를 새롭게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계획수립을 진행한다.

나. 1인가구 정책 환류체계 구축 방안

1인가구 정책 추진의 어려움은 정책진행 시 사업대상 발굴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지역 내 1인가구를 구별해내기 어렵다. 특히 위기취약계층 1인가구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책의 홍보를 통한 사업참여 유도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에서의 사례관리와 함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지역 내 1인가구 정책 담당 공무원과 1인가구 관련 서비스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정책 추진체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에 기초단위에서 1인가구 사회관계망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지역의 여건과 사업 추진 기관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사업을 조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 관련한 사업은 저녁시간이나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기존 전달체계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는 사업비만으로 기초단위에 사업이 배정된다면 현장실무자의 소진을 유발하고 형식적인 성과 달성에 치중될 우려가 있다.

성과지표는 무리한 양적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지원규모의 2%~5% 정도치를 목표치로 삼고 2028년은 2023년 대비 전체 평균 3%정도 증가하는 것을 목표치로 삼아 사업의 질적인 내실화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규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정책협의회에 실행계획 등을 사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컨설팅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성과지표를 재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

1인가구 관련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지속의 1인가구 전담부처를 신설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1인가구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광역시에서는 1인가구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이후에 양평평등정책담당관 소속으로 소속 부서로 변경하였다. 지역에서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지정하여 1인가구 관련한 서비스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 1인가구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정책의 환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에 광역단위 가족센터가 설립된다면 광역센터에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의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의 특징은 1인가구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공동체 기여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방향에서 접근하여 적은 예산으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지원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산업적 대응의 방향을 기본계획 속에 담고 있다. 2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과 1인가구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중간 사회서비스 영역 활용방안을 보완하는 정책 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영역 육성을 통한 산업진흥정책과 시민사회 단체의 조직을 활용한 1인가구 정책 서비스 전달 중간조직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1인가구 정책의 환류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1인가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를 필요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인가구 포털에 1인가구 관련한 통계 및 현황분석 자료를 함께 콘텐츠로 구성해서 관련 담당자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가구 대상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 1인가구 대상 정책 추진 부서 담당자들 및 정책 추진 현장실무자의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학계와 지역 정책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사업운영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1인가구 지원 정책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예산은 시 전체 예산에서 일정 정보의 비율을 할당하여 1인가구 정책 예산으로 수립한 후 각각의 영역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1인가구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의 사업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검토해서 재원조달의 규모와 예산을 수립하여 정례화된 1인가구 정책부서 협력회의에서 함께 모여서 예산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의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다. 약 57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 규모는 1인가구 정책 전담팀 구성과 관련한 인력 예산은 포함하지 않았고 주거정책에서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예산은 제외하여 계산한 추정치이다.

〈표 IV-2〉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소요예산 추정치

(단위 : 백만원)

목 표	지 표 명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합 계		5,260	13,240	12,770	12,820	12,870	56,960
① 정책추진 기반 구축	1-1. 1인가구 지원 추진기반 조성						0
	1-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내실화	100	770	520	470	470	2,330
	1-3. 1인가구 인식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	150	150	150	150	150	750
② 경제생활 지원	2-1.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	850	2550	2600	2650	2700	11,350
	2-2.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200	2200	2200	2200	2200	9,000
	2-3. 1인가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0	500	500	500	500	2,000
③ 주거안정 지원	3-1. 주거지원(임차보증금지원)	0	1000	1000	1000	1000	4,000
	3-2. 주거 환경 개선	400	650	600	600	600	2,850
④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4-1. 지역사회 안전 강화	300	650	600	600	600	2,750
	4-2. 사적 공간 안전 강화	140	240	300	300	300	1,280
⑤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5-1. 지역사회 돌봄 역량 강화	550	1200	1250	1250	1250	5,500
	5-2. 예방적 위기개입 관리 시스템 구축	2570	2730	2450	2500	2500	12,750
⑥ 사회관계 망 강화	6-1. 지역 공동체 강화	0	200	200	200	200	800
	6-2. 공유 문화 확산	0	400	400	400	400	1,600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관련 예산 별도

참고문헌

- 고보혜. (2015). 광주지역 여성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권안나. (2019).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가족정책 방향. 울산여성가족개발원.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김민지. (2018). 대구지역 여성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김보람. (2016). 부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대응. 부산복지개발원.
- 김영란, 송치선. (2014). 지역연대에 기초한 노인1인가구 돌봄지원방안 -노인돌봄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정.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6080 여성노인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_____. (2019). 1인가구 주거공동체 및 사회적 관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윤영, 김아진. (2017). 인천시 1인가구 특성 및 정책수요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윤영.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정란, 이민희, 권은비. (2020).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광주여성가족재단.
- 김종숙, 배호중. (2015). 세대별, 성별 1인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준형. (2013). 1인가구 증가와 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 대구경북연구원.
- 김춘남. (2014). 경기도 노인1인가구 정책지원 방안연구-독거노인서비스욕구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경기복지재단.
- 김현주. (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김혜영.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정. (2021). 1인가구 영향평가 지표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노경혜, 노혜진, 정혜원. (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노경혜, 이나련, 황경란. (2018). 경기도 1인가구 삶의 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노채영, 김수진. (2018). 광주지역 여성노인 1인가구 정책욕구 조사. 광주여성재단.

- 류유선. (2019). 대전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문정희, 이재정, 김형균, 이동현, 오동하, 오재환, 서옥순, 이창현, 김권주, 정주영, 도다정, 박건.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4050 중장년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박노동, 이정림, 박해남, 방정희. (2018).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세대별 차이 분석. 대전세종연구원.
- 박석환, 최조순. (2016). 경기도 1인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복지재단
- 박영주, 최세정. (2013). 1인가구 종합지원 정책방안. 대구여성가족재단.
- 박은미. (2018). 경상북도 1인가구 실태 및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박주희. (2018). 광주지역 청년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박준승, 조운오, 박형아. (2017).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II) : 1인가구 밀집지역의 안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준휘, 김한균, 유진, 한민경, 이성규, 최지선, 윤상연, 강용길, 박재풍, 이춘삼, 김도형, 반정호. (2014). 1인가구의 고용과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배건이, 정극원. (2013). 1인가구 지원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 연구. 서울연구원.
- 변미리. (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변혜선. (2017).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연구 : 청주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충북연구원.
- 성은미, 김세원, 박다정. (2016).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양수진, 이명성, 장명선, 김민정. (2018). 인천시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 양정선, 전경숙, 고지영, 김정숙, 구현경. (2010).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한 경기도 1인가구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 유은경, 양진운. (2018). 강원도 청년 1인가구의 성별 특성 및 정책과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 이성은, 박홍주. (2012).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 정책지원방안 수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수인, 전희진, 최지훈. (2020). 전라북도 농촌 1인가구 실태와 삶의 만족도. 전북연구원.
- 이수인, 전희진, 최지훈. (2020). 전북 여성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연구원.
- 이연화, 진영찬. (2018). 제주지역 여성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이원진. (2021). 1인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인숙, 이혜진, 장지현. (2021). 경남 1인가구 지원 방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이정희, 전다솜. (2019). 충북 중장년층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현안. 충북여성재단.
- 이주영. (2013). 울산광역시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1인가구 주택정책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이준우, 장민선. (2014). 1인가구 급증에 따른 법제변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혜진, 김민정. (2020). 경상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연구. 경남연구원.
- 임병호. (2012). 대전시 1인가구의 증가와 대응방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 임우연. (2020). 충청남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_____. (2021). 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장명선, 박건, 용환승, 이윤정, 이하늘, 이한솔. (2019).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온라인플랫폼 구축 도입방안. 서울특별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_____, 장미현, 황은정. (2020). 여성 1인가구 안전실태 분석연구. 여성가족부.
- 장미혜, 정연주, 박상민, 홍세은, 정다운, 정지연, 노성훈, 최재훈, 차유정, 장광호, 박석만, 우신철. (2022).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I) :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진희, 김영정, 김혜영, 장명선. (2017). 서울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진희.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 203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창수. (2017). 대전시 노인 1인가구 특성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전지혜·김민·남지현·원영미. (2022). 인천시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 전희진, 김시백, 오병록, 전아람. (2021). 전라북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정경희, 남상호, 정은지, 이지혜, 이윤경, 김정석, 김혜영, 진미정. (2012).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 1인가구 증가현상과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은. (2022). 인천시 1인가구 특성과 정책 방향. 인천연구원.
- 정혜원, 노경혜, 노혜진. (2021). 경기도 여성 1인가구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연구 : 빈곤과 범죄를 중심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환도. (2017). 1인가구의 생활쓰레기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조득환. (2019). 대구시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정책 방향. 대구경북연구원.
- 조승헌, 이은지. (2017). 인천시 1인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 주혜진, 손정혁. (2014). 대전지역 여성1인가구 현황 및 특성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_____, 류유선, 박민정. (2015).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 안전 지원 방안. 대전발전연구원.
- _____. (2017).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 채성주. (2015). 충북지역 1인가구의 주거실태 분석과 정책 방향. 충북발전연구원.
- 최성은, 안용준. (2018). 세종시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하정화, 김현희, 박진아. (2014). 부산지역 1인가구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옥, 김수진. (2018).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경란, 박소영, 박수선, 조성희, 최성은. (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 황정임, 김은지. (2014). 여성가구주가구의 주거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도시지역의 비혼1인가구 및 저소득한부모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 수립 연구**

발 행 인 인천광역시장

발 행 일 2023년 10월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인구가족과
TEL. 032-440-4932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http://www.incheon.go.kr>

연 구 기 관 (재)인천여성가족재단
TEL. 032-517-0156
21338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http://www.ifwf.or.kr>

인 쇄 처 032디자인(주) 032-777-7032

발 간 번 호 54-6280000-000634-01

